# 값진 진주

# 값진 진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초대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인
조셉 스미스의
계시, 번역, 구술
선집

## 소 개

값진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신앙과 교리에 관한 많은 중요한 사항들을 다룬 귀중한 자료들 중에서 뽑아 모은 것이다. 이 자료들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만들었으며 그의 생전에 교회의 정기 간행물에 게재되었다.

값진 진주라는 표제가 붙은 최초의 자료집을 만든 사람은, 1851년 그 당시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이었으며 영국 선교부장이었던 프랭클린 디 리차즈 장로였다. 이 자료집의 목적은 조셉 스미스 시대에 제한된 회원들만이 읽을 수 있었던 몇 가지 중요한 글들을 사람들이 좀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유럽과 미국에서 교회 회원이 늘어남에 따라 이 자료들의 이용의 필요성도 증가하게 되었다. 값진 진주는 널리 사용되게 되었고 뒤이어 1880년 10월 10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연차 대회에서 대관장단의 의결에 의하여 교회의 표준 경전의 하나가 되었다.

교회의 필요에 따라 내용에 몇 차례 개정이 있었다. 1878년에 초판에는 실리지 않았던 모세서의 일부분이 추가되었다. 1902년에는 교리와 성약에 중복 게재되어 있던 값진 진주의 몇 부분이 삭제되었다. 1902년에 각주가 있는 장과 절로 정리되었다. 1921년에 처음으로 한 쪽을 두 단으로 나누고 색인을 첨가하여 출판하였다. 1976년 4월까지 또 다른 변경이 없다가 두 편의 계시가 추가되었다. 1979년에 이 두 편의 계시는 값진 진주에서 옮겨져 교리와 성약에 포함되었는데 그것이 현재의 137편과 138편이다. 현재의 판에는 내용을 초기 기록과 일치시키기 위한 몇 가지 변경이 있었다.

다음은 현재의 내용에 대한 간략한 소개이다.

*모세서 선집.*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의 창세기에서 발췌한 것으로, 이 번역은 그가 1830년 6월에 시작하였다(*교회사* 1:98~101, 131~139).

*아브라함서.* 1835년 조셉 스미스의 손에 들어온 몇 장의 애굽 파피루스에서 번역한 것으로 족장 아브라함의 글이 실려 있다. 번역문은 1842년 3월 1일부터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타임즈 앤드 시즌즈* 지에 연재되었다(*교회사* 4:519~534).

*조셉 스미스—마태.* 조셉 스미스 역 성경 가운데 마태복음에서 발췌한 것(신약전서의 번역에 착수하라는 하나님의 지시에 대해서는 교리와 성약 45:60~61을 보라).

*조셉 스미스—역사.* 조셉 스미스의 공식적인 증언과 역사의 발췌문. 그는 이것을 1838년에 준비하여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타임즈 앤드 시즌즈* 지에 1842년 3월 15일부터 연재하였다(*교회사* 1:1~44).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앙개조.*** **웬트워스 서한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교회 약사와 함께 1842년 3월 1일 *타임즈 앤드 시즌즈* 지에 게재된 조셉 스미스의 성명문(*교회사* 4:535~541).**

# 값진 진주

## 책의 이름 및 차례

쪽

모세서 선집 …… 1

아브라함서 …… 35

사본 1 …… 34

사본 2 …… 44

사본 3 …… 49

조셉 스미스—마태 …… 52

조셉 스미스—역사 …… 56

신앙개조 …… 73

18 *30년 6월~1831년 2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계시된 성경의 번역문에서 발췌한 것임.*

## 제 1 장

*(1830년 6월)*

***하나님이 자신을 모세에게 나타내심—모세가 변형됨—사탄이 그를 상대함—모세는 사람이 사는 많은 세상을 봄—무수한 세상이 아들에 의하여 창조되었음—하나님의 일과 영광은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것임.***

**모세가 심히 높은 산에 이끌려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ㄱ모세에게 ㄴ하신 말씀이니**

**2 그는 ㄱ얼굴을 마주하여 하나님을 ㄴ보았고 그와 대화하였으며, 하나님의 ㄷ영광이 모세 위에 임하더라. 그러므로 모세는 주의 임재하심을 ㄹ견딜 수 있더라.**

**3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나는 ㄱ전능한 주 하나님이요, ㄴ무궁이 나의 이름이니라. 이는 나에게는 시작하는 날이나 끝나는 해도 없음이니, 이것이 무궁이 아니냐?**

**4 그리고 보라, 너는 내 아들이니라. 그러므로 ㄱ보라, 그리하면 나는 나의 ㄴ손으로 지은 것을 네게 보여 주려니와 모두는 아니니라. 나의 ㄷ일은 ㄹ끝이 없으며, 나의 ㅁ말도 그러하도다. 이는 그것들이 결코 그치지 아니함이니라.**

**5 그런즉 아무도 나의 모든 영광을 보지 아니하고서는 나의 모든 일을 볼 수가 없고, 또 아무도 나의 모든 영광을 보고, 그 후에 땅에서 육신으로 남아 있을 수가 없느니라.**

**6 그리고 내 아들 모세야, 나는 네가 해야 할 일을 갖고 있도다. 너는 나의 ㄱ독생자를 ㄴ닮았나니, 나의 독생자는 현재나 미래에도 ㄷ구원자라, 이는 그가 ㄹ은혜와 ㅁ진리로 충만함**

**1** 1ㄱ 안내 모세.
ㄴ 앨 12:30; 모세 1:42.
2ㄱ 민 12:6~8; 신 34:10; 교성 17:1.
ㄴ 출 3:6; 33:11; 요 1:18; 6:46; 이더 3:6~16; 모세 1:11. 조성, 출 33:20, 23.
ㄷ 신 5:24; 모세 1:13~14, 25. 안내 영광.
ㄹ 안내 변형.
3ㄱ 계 11:17; 19:6; 니전 1:14; 121:4. 안내 하나님, 신회.
ㄴ 사 63:16; 교성 19:9~12; 모세 7:35. 안내 무궁.
4ㄱ 모세 7:4.
ㄴ 모세 7:32, 35~37.
ㄷ 시 40:5; 교성 76:114.
ㄹ 시 111:7~8; 모세 1:38.
ㅁ 니후 9:16; 교성 1:37~39. 안내 하나님의 말씀.
6ㄱ 안내 독생자.
ㄴ 창 1:26; 이더 3:14~15; 모세 1:13~16.
ㄷ 안내 구주.
ㄹ 요 1:14, 17; 앨 13:9. 안내 은혜.
ㅁ 모세 5:7.

이니라. 그러나 나 외에는 하나님이 ㅂ없고 만물은 나와 함께 있나니, 이는 내가 그 모든 것을 ㅅ알고 있음이니라.

7 그리고 이제 보라, 나의 아들 모세야, 이 한 가지를 내가 네게 보여 주노니, 이는 네가 세상에 있음이니, 이제 내가 그것을 네게 보여 주노라.

8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모세가 바라보고, 그가 지음을 받아 사는 ㄱ세상을 보았더라. 그리고 모세는 세상과 그 종말을 ㄴ보았고, 현재 지음을 받으며 또 지음을 받았던 모든 사람의 자녀들을 보았고, 이 일들에 대하여 크게 ㄷ놀라고 기이히 여겼더라.

9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모세에게서 물러가매, 그의 영광이 모세 위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에 모세는 홀로 있게 되었고, 홀로 있게 되자 그는 땅에 쓰러졌더라.

10 또 이렇게 되었나니, 모세가 사람이 가진 본래의 ㄱ힘을 다시 얻기까지 많은 시간이 지났더라. 그리고 그가 스스로에게 이르기를,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나는 사람이 ㄴ아무 것도 아님을 아나니, 이 일은 내가 결코 생각해 본 적이 없도다.

11 그러나 이제 내 자신의 눈으로 ㄱ하나님을 뵈었도다. 그러나 이는 나의 ㄴ육에 속한 눈으로가 아니요, 나의 영적인 눈으로 보았음이니, 이는 나의 육에 속한 눈으로는 볼 수 없었음이라. 이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나는 ㄷ말라 ㄹ죽을 수 밖에 없었을 것임이로다. 그러나 그의 영광이 내 위에 있었고 나는 그의 ㅁ얼굴을 뵈었나니, 이는 내가 그의 앞에서 ㅂ변형되었음이라.

1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모세가 이러한 말을 하였을 때, 보라, ㄱ사탄이 와서 그를 ㄴ유혹하여 이르되, 사람의 아들 모세야, 나를 경배하라.

13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모세가 사탄을 보고 이르되, 너는 누구냐? 보라, 나는 하나님의 한 ㄱ아들이요 그의 독생자를 닮았나니, 네 영광이 어디 있기에 내가 너를 경배해야 하리요?

14 이는 보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시고 내가 그 앞에서 ㄱ변형되지 아니하였으면, 나는 그를 바라볼 수 없었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너를 바라볼 수 있도다. 분명히 그렇지 아니하냐?

15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는 그의 영이 내게서 온전히 물러가지 아니하였음이라, 그것도 아니라면 너의 영광은 내게 어둠이

6 ㅂ 왕상 8:60; 사 45:5~18, 21~22.
ㅅ 니전 9:6; 니후 9:20; 앨 18:32; 교성 38:1~2. 안내 전지.
8 ㄱ 모세 2:1.
ㄴ 모세 1:27.
ㄷ 시 8:3~4.
10 ㄱ 단 10:8, 17; 니전 17:47; 앨 27:17; 조역 1:20.
ㄴ 단 4:35; 힐 12:7.
11 ㄱ 안내 하나님, 신회.
ㄴ 모세 6:36; 교성 67:10~13.
ㄷ 출 19:21.
ㄹ 출 20:19.
ㅁ 창 32:30; 모세 7:4.
ㅂ 마 17:1~8. 안내 변형.
12 ㄱ 모세 4:1~4. 안내 악마.
ㄴ 모세 6:49. 안내 유혹하다, 유혹.
13 ㄱ 시 82:6; 요1 3:2; 히 12:9.
14 ㄱ 안내 변형.

라, 그 영광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내가 너와 하나님을 구별할 수 있나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을 ㄱ경배하라. 너는 나만을 ㄴ섬겨야 하느니라 하셨음이니라.

16 사탄아, 이 곳에서 물러가라. 나를 속이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나의 독생자를 ㄱ닮았도다 하시고,

17 또한 불붙은 ㄱ떨기나무에서 나를 부르실 때에 내게 여러 가지 계명을 주시며 이르시기를, 나의 독생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ㄴ부르고 나를 경배하라 하셨음이니라.

18 그리고 또 모세가 이르되, 나는 하나님 부르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니, 나는 그에게 물어볼 다른 일들이 있느니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있었음이라, 그런즉 나는 그와 너를 구별할 수 있느니라. 사탄아, 여기에서 떠나가라.

19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 말을 하자, 사탄이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서 고함치며 명하여 이르기를, 내가 ㄱ독생자니 나를 경배하라 하더라.

2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모세가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하더니, 그가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에 그는 ㄱ지옥의 참담함을 보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ㄴ부름으로써, 그가 힘을 얻더니, 이에 그가 명하여 이르기를,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는 이 한 하나님만을 내가 경배할 것임이니, 이는 영광의 하나님이시니라.

21 이에 이제 ㄱ사탄이 떨기 시작하더니, 땅이 흔들렸고, 모세가 힘을 받아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기를, 독생자의 이름으로 이르노니, 사탄아, 이 곳에서 떠나라 하였더라.

2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사탄이 울며 애곡하며 이를 ㄱ갈며 큰 소리를 지르고, 이 곳 곧 모세의 면전에서 떠나니, 그가 그를 보지 못하였더라.

23 그리고 이제 이 일에 대하여 모세가 증거하였더라. 그러나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가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있지 아니하니라.

24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사탄이 모세의 면전에서 떠났을 때에 모세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ㄱ성신으로 충만하여 자기 눈을 들어 하늘을 보더니,

25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또다시 그의 영광을 보았더라. 이는 그 영광이 그의 위에 있었음이라. 그리고 그가 한 음성을 들었으니, 이르시기를, 모세야, 너는 복이 있도다. 이는 나 전능자가 너를 택하였고 너는 많은 ㄱ물보다 더 강하게 될 것임이니, 이는 네가 마치 ㄴ하나님인 것 같이 그들이 네 ㄷ명령에 순종할 것임이니라.

15ㄱ 마 4:10. 안내 예배.
ㄴ 삼상 7:3; 3니 13:24.
16ㄱ 모세 1:6.
17ㄱ 출 3:2.
ㄴ 모세 5:8.
19ㄱ 마 24:4~5.
20ㄱ 안내 지옥.
ㄴ 조역 1:15~16. 안내 기도.
21ㄱ 안내 악마.
22ㄱ 마 13:41~42; 모사 16:1~3.
24ㄱ 안내 성신.
25ㄱ 출 14:21~22.
ㄴ 출 4:16.
ㄷ 안내 권능; 신권.

26 그리고 바라보라, 나는 참으로
네 생애 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니, 이
는 네가 나의 백성 곧 나의 ㄱ택한 ㄴ이
스라엘을 ㄷ속박에서 ㄹ건져낼 것임이
니라.

27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 음
성이 아직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모
세가 자기 눈을 들어 땅을 보되 참으
로 땅의 모든 것을 ㄱ보았으니, 땅의
티끌 하나도 그가 보지 못한 것이 없
었고 하나님의 영으로써 이를 분별
하였더라.

28 그리고 그는 또한 땅의 주민들
을 보았나니, 그가 보지 못한 영혼은
하나도 없었고, 그는 하나님의 영으
로 그들을 분별하였더라. 그리고 그
들의 수가 많았으니, 참으로 바닷가
모래와 같이 무수하더라.

29 그리고 그는 많은 육지를 보았
고, 각 육지를 ㄱ땅이라 일컬었으며,
그 지면 위에 주민들이 있더라.

30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모세
가 하나님을 불러 아뢰되, 원하옵건
대 내게 말씀하소서. 어찌하여 이것
들이 이와 같으며 무엇으로 당신께서
이것들을 만드셨나이까 하였더라.

31 그리고 보라, 주의 영광이 모세
위에 있었으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면전에 서서 그와 ㄱ얼굴을 마주하여
이야기하더라. 이에 주 하나님이 모
세에게 이르시되, 내 자신의 ㄴ목적이
있어 내가 이것들을 만들었느니라.
여기에 지혜가 있나니, 그것은 내 안
에 머물러 있느니라.

32 그리고 나의 권능의 ㄱ말씀으로
내가 그것들을 창조하였나니, 말씀
은 나의 독생자요 ㄴ은혜와 ㄷ진리가
충만한 자니라.

33 그리고 무수한 ㄱ세상을 내가
ㄴ창조하였고 또한 나는 내 자신의 목
적이 있어 그것들을 창조하였으며,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들을 창
조하였나니, 이는 나의 ㄷ독생자니라.

34 그리고 모든 사람들 중에 ㄱ첫
사람을 내가 ㄴ아담이라 일컬었나니,
이는 ㄷ많다 함이니라.

35 그러나 이 땅과 그 주민들의 기
사만을 내가 네게 주노라. 대저 보라,
내 권능의 말씀으로 사라져 버린 세
상이 많으니라. 그리고 현재 존재하
고 있는 것이 많으니, 그것들이 사람
에게는 셀 수 없는 것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만물이 헤아려 지나니, 이는
그것들이 내 것이요, 내가 그것들을
ㄱ알고 있음이니라.

3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모세가

26ㄱ 안내 택하신.
ㄴ 왕상 8:51~53.
안내 이스라엘.
ㄷ 니전 17:23~25.
ㄹ 출 3:7~12.
27ㄱ 교성 88:47; 모세 1:8.
안내 시현.
29ㄱ 안내 지구.
31ㄱ 신 5:4; 모세 1:11.
ㄴ 사 45:17~18; 니후 2:14~15.
32ㄱ 요 1:1~4, 14; 히 1:1~3; 계 19:13; 야곱 4:9; 모세 2:1, 5.
안내 예수 그리스도.
ㄴ 시 19:1; 모세 5:7~8.
안내 은혜.
ㄷ 안내 진리.
33ㄱ 시 8:3~4; 교성 76:24; 모세 7:29~30.
ㄴ 안내 창조하다, 창조.
ㄷ 모세 1:6.
34ㄱ 모세 3:7.
ㄴ 아브 1:3.
안내 아담.
ㄷ 모세 4:26; 6:9.
35ㄱ 모세 1:6; 7:36.
안내 전지.

주께 말씀하여 아뢰되, 오 하나님, 당신의 종에게 자비를 베푸사 이 땅과 그 주민과 또한 그 하늘들에 관하여 내게 말씀하여 주소서. 그리하면 당신의 종이 만족하겠나이다.

37 이에 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ㄱ하늘들, 그것들은 많으니, 사람에게는 헤아려질 수 없느니라. 그러나 내게는 헤아려지나니, 이는 그것들이 내 것임이니라.

38 그리고 한 땅이 사라지고 그 하늘들도 그러하면, 그와 같이 또 다른 것이 오리니, 나의 일에는 ㄱ끝이 없고, 나의 말에도 끝이 없느니라.

39 보라, 사람에게 ㄱ불멸과 ㄴ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것이 곧 나의 ㄷ일이요, 나의 ㄹ영광이니라.

40 그리고 이제 내 아들 모세야, 나는 네가 서 있는 이 땅에 관하여 네게 말하리니, 내가 말하는 것들을 ㄱ기록할지니라.

41 그리고 사람의 자녀들이 나의 말을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며, 네가 기록할 책에서 나의 말을 많이 ㄱ빼내어 버리는 그 날에, 보라, 내가 너와 ㄴ같은 자를 또 하나 일으키리니, ㄷ나의 말이 사람의 자녀들 곧 많은 믿는 자 가운데 또다시 있게 되리라.

42 (이 말은 산에서 모세에게 ㄱ한 것이니, 그 산 이름은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알려지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 말을 네게 일러 주노니, 믿는 자 외에는 아무에게도 이를 보이지 말라. 참으로 그러하도다. 아멘.)

## 제 2 장

*(1830년 6월~10월)*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심—모든 생명의 형태가 창조됨—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다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심.*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네게 이 ㄱ하늘과 이 ㄴ땅에 관하여 ㄷ계시하노니, 내가 하는 말을 기록하라. 나는 시작과 끝이요 ㄹ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나의 ㅁ독생자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들을 ㅂ창조하였나니, 참으로 태초에 내가 하늘과 네가 서 있는 땅을 창조하였느니라.

2 그리고 ㄱ땅은 형체가 없었고 공허하였으며, 내가 흑암을 깊음 위에 올라오게 하였고, 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였느니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 됨이니라.

3 그리고 나 하나님이 이르되, ㄱ빛

37ㄱ 아브 4:1.
안내 하늘.
38ㄱ 모세 1:4.
39ㄱ 안내 불멸의, 불멸.
ㄴ 안내 영생.
ㄷ 롬 8:16~17; 니후 2:14~15.
안내 구속의 계획.
ㄹ 안내 영광.
40ㄱ 니후 29:11~12.
41ㄱ 니전 13:23~32; 모세 1:23.
ㄴ 니후 3:7~19.
ㄷ 니전 13:32, 39~40; 교성 9:2.
42ㄱ 모세 1:1.
2 1ㄱ 안내 하늘.
ㄴ 모세 1:8.
ㄷ 모세 1:30, 36.
ㄹ 안내 하나님, 신회—아버지 하나님.
ㅁ 안내 독생자.
ㅂ 안내 창조하다, 창조.
2ㄱ 창 1:2; 아브 4:2.
3ㄱ 교성 88:6~13.
안내 빛, 그리스도의 빛.

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느니라.
4 그리고 나 하나님이 그 빛을 보니, 그 빛이 ㄱ좋았더라. 또 나 하나님이 빛을 어둠으로부터 나누었느니라.
5 그리고 나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일컬었고 어둠을 내가 밤이라 일컬었느니라. 이를 나는 나의 권능의 ㄱ말씀으로 행하였으며, 내가 ㄴ말한 대로 이루어졌느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ㄷ날이더라.
6 그리고 또, 나 하나님이 이르되, 물 가운데 ㄱ궁창이 있으라 하매,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되니라. 또 내가 이르되, 궁창으로 물과 물이 나뉘게 하라 하매, 그렇게 되니라.
7 그리고 나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고 ㄱ물, 참으로 궁창 아래의 큰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니,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되니라.
8 그리고 나 하나님이 궁창을 ㄱ하늘이라 일컬었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더라.
9 그리고 나 하나님이 이르되, 천하의 물이 ㄱ한 곳으로 모이라 하매, 그대로 되니라. 또 나 하나님이 이르되, 마른 육지가 있으라 하매 그대로 되니라.
10 그리고 나 하나님이 마른 육지를 ㄱ땅이라 일컬었고 모인 물을 내가 바다라 일컬었더라. 그리고 나 하나님이 보니, 내가 만든 모든 것이 좋았더라.
11 그리고 나 하나님이 이르되, 땅은 ㄱ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그 종류대로 그리고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를 땅에 내라 하매,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되니라.
12 그리고 땅이 풀과 씨 맺는 모든 채소를 그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내었고, 나 하나님이 보니, 내가 만든 모든 것이 좋았더라.
13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더라.
14 그리고 나 하나님이 이르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밤과 낮이 나뉘게 하라. 또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15 또 그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매, 그대로 되니라.
16 그리고 나 하나님이 큰 광명체 둘을 만들고 더 큰 ㄱ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더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니, 더 큰 광명체는 해요, 더 작은 광명체는 달이더라. 또 별들도 또한 나의 말에 따라 만들어졌느니라.
17 그리고 나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며,
18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며, 빛과 어둠이 나뉘게 하니라. 나 하나님이 보니, 내가 만든 모든 것이 좋았더라.

4ㄱ 창 1:4; 아브 4:4.
5ㄱ 모세 1:32.
ㄴ 고후 4:6.
ㄷ 창 1:5.
6ㄱ 창 1:6~8.
7ㄱ 아브 4:9~10.
8ㄱ 안내 하늘.
9ㄱ 창 1:9; 아브 4:9.
10ㄱ 안내 지구.
11ㄱ 창 1:11~12; 아브 4:11~12.
16ㄱ 창 1:16.

19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더라.
20 그리고 나 하나님이 이르되, 물
들은 생명을 가진 움직이는 생물과,
땅 위 하늘의 열린 궁창을 날 수 있는
새를 번성하도록 내라 하고,
21 나 하나님이 큰 ㄱ고래와 물들이
번성하도록 내는 움직이는 모든 생
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
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니라. 나 하나
님이 보니,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이 좋
았더라.
22 그리고 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르되, 생육하고 ㄱ번성하
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서 번성하라 하니라.
23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더라.
24 그리고 나 하나님이 이르되, 땅
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매, 그대로 되니라.
25 그리고 나 하나님이 땅의 짐승
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
드니라. 나 하나님이 보니, 이 모든
것이 좋았더라.
26 그리고 나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와 함께 있던 나의 ㄱ독생자에게 이
르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ㄴ모양대로 사람을 ㄷ만들자 하매, 그
대로 되니라. 그리고 나 하나님이 이
르되,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어다니
는 모든 기는 것을 ㄹ다스리게 하자
하고,
27 나 ㄱ하나님이 나의 형상대로 사
람을 창조하되, 나의 독생자의 형상
대로 내가 그를 창조하였고, 남자와
여자로 내가 그들을 창조하니라.
28 그리고 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
고 ㄱ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
리라 하니라.
29 그리고 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온 지면의 씨 맺
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
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ㄱ먹을거리가 되리라.
30 또 내가 생명을 주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깨끗한 채
소를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니,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되니라.
31 그리고 나 하나님이 내가 만든
모든 것을 보니, 보라, 내가 만든 모든
것이 심히 ㄱ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
침이 되니, 이는 ㄴ여섯째 날이더라.

21ㄱ 창 1:21; 아브 4:21.
22ㄱ 창 1:22~25; 아브 4:22~25.
26ㄱ 안내 예수 그리스도.
ㄴ 창 1:26~27; 모세 6:8~10; 아브 4:26~27.
ㄷ 안내 창조하다, 창조.
ㄹ 창 1:28; 모세 5:1; 아브 4:28.
27ㄱ 안내 하나님, 신회.
28ㄱ 모세 5:2.
29ㄱ 창 1:29~30; 아브 4:29~30.
31ㄱ 창 1:31; 교성 59:16~20.
ㄴ 출 20:11; 아브 4:31.

## 제 3 장

*(1830년 6월~10월)*

***하나님은 만물이 땅 위에 육에 속하기 이전에 그것들을 영적으로 창조하셨음—하나님이 사람, 곧 최초의 육신을 땅에 창조하셨음—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임.***

**이같이 천지와 그 가운데 ㄱ만물이 다 ㄴ이루어지니라.**

**2 그리고 일곱째 날에 나 하나님이 나의 일과 내가 짓던 모든 것을 마치니라. 그리고 내가 ㄱ일곱째 날에 나의 모든 일에서 ㄴ안식을 취하니라. 내가 짓던 모든 것을 마치고 나 하나님이 보니, 그것들이 좋았더라.**

**3 그리고 나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ㄱ복 주어 성결케 하였으니, 이는 나 하나님이 그 창조하고 짓던 나의 모든 ㄴ일을 마치고 이 날에 안식을 취하였음이니라.**

**4 그리고 이제,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 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던 날에, 그것들이 창조될 때의 천지의 내력이 이러하니,**

**5 곧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ㄱ전이었고 또 들의 모든 채소도 자라기 전이었느니라. 이는 내가 말한 만물이 지면에 육에 속하기 이전에 나 주 하나님이 그것들을 ㄴ영적으로 ㄷ창조하였음이니라. 이는 나 주 하나님이 지면에 비가 내리게 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나 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자녀들을 ㄹ창조하였으나 ㅁ땅을 갈 사람은 아직 아니하였나니, 이는 ㅂ하늘에서 내가 그들을 ㅅ창조하였고, 아직 육을 가진 자가 땅 위에 없었고 물 속에도 없었고 공중에서도 없었음이니라.**

**6 그러나 나 주 하나님이 말하매, ㄱ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땅의 온 표면을 적셨더라.**

**7 그리고 나 주 하나님이 땅의 ㄱ흙으로 사람을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 ㄴ사람이 ㄷ생령이 된지라, 땅 위에 ㄹ첫 육신을 가진 자요 첫 사람이 되었더라. 그러할지라도 만물은 이전에 창조되었으되, 나의 말에 따라 영적으로 그들은 창조되고 지음을 받았느니라.**

**8 그리고 나 주 하나님이 동쪽 ㄱ에덴에 동산을 만들고 내가 지은 사람을 거기에 두니라.**

**9 나 주 하나님이 그 땅에서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모든 나무가 저마다 자연적으로 자라게 하니, 사람이 그것을 볼 수 있더라. 그리고 그것도 또**

**3** 1ㄱ 창 2:1; 아브 5:1.
ㄴ 안내 창조하다, 창조.
2ㄱ 안내 안식일.
ㄴ 창 2:2~3; 아브 5:2~3. 안내 안식.
3ㄱ 모사 13:19.
ㄴ 출 31:14~15.
5ㄱ 창 2:4~5; 아브 5:4~5.
ㄴ 아브 3:23; 교성 29:31~34. 안내 영적 창조.
ㄷ 모세 6:51.
ㄹ 안내 영.
ㅁ 창 2:5.
ㅂ 안내 하늘.
ㅅ 안내 사람, 사람들—사람, 하늘 아버지의 영의 자녀.
6ㄱ 창 2:6.
7ㄱ 창 2:7; 모세 4:25; 6:59; 아브 5:7.
ㄴ 안내 아담.
ㄷ 안내 영혼.
ㄹ 모세 1:34.
8ㄱ 안내 에덴.

한 생령이 되었더라. 이는 내가 그것을 창조한 날에 그것이 영적이었음이라, 이는 나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한 영역 안에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음이니, 참으로 사람이 사용하도록 내가 예비한 모든 것이 그러하니라. 또 사람이 보니, 그것이 먹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나 주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또한 ㄱ생명나무도 심고 또한 ㄴ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심었더라.

10 그리고 나 주 하나님이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게 하였나니 거기에서 그것이 갈라져 네 ㄱ근원이 되었더라.

11 그리고 나 주 하나님이 첫째의 이름을 비손이라 하였고, 그것은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거기에 나 주 하나님이 많은 금을 창조하였느니라.

12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더라.

13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하였나니, 에디오피아 온 땅을 둘렀고

14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니, 앗수르 동쪽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15 그리고 나 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가꾸며 지키게 하고,

16 나 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할지라도 네가 스스로 ㄱ택할 수 있나니, 이는 그 일이 네게 주어졌음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그것을 금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네가 그 열매를 먹는 ㄴ날에는 반드시 ㄷ죽을 것임이니라 하니라.

18 그리고 나 주 하나님이 나의 ㄱ독생자에게 이르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런즉 내가 그를 위하여 ㄴ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니라.

19 그리고 흙으로 나 주 하나님이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짓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려고 그에게로 나아오라 명하였더라. 또 그것들도 또한 생령이더라. 이는 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었음이요,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대로 그것이 그 이름이 되리라 명하였음이니라.

20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아담에게는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이 없더라.

21 이에 나 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니, 그가 잠들매, 내가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그 대신 채우고,

22 나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빗대로 ㄱ여자를 만들고 그를 남자에게로 이끌어 오니,

23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9ㄱ 안내 생명나무.
ㄴ 창 2:9.
10ㄱ 창 2:10.
17ㄱ 모세 7:32.
안내 선택의지.
ㄴ 아브 5:13.
ㄷ 창 2:17.
안내 사망, 육체적; 필멸의, 필멸.
18ㄱ 안내 독생자.
ㄴ 창 2:18; 아브 5:14.
22ㄱ 안내 이브; 여인, 여인들.

뼈요 내 살 중의 ㄱ살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24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ㄱ합하여 둘이 ㄴ한 몸을 이룰지로다.

25 남자와 그의 아내가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 제 4 장

*(1830년 6월~10월)*

***사탄이 어떻게 악마가 되었는가—그가 이브를 유혹함—아담과 이브가 타락하여 사망이 세상에 들어 옴.***

**그리고 나 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 가로되, 네가 나의 독생자의 이름으로 명하였던 그 ㄱ사탄은 ㄴ태초부터 있던 자라, 그가 내 앞에 와서 이르기를—보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당신의 아들이 되겠사오며, 내가 온 인류를 구속하여 한 영혼도 잃지 아니하겠고 또 반드시 ㄷ내가 이를 행하리니, 그런즉 당신의 존귀를 내게 주소서 하니라.**

**2 그러나 보라, 태초부터 나의 사랑하는 자요 ㄱ택한 자였던 나의 사랑하는 ㄴ아들이 내게 이르기를—ㄷ아버지여, 당신의 ㄹ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ㅁ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3 그런즉 사탄이 나를 거스려 ㄱ모반하였고, 나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ㄴ선택의지를 멸하려 하였으며, 또한 내 자신의 권능을 자기에게 주기를 구한 까닭에 나는 나의 독생자의 권능으로써 그가 ㄷ쫓겨 나게 하였느니라.**

**4 이에 그가 사탄이 되었나니, 그러하도다, 참으로 모든 ㄱ거짓의 아비인 악마라. 사람들을 속이며 눈멀게 하며, 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 가서 포로가 되게 하였느니라.**

**5 그런데 이제, 나 주 하나님이 지은 어떤 들짐승보다도 뱀이 더욱 ㄱ간교하더라.**

**6 그리고 사탄은 뱀의 마음 속에 그것을 넣었고, (이는 그가 이미 많은 자를 이끌어내어 자기를 따르게 하였음이라,) 그는 또한 ㄱ이브를 속이려고 하였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런즉 그는 세상을 멸하려 하였더라.**

**7 이에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하시기를—너희는 ㄱ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23ㄱ 창 2:23; 아브 5:17.
24ㄱ 창 2:24; 교성 42:22; 49:15~16; 아브 5:17~18.
ㄴ 안내 결혼, 결혼하다.
**4** 1ㄱ 안내 악마.
ㄴ 교성 29:36~37.
ㄷ 사 14:12~15.
2ㄱ 모세 7:39; 아브 3:27. 안내 예임.
ㄴ 안내 예수 그리스도.
ㄷ 안내 하나님, 신회—아버지 하나님.
ㄹ 눅 22:42.
ㅁ 안내 영광.
3ㄱ 안내 천국 회의.
ㄴ 안내 선택의지.
ㄷ 교성 76:25~27.
4ㄱ 니후 2:18; 교성 10:25. 안내 속임, 속이다, 거짓; 거짓말 함.
5ㄱ 창 3:1; 모사 16:3; 엘 12:4.
6ㄱ 안내 이브.
7ㄱ 안내 에덴.

말라 하셨느냐. (그리고 그는 뱀의 입으로 말하였더라.)

8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9 네가 보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먹지도 말며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10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11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ㄱ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ㄴ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12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기에 아름다웠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ㄱ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ㄴ따먹고 또한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13 이에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려 자기들이 ㄱ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14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을 ㄱ거닐다가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주 하나님의 면전을 피하여 가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15 나 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디로 ㄱ가느냐?

16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당신의 음성을 듣고 내가 벗은 것을 알았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17 나 주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벗었다고 누가 네게 말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명하기를 먹지 말라, 만일 먹으면 반드시 ㄱ죽으리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18 남자가 이르되, 당신께서 내게 주사 나와 함께 하라 명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9 나 주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이 일이 무엇이냐? 이에 여자가 아뢰되, 뱀이 나를 ㄱ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20 나 주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ㄱ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겠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21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하고,

22 여자에게 나 주 하나님이 이르되, 나는 네게 슬픔과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ㄱ슬픔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고,

23 아담에게 나 주 하나님이 이르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11ㄱ 창 3:3~6; 모세 5:10.
ㄴ 엘 12:31.
12ㄱ 창 3:6.
ㄴ 안내 아담과 이브의 타락.
13ㄱ 창 2:25.
14ㄱ 창 3:8.
15ㄱ 창 3:9.
17ㄱ 모세 3:17.
19ㄱ 창 3:13; 모사 16:3.
20ㄱ 창 3:13~15.
22ㄱ 창 3:16.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겠고 너는 종신토록 슬픔 가운데 그 소산을 먹으리라.

24 또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땅이 네게 낼 것이요, 너는 밭의 채소를 먹으리라.

25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ㄱ땀이 흘러야 음식을 먹으리니—이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임이라—이는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요. 너는 ㄴ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니라.

26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일컬었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미가 됨이라. 나 주 하나님이 모든 여자 중 첫째를 이같이 일컬었으니, 이는 ㄱ많다 함이니라.

27 아담을 위하여 또한 그의 아내를 위하여 나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그들에게 ㄱ입히니라.

28 나 주 하나님이 나의 독생자에게 이르되, 보라, ㄱ사람이 선악을 ㄴ아는 일에 우리 가운데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내밀어 ㄷ생명나무 열매도 ㄹ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29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ㄱ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리라.

30 무릇 나 주 하나님이 살아 있는 것같이, 참으로 그와 같이 나의 ㄱ말은 헛되이 돌아올 수 없나니, 무릇 내 말이 내 입에서 나간즉 그 말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느니라.

31 이리하여 내가 그 사람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 동편에 ㄱ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32 (이것은 내가 나의 종 모세에게 한 말이니, 내가 뜻하는 바와 같이 참되도다. 그리고 내가 네게 이것을 말하였느니라. 삼가 너는 내가 네게 명하기까지, 믿는 자 외에는 아무 사람에게도 이것을 보이지 말지어다. 아멘.)

## 제 5 장

*(1830년 6월~10월)*

***아담과 이브가 자녀를 낳음—아담이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김—가인과 아벨이 태어남—가인이 거역하고 사탄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멸망이 됨—살인과 사악함이 퍼짐—복음은 태초부터 전파됨.***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나 주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낸 후에 아담은 나 주가 그에게 명한 대로 땅을 경작하고 들의 모든 짐승을 ㄱ다스리며, 이마에 땀을 흘려 자기의 음식을 먹기 시작하니라. 그리고 그의 아내 이브

25ㄱ 창 3:17~19. 안내 아담과 이브의 타락.
ㄴ 창 2:7; 모세 6:59; 아브 5:7.
26ㄱ 모세 1:34; 6:9.
27ㄱ 안내 단정.
28ㄱ 창 3:22. 안내 사람, 사람들—사람, 하늘 아버지처럼 될 잠재성.
ㄴ 안내 지식.
ㄷ 창 2:9; 니전 11:25; 모세 3:9. 안내 생명나무.
ㄹ 앨 42:4~5.
29ㄱ 안내 에덴.
30ㄱ 왕상 8:56; 교성 1:38.
31ㄱ 앨 42:3. 안내 그룹.
5 1ㄱ 모세 2:26.

도 또한 그와 함께 일하였더라.
2 그리고 아담이 그의 아내를 아니, 그 아내가 그에게 아들과 ㄱ딸들을 ㄴ낳아주었고 그들이 ㄷ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시작하니라.
3 그때로부터 아담의 아들들과 ㄱ딸들이 땅에서 둘씩 나뉘며 땅을 경작하며 양 떼를 치기 시작하였고 그들도 또한 아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4 그리고 아담과 그의 아내 이브가 주의 이름을 불렀고 그들은 ㄱ에덴 동산으로 향한 길에서 그들에게 말하는 주의 음성을 들었으나, 그를 뵙지는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주의 ㄴ면전에서 차단되었음이니라.
5 그리고 주가 그들에게 주 그들의 하나님을 ㄱ경배하고 그들의 양 떼의 ㄴ첫 새끼를 주께 제물로 바치라 명하니, 아담이 주의 계명에 ㄷ순종하더라.
6 여러 날 후에 주의 ㄱ천사가 아담에게 나타나 이르되, 어찌하여 너는 주께 ㄴ희생을 드리느냐? 한즉, 아담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것 외에는 알지 못하노라.
7 이에 천사가 말하여 이르되, 이 일은 ㄱ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ㄴ희생하실 ㄷ모형이니라.
8 그런즉 너는 네가 하는 모든 것을 아들의 ㄱ이름으로 행할지며, ㄴ회개하고 영원토록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ㄷ부를지니라 하니라.
9 그리고 그 날에 아버지와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는 ㄱ성신이 아담에게 내려와서 이르되, 나는 태초부터 또 이후로 그리고 영원히 아버지의 ㄴ독생자니라. 네가 ㄷ타락하였으므로 ㄹ구속될 수 있나니, 온 인류가, 곧 원하는 자마다 그러하리라 하니라.
10 그리고 그 날에 아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ㄱ충만하게 되어 땅의 모든 권속에 관하여 ㄴ예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는 내 범법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열렸고, 이 생에서 내가 ㄷ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다시 ㄹ육체로 내가 하나님을 뵈올 것임이니라.
11 이에 그의 아내 ㄱ이브가 이 모든 것을 듣고 기뻐하며 이르되, 우리의 범법이 아니었더면 우리가 결코

2ㄱ 교성 138:39.
ㄴ 창 5:4.
ㄷ 창 1:28; 모세 2:28.
3ㄱ 모세 5:28.
4ㄱ 안내 에덴.
ㄴ 앨 42:9.
5ㄱ 안내 예배.
ㄴ 출 13:12~13; 민 18:17; 모사 2:3. 안내 장자.
ㄷ 안내 순종, 순종하는, 순종하다.
6ㄱ 안내 천사.
ㄴ 안내 희생.
7ㄱ 모세 1:6, 32. 안내 은혜.
ㄴ 앨 34:10~15. 안내 피.
ㄷ 안내 예수 그리스도—그리스도의 예표 또는 상징들.
8ㄱ 니후 31:21.
ㄴ 모세 6:57. 안내 회개하다, 회개.
ㄷ 안내 기도.
9ㄱ 안내 성신.
ㄴ 안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ㄷ 안내 사망, 영적; 아담과 이브의 타락.
ㄹ 모사 27:24~26; 교성 93:38; 신개 1:3. 안내 구속의 계획; 구속하다, 구속받은, 구속.
10ㄱ 안내 거듭난, 하나님에게서 난.
ㄴ 교성 107:41~56. 안내 예언, 예언하다.
ㄷ 안내 기쁨.
ㄹ 욥 19:26; 니후 9:4.
11ㄱ 안내 이브.

ㄴ후손을 갖지 못하였을 것이요, 선과 악, 그리고 우리의 구속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영생을 결코 알지 못하였을 것이니라 하니라.

12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딸들에게 모든 것을 ㄱ알게 하니라.

13 이에 ㄱ사탄이 그들 가운데 와서 이르되, 나도 또한 하나님의 한 아들이라 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것을 믿지 말라 하니, 그들이 ㄴ믿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사탄을 더 ㄷ사랑하더라. 그때로부터 사람들은 ㄹ육신에 속하며 육욕적이며 악마와 같이 되었더라.

14 그리고 주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ㄱ성신으로써 사람들을 불러 마땅히 회개할 것을 명하였더라.

15 그리고 아들을 ㄱ믿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마다 ㄴ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ㄷ정죄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확고한 법령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아갔나니, 그런즉,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느니라.

16 아담과 그의 아내 이브가 하나님 부르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아담이 그의 아내 이브를 아니, 이브가 잉태하여 ㄱ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께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도다. 그런즉 그는 주의 말씀을 거부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보라, 가인은 듣지 아니하고 이르되, 주가 누구관대 내가 알아야 하리요 하더라.

17 그리고 이브가 다시 잉태하여 그의 동생 ㄱ아벨을 낳았고, 아벨은 주의 음성을 ㄴ듣더라.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나 가인은 농사짓는 자더라.

18 이에 가인은 사탄을 하나님보다 더 ㄱ사랑하더니, 사탄이 그에게 명하여 이르되, 주께 제물을 ㄴ바치라 하니라.

19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되었나니, 가인은 땅의 소산 가운데서 주께 제물을 가져 왔더라.

20 아벨 그도 또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져왔더니, 주가 아벨과 그의 ㄱ제물을 받았으나,

21 가인과 그의 ㄱ제물을 그가 받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사탄이 이를 알았고 그것은 그를 기쁘게 하였더라. 이에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22 주가 가인에게 이르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찜이냐? 네 안색이 변함은 어찜이냐?

23 만일 네가 잘하면 너는 ㄱ받아들여질 것이니라. 만일 네가 잘하지 아

11ㄴ 니후 2:22~23.
12ㄱ 신 4:9.
13ㄱ 안내 악마.
ㄴ 안내 믿지 않음.
ㄷ 모세 6:15.
ㄹ 안내 육신에 속한; 육에 속한 사람.
14ㄱ 요 14:16~18, 26.
15ㄱ 안내 믿음, 믿다.
ㄴ 안내 구원.
ㄷ 교성 42:60. 안내 정죄.
16ㄱ 창 4:1~2.
안내 가인.
17ㄱ 안내 아벨.
ㄴ 히 11:4.
18ㄱ 교성 10:20~21.
ㄴ 교성 132:8~11.
20ㄱ 안내 제물; 희생.
21ㄱ 창 4:3~7.
23ㄱ 창 4:7;
교성 52:15; 97:8.

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나니, 사탄이 너를 갖기 원하거니와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나는 너를 넘겨주리니, 그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네게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너는 그를 다스릴지니라.

24 이는 이때로부터 너는 그의 거짓의 아비가 될 것임이니, 너는 ㄱ멸망이라 불리우리라. 이는 너도 또한 세상이 있기 전에 있었음이니라.

25 그리고 장차 이르기를—이 ㄱ가증함은 가인에게서 왔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에게서 온 더 큰 권고를 거절하였음이라 하리니, 이것은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내릴 저주니라 하니라.

26 이에 가인이 분하여 하며 다시는 주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고 주 앞에서 거룩하게 걸어가는 자기 동생 아벨의 말도 듣지 아니하더라.

27 이에 아담과 그의 아내는 가인과 그의 형제들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애통하더라.

28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가인은 자기 형제들의 딸들 중 하나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들은 사탄을 하나님보다 더 ㄱ사랑하더라.

29 그리고 사탄이 가인에게 이르되, 네 목으로 내게 맹세하라. 그리고 만일 네가 이를 말하면 너는 죽으리라. 또 네 형제들로 하여금 이를 말하지 않겠다고 자기 머리와 살아 계신 하나님으로 맹세하게 하라. 이는 만일 그들이 이를 말하면, 그들이 반드시 죽을 것임이니라. 그리고 이는 네 아버지로 하여금 이를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면 오늘 내가 네 동생 아벨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였더라.

30 그리고 사탄은 가인의 명에 따라 행하기로 가인에게 맹세하니라. 이에 이 모든 일이 은밀히 행하여졌더라.

31 그리고 가인이 이르되, 진정 나는 이 큰 비밀의 지배자인 마한이로다. 이로써 내가 ㄱ살인하여 이익을 얻으리라 하니라. 그런즉 가인은 지배자 ㄴ마한이라 일컬어지고 그가 자신의 사악함을 자랑으로 여기더라.

32 그리고 가인이 들에 나가 자기 동생 아벨과 대화를 나누더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들에 있을 동안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를 쳐 죽이니라.

33 그리고 가인은 자기가 행한 일을 ㄱ자랑으로 여기며 이르되, 나는 자유롭도다. 정녕 내 아우의 양 떼가 내 손에 떨어지는도다 하니라.

34 이에 주가 가인에게 이르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아뢰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ㄱ지키는 자니이까?

35 이에 주가 이르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흙에

24ㄱ 안내 멸망의 자식들.
25ㄱ 힐 6:26~28.
28ㄱ 모세 5:13.
31ㄱ 안내 살인하다.
ㄴ 설명 "생각"과 "멸하는 자"와 "위대한 자"는 "마한"에 분명하게 담겨있는 근본적인 의미가 될 수 있음.
33ㄱ 안내 교만; 세상적인 것.
34ㄱ 창 4:9.

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36 그리고 이제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37 네가 땅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기운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세상에서 ㄱ도망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38 이에 가인이 주께 고하되, 내 아
우의 양 떼로 말미암아 사탄이 나를
ㄱ유혹하였고 나 또한 분하였으니, 이
는 당신께서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
나 내 것은 받지 아니하셨음이니이
다. 내 형벌이 너무 무거워 견딜 수
없나이다.
39 보소서. 당신께서 오늘날 주의
얼굴에서 나를 쫓아 내셨사온즉 내
가 주의 얼굴로부터 숨기운 바 되었
으니, 내가 세상에서 도망하며 유리
하는 자가 되겠나이다. 그리고 이렇
게 되리니,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리니, 이
는 이 일들이 주께 숨겨지지 못함이
니다.
40 이에 나 주가 그에게 이르되, 누
구든지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일곱
배나 받으리라 하고, 나 주가 가인에
게 ㄱ표를 주어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하게 하니라.
41 이리하여 가인은 주의 ㄱ면전에
서 차단되어 그의 아내와 그의 형제
중 많은 자들과 함께 에덴 동편 놋 땅
에 거하였더라.
42 그리고 가인이 그 아내를 아니,
그 아내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았고
그가 또한 많은 아들과 딸을 낳으니
라. 그가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 ㄱ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
더라.
43 또 에녹에게 이라드와 또 다른
아들과 딸들이 태어났고, 이라드는
므후야엘과 다른 아들과 딸들을 낳
았고, 므후야엘은 므드사엘과 다른
아들과 딸들을 낳았고 므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44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씰라더라.
45 그리고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
니, 그는 천막에 거하는 자들의 조상
이 되었고, 그들은 육축을 치는 자였
더라.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이 되었으며,
46 씰라는 또한 두발가인을 낳았
으니, 그는 놋과 쇠를 다루는 모든 장
인의 교사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
아마였더라.
47 라멕이 자기 아내들, 아다와 씰
라에게 이르되, 내 소리를 들으라. 라
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
의 상처로 내가 한 사람을 죽였고 나

37ㄱ 창 4:11~12.
38ㄱ 안내 탐욕; 유혹하다, 유혹.
40ㄱ 창 4:15.
41ㄱ 모세 6:49.
42ㄱ 설명 가인의 혈통에 에녹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의 백성 가운데 그 이름으로 일컬어진 도시가 있었음. 이것을 의로운 셋의 혈통인 에녹과 "에녹의 도시"라 일컬어진 그의 도시, 시온과 혼동하지 말 것.

의 상함으로 한 청년을 죽였도다.

48 만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일곱 배일진대, 진실로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ㄱ일흔일곱 배이리로다 하였더라.

49 이는 라멕이 가인의 방식을 좇아 사탄과 ㄱ서약을 맺어, 이로써 그가 사탄이 가인에게 베푼 저 큰 비밀의 지배자인 지배자 마한이 되었음이라. 그리고 에녹의 아들 이라드가 그들의 비밀을 알게 되어 아담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드러내기 시작하니라.

50 그런즉, 라멕이 노하여 그를 죽였으니, 재물을 얻기 위하여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과는 달리 그는 맹세로 인하여 그를 죽였더라.

51 이는 가인의 시대부터 ㄱ비밀 결사가 있었고, 그들의 행위는 어둠 속에 있었으며 그들은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알았음이라.

52 그런즉 주가 라멕과 그의 집과, 사탄과 언약을 맺은 모든 자를 저주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며, 이 일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니, 주는 그들에게 성역을 베풀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행위는 가증하였으며, 모든 사람의 ㄱ아들들 가운데 퍼지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그 일이 사람의 아들들 가운데 있더라.

53 그리고 사람의 딸들 가운데는 이 일들이 이야기 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그 비밀을 말하매 그들이 그를 거역하여 이 일들을 널리 선포하였고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54 그런즉 라멕이 멸시당하며 내어 쫓겨났고 이에 그가 죽을까 두려워하여 사람의 아들들 가운데에 오지 아니하였더라.

55 이같이 하여 ㄱ어둠의 일이 모든 사람의 아들들 가운데 퍼지기 시작하니라.

56 그리고 하나님이 혹심한 저주로 땅을 저주하였고, 악인들 곧 그가 만드신 모든 사람의 아들들에게 진노하셨더라.

57 이는 그들이 그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ㄱ독생자 곧 절정의 시기에 오리라 그가 선언하였고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예비된 그를 믿으려 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58 그리고 이같이 ㄱ복음은 태초부터 전파되기 시작하였나니, 하나님의 면전에서 보내심을 받은 거룩한 ㄴ천사들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신의 ㄷ은사로 말미암아 선포되었느니라.

59 그리고 이같이 모든 일들이 아담에게 거룩한 의식으로써 확인되었

48ㄱ 창 4:24. 설명 사탄이 가인을 위하여 행한 것보다 그를 위하여 더 행할 것으로 라멕은 뽐내었음. 그가 그렇게 단정한 이유는 49와 50절에 있음.
49ㄱ 안내 맹세.
51ㄱ 안내 비밀 결사.
52ㄱ 모세 8:14~15.
55ㄱ 안내 어둠, 영적; 악한, 악함.
57ㄱ 안내 예수 그리스도.
58ㄱ 안내 복음.
ㄴ 엘 12:28~30; 모로 7:25, 29~31. 안내 천사.
ㄷ 안내 은사, 성신의.

고, 복음은 전파되었으며, 복음은 세상 끝날까지 세상에 있으리라고 선포되었느니라. 과연 그러하였느니라. 아멘.

## 제 6 장

*(1830년 11월~12월)*

*아담의 후손이 기억의 책을 기록함—그의 의로운 후손이 회개를 전파함—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자신을 나타내심—에녹이 복음을 전파함—구원의 계획이 아담에게 계시되었음—그는 침례와 신권을 받았음.*

**그리고 ㄱ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자기 아들들에게 회개하기를 호소하였더라.**

**2 아담이 다시 그 아내를 아니, 아내가 아들을 낳으매, 그 이름을 ㄱ셋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더라.**

**3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셋에게 나타내니, 그가 거역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자기 형 아벨처럼 받을 만한 ㄱ희생을 제물로 바치더라. 또한 그에게도 아들이 태어났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노스라 하였더라.**

**4 그리고 그때에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ㄱ부르기 시작하였고, 주는 그들에게 복을 내렸더라.**

**5 그리고 ㄱ기억의 책이 기록되었으니, 아담의 언어로 기록되었더라. 이는 ㄴ영감의 영으로써 기록하고자 하나님을 부르는 자 모두에게 주어졌음이니라.**

**6 그들에 의하여 그 자녀들은 읽고 쓰기를 가르침 받았으며 청결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한 언어를 가졌더라.**

**7 이제 태초에 있던 것과 같은 이 ㄱ신권이 또한 세상의 끝날에도 있으리라.**

**8 이제 아담이 ㄱ성신으로 감동되어 이 예언을 말하였고, 하나님의 ㄴ자녀의 ㄷ족보가 기록되었으니, 이것이 아담의 ㄹ계보의 책이라 이르기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지으시되,**

**9 자기 자신의 몸의 ㄱ형상대로 ㄴ그들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어 하나님의 ㄷ발등상 위의 땅에서 ㄹ생령이 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ㅁ이름을 아담이라 일컬으셨더라 하였더라.**

**10 ㄱ아담이 일백삼십 년을 살고 자**

6 1ㄱ 안내 아담.
2ㄱ 창 4:25.
안내 셋.
3ㄱ 안내 희생.
4ㄱ 창 4:26.
안내 기도.
5ㄱ 아브 1:28, 31.
안내 기억의 책.
ㄴ 안내 영감, 영감을 주다.
7ㄱ 안내 신권.
8ㄱ 벧후 1:21.
ㄴ 안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ㄷ 안내 계보.
ㄹ 창 5:1.
9ㄱ 창 1:26~28; 모세 2:26~29; 아브 4:26~31.
ㄴ 안내 사람, 사람들.
ㄷ 아브 2:7.
ㄹ 안내 영혼.
ㅁ 모세 1:34; 4:26.
10ㄱ 교성 107:41~56.

기 모양 곧 자기 ㄴ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11 아담이 셋을 낳은 후 팔백 년을 지내며 많은 아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12 아담이 구백삼십 세까지 향수하고 죽었더라.

13 셋은 일백오 년을 살고 이노스를 낳았으며, 그의 온 생애 동안 예언하며 하나님의 길로 자기 아들 이노스를 가르치니, 그런즉 이노스도 또한 예언하더라.

14 그리고 셋은 이노스를 낳은 후 팔백칠 년을 지내며 많은 아들과 딸을 낳았더라.

15 사람의 자녀들이 온 지면에 아주 많았더라. 그 시대에 사탄이 사람들 가운데 영역을 크게 ㄱ확장하였고 그들 마음 속에 맹위를 떨치매, 그때로부터 전쟁과 피흘림이 있게 되었고, ㄴ은밀한 일로 인하여 사람의 손이 자기 자신의 형제를 대적하여 죽이며 권력을 구하였더라.

16 셋은 구백십이 세까지 향수하고 죽었더라.

17 이노스는 구십 년을 살고 게난을 낳았더라. 그리고 이노스와 하나님의 백성의 나머지는 슐론이라 하는 땅에서 나와 그가 ㄱ게난이라 이름 지은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일컬은 약속의 땅에서 살았더라.

18 이노스가 게난을 낳은 후 팔백십오 년을 지내며 많은 아들과 딸을 낳았으며, 구백오 세까지 향수하고 죽었더라.

19 게난은 칠십 년을 살고 마할랄렐을 낳았으며, 마할랄렐을 낳은 후 팔백사십 년을 지내며 아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구백십 세까지 향수하고 죽었더라.

20 마할랄렐은 육십오 년을 살았고 야렛을 낳았으며,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은 후, 팔백삼십 년을 지내며, 아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그리고 마할랄렐은 팔백구십오 세까지 향수하고 죽었더라.

21 그리고 야렛은 일백육십이 년을 살고 ㄱ에녹을 낳았으며, 에녹을 낳은 후 팔백 년을 지내며 아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야렛은 하나님의 모든 길로 에녹을 가르쳤더라.

22 이것이 아담의 아들들의 계보니, 아담은 하나님의 ㄱ아들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와 대화하셨더라.

23 그리고 그들은 의의 ㄱ설교자들이었으니, 말씀하며 ㄴ예언하며, 도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ㄷ회개하기를 외쳤고 또 사람의 자녀들에게 ㄹ신앙을 가르쳤더라.

24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야렛이 구백육십이 세까지 향수하고 죽었더라.

25 에녹은 육십오 년을 살고 ㄱ므두

10ㄴ 창 5:3; 교성 107:42~43; 138:40.
15ㄱ 모세 5:13.
ㄴ 안내 비밀 결사.
17ㄱ 창 5:10~14; 교성 107:45, 53.
21ㄱ 창 5:18~24; 모세 7:69; 8:1~2. 안내 에녹.
22ㄱ 눅 3:38.
23ㄱ 안내 선지자.
ㄴ 안내 예언, 예언하다.
ㄷ 안내 회개하다, 회개.
ㄹ 안내 신앙.
25ㄱ 안내 므두셀라.

셀라를 낳았더라.

26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에녹이 땅에서 백성 가운데를 여행하더니, 그가 여행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27 또 그가 하늘에서 나는 한 소리를 들었으니, 이르기를, 내 아들 에녹아, 이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회개하라. 이는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이 백성들에게 ㄱ노하였나니, 나의 극렬한 진노가 그들에게 불붙는도다. 대저 그들의 마음은 완악하여졌고 그들의 ㄴ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의 눈은 먼 곳을 ㄷ볼 수 없으며,

28 내가 그들을 창조한 날로부터 이 많은 세대 동안 그들은 ㄱ그릇 갔었고 나를 부인하였으며, 어둠 속에서 그들 자신의 지혜를 구하였으며, 그들 자신의 가증함으로 살인을 생각해 냈으며, 내가 그들의 아비 아담에게 준 여러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29 그런즉 그들은 스스로 거짓 ㄱ맹세를 하였으며, 자기들의 맹세로 인하여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그들을 위하여 ㄴ지옥을 예비하여 두었느니라.

30 그리고 이것은 세상이 시작될 때에 곧 그 기초가 놓이던 때부터 내 입에서 내가 내보낸 법령이요, 네 조상들 곧 나의 종들의 입으로 내가 이를 포고하였나니, 참으로 그대로 세상 중에 나아가 그 끝까지 나아갈 것이라 하셨다 하라.

31 에녹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주 앞에서 그가 땅에 엎드려 주 앞에 고하여 아뢰되, 내가 당신의 목전에 은혜를 입음이 어찜이니이까. 나는 젊은이일 따름이니이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나를 미워하오니, 이는 내가 말이 ㄱ더딘 자임이니이다, 그런즉 어찌 내가 당신의 종이오니까?

32 이에 주가 에녹에게 이르되, 나아가라.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대로 행하라. 아무도 너를 찌르지 못하리라. 네 ㄱ입을 열라. 그리하면 채워지리니, 내가 너로 말하게 해 주리라. 이는 모든 육체가 내 손 안에 있음이요, 내 소견에 좋을 대로 내가 행할 것임이니라.

33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를 지으신 주 하나님을 섬길 것을 너희는 오늘 ㄱ택하라 하라.

34 보라 나의 영이 네 위에 있나니, 그런즉 네 모든 말을 내가 옳다 하리라. 또 ㄱ산들이 네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ㄴ강들이 그 진로를 바꾸리라. 그리고 너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 안에 있으리니, 그러므로

27ㄱ 교성 63:32.
ㄴ 마 13:15; 니후 9:31; 모사 26:28; 교성 1:2, 11, 14.
ㄷ 앨 10:25; 14:6.
28ㄱ 안내 거역.
29ㄱ 안내 맹세.
ㄴ 안내 지옥.
31ㄱ 출 4:10~16; 렘 1:6~9.
32ㄱ 교성 24:5~6; 60:2.
33ㄱ 안내 선택의지.
34ㄱ 마 17:20.
ㄴ 모세 7:13.

나와 ㄷ동행하라.

35 그리고 주가 에녹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되, 진흙을 네 눈에 바르고 씻으라. 그리하면 너는 보게 되리라 하니, 그가 그렇게 하니라.

36 그는 하나님이 창조한 ㄱ영들을 보았고 또 그는 ㄴ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또한 보았더라. 또 그때로부터 한 ㄷ선견자를 주께서 이 백성에게 일으키셨다 하는 말이 그 땅에 널리 퍼졌더라.

37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에녹이 그 땅에서 백성 가운데 나아가 작은 산과 높은 곳에 서서 큰소리로 외치며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증언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ㄱ화를 내었더라.

38 그들이 높은 곳에서 그의 말을 들으려고 나아와, 천막 지키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선견자를 보려고 저리로 나아가는 동안 너희는 이 곳에 머물러 천막을 지키라. 이는 그가 예언함이라. 이 땅에 이상한 일이 있나니, 한 야인이 우리 가운데 왔도다.

39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의 말을 들을 때에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그의 말을 듣는 자 모두에게 두려움이 임하였음이라. 이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이더라.

40 이에 사람 하나가 그에게 나아오니, 그의 이름은 마히야라,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누구시오며, 어디에서 오셨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소서.

41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내 조상의 땅, 오늘에 이르기까지 의의 땅인 게난 땅에서 나왔느니라. 그리고 나의 부친께서 하나님의 모든 길로 나를 가르치셨느니라.

4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게난 땅에서 출발하여 동쪽 바다 가까이를 지나고 있을 때에 한 시현을 보았는데, 보라, 하늘들을 내가 보았고, 주께서 나와 말씀하시고 내게 계명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 까닭에 계명을 지키려고 내가 이 말을 전하노라.

43 에녹이 자기 말을 이어서 이르되, 나와 말씀하신 주는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시니,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너희 하나님이시며, 너희는 나의 형제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스스로의 ㄱ지혜에 의지하며, 하늘의 하나님을 부인하느냐?

44 하늘들을 그가 만드셨고 ㄱ땅은 그의 ㄴ발등상이요, 그 기초도 그의 것이니라. 보라, 그가 기초를 놓으셨고 수많은 사람의 무리를 그가 그 지면에 데려오셨느니라.

45 그리고 사망이 우리 조상들에게 임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아나니, 부인할 수 없으며, 참으로 모든 자 중의 첫 사람을

34ㄷ 창 5:24; 모세 7:69. 안내 걷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36ㄱ 안내 영적 창조.
ㄴ 모세 1:11.
ㄷ 안내 선견자.
37ㄱ 니전 16:1~3.
43ㄱ 잠 1:24~33; 교성 56:14~15.
44ㄱ 신 10:14.
ㄴ 아브 2:7.

우리가 아나니, 곧 아담이니라.

46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주신 본을 따라 우리가 ㄱ기억의 책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여 왔음이니, 그것은 우리 자신의 언어로 되어 있느니라.

47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백성들이 떨며 그의 면전에 서 있을 수 없더라.

48 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담이 ㄱ타락하였으므로 우리가 있고, 그의 타락으로 인하여 ㄴ사망이 왔으며, 우리는 비참과 애통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느니라.

49 보라, 사탄이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와서 그들에게 자기를 경배하도록 ㄱ유혹하였으니, 이에 사람이 ㄴ육신에 속하며 ㄷ육욕적이며 악마와 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ㄹ차단되었느니라.

50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모든 사람은 반드시 회개해야 함을 알게 하셨느니라.

51 그리고 그가 우리 조상 아담을 자기 음성으로 친히 불러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세상을 만들었고 ㄱ사람이 육으로 있기 ㄴ전에 그들을 지었느니라 하시고,

52 그가 또한 그에게 이르시되, 만일 네가 내게로 돌이켜 내 음성을 듣고 믿으며, 네 모든 범법을 회개하고 ㄱ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나의 독생자의 이름 곧 이로써 ㄴ구원이 사람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 하늘 아래 유일한 ㄷ이름인 ㄹ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으로 물로 ㅁ침례를 받으면, 너는 성신의 은사를 받게 되리니, 그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네게 주어지리라.

53 이에 우리 조상 아담이 주께 고하여 아뢰되, 어찌하여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고 물로 침례를 받아야 하나이까? 이에 주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보라, 나는 에덴 동산에서의 네 범법을 ㄱ용서하였느니라 하시니라.

54 그리하여 ㄱ하나님의 아들이 원죄를 ㄴ속죄하였고, 이로써 부모의 죄가 ㄷ자녀의 머리에 응답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창세로부터 온전함이니라 하는 말이 백성 가운데 널리 퍼졌더라.

55 또 주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자녀가 죄 가운데서 잉태되는 만큼, 그들이 장성하기 시작할 때에 ㄱ죄가 그들 마음에 잉태되어 ㄴ쓴 것을 맛보게 되나니, 그리하여

46ㄱ 안내 기억의 책.
48ㄱ 니후 2:25. 안내 아담과 이브의 타락.
ㄴ 안내 사망, 육체의.
49ㄱ 모세 1:12. 안내 유혹하다, 유혹.
ㄴ 모사 16:3~4; 모세 5:13. 안내 육신에 속한.
ㄷ 안내 육욕적인, 육욕적임.
ㄹ 안내 사망, 영적.
51ㄱ 안내 사람, 사람들—하늘 아버지의 영의 자녀.
ㄴ 안내 영적 창조.
52ㄱ 안내 은혜.
ㄴ 안내 구원.
ㄷ 행 4:12; 니후 31:21.
ㄹ 안내 예수 그리스도.
ㅁ 3니 11:23~26. 안내 침례, 침례를 베풀다.
53ㄱ 안내 용서.
54ㄱ 안내 예수 그리스도.
ㄴ 안내 속죄하다, 속죄.
ㄷ 모사 3:16.
55ㄱ 안내 죄.
ㄴ 교성 29:39. 안내 역경.

그들이 선을 소중히 여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56 그리고 그들에게 선악을 분별하도록 허락되나니, 그런즉 그들은 스스로 ㄱ선택의지를 행사하는 자라. 이에 나는 너희에게 다른 율법과 계명을 주었느니라.

57 그런즉 모든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ㄱ회개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왕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음을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는 ㄴ부정한 것이 그 곳에 거할 수 없음이니, 곧 그의 면전에 ㄷ거할 수 없음이니라. 이는 곧, 아담의 언어로 말하건대, ㄹ거룩한 사람이 그의 이름이요, 그의 독생자의 이름은 ㅁ인자, 곧 절정의 시기에 올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ㅂ재판관이니라.

58 그러므로 내가 네게 계명을 주노니, 네 ㄱ자녀들에게 자유롭게 이 일을 가르치라. 이르되,

59 범법의 이유로 인하여 타락이 오고, 타락은 사망을 가져오나니, 물과 피와 내가 만든 ㄱ영으로써 너희가 세상에 태어나, 그리하여 ㄴ흙에서 생령이 된 만큼, 참으로 그와 같이 너희는 반드시 ㄷ물과 성령으로 하늘의 왕국에 다시 ㄹ태어나 피 곧 나의 독생자의 피로써 깨끗하게 되어야 하나니, 그리하여 너희가 모든 죄에서 성결하게 되어 이 세상에서는 영생의 ㅁ말씀을,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 곧 불멸의 ㅂ영광을 ㅅ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60 이는 ㄱ물로써 너희가 계명을 지키고 성령으로써 너희가 ㄴ의롭다 함을 얻고 ㄷ피로써 너희가 ㄹ성결하게 됨이니라.

61 그러므로 그것들이 너희 안에 거하도록 주어지나니, 곧 하늘의 증거, ㄱ보혜사, 불멸의 영광의 평화로운 것들, 만물에 대한 진리, 만물에게 생명을 주어 만물을 살리게 하는 것, 만물을 알고 지혜, 자비, 진리, 정의, 심판에 따라 모든 권능을 지니는 것이니라.

62 이제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것이 절정의 시기에 올 나의 ㄱ독생자의 피를 통하여 만민에게 주는 ㄴ구원의 계획이니라.

63 그리고 보라, 만물은 그 닮은 것

56ㄱ 니후 2:26~27; 힐 14:29~30. 안내 선택의지.
57ㄱ 고전 6:9~10. 안내 회개하다, 회개.
ㄴ 니전 10:21. 안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ㄷ 시 24:3~4; 니전 15:33~36; 몰 7:7; 교성 76:50~62.
ㄹ 모세 7:35. 안내 거룩한 사람.
ㅁ 안내 인자.
ㅂ 안내 예수 그리스도—심판자; 공의.
58ㄱ 안내 아이, 아이들.
59ㄱ 요1 5:8.
ㄴ 창 2:7; 모세 4:25; 아브 5:7.
ㄷ 안내 침례, 침례를 주다.
ㄹ 안내 거듭난, 하나님에게서 난.
ㅁ 요 6:68.
ㅂ 안내 해의 영광.
ㅅ 니후 4:15~16; 엘 32:28.
60ㄱ 모로 8:25.
ㄴ 안내 의롭게 됨, 의롭게 되다.
ㄷ 안내 피.
ㄹ 안내 성결하게 됨.
61ㄱ 안내 성신.
62ㄱ 안내 독생자.
ㄴ 안내 구속의 계획.

이 있고 만물은 나를 ㄱ증거하기 위하여 창조되고 지음을 받았나니, 현세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거나,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 위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를 증거하느니라.

64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말씀을 하시고 나자, 아담이 주께 부르짖었고 그는 주의 ㄱ영에게 붙들리어 물 속으로 이끌려 내려가 ㄴ물 속에 눕히었다가 물 밖으로 이끌려 나왔더라.

65 이같이 그가 침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왔으니, 이같이 그는 영으로 ㄱ태어났고 ㄴ속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더라.

66 그리고 그는 하늘에서 나는 한 소리를 들었으니, 이르시기를, 너는 불과 성신으로 ㄱ침례를 받았느니라. 이것은 이제로부터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의 ㄴ증거니라.

67 그리고 너는 시작하는 날이나 끝나는 해도 없이 모든 영원에서 모든 영원에 이르기까지 존재한 자의 ㄱ반차를 좇는 자니라.

68 보라, 너는 내 안에서 ㄱ하나이니, 곧 하나님의 한 아들이니라. 이같이 모든 자는 나의 ㄴ아들이 될 수 있느니라. 아멘.

## 제 7 장

*(1830년 12월)*

*에녹이 가르치고 백성을 인도하며 산들을 움직임—시온 성이 세워짐—에녹이 인자의 오심과 그의 속죄하시는 희생과 성도들의 부활을 미리 봄—그는 회복, 집합, 재림 및 시온의 돌아옴을 미리 봄.*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에녹이 자기의 말을 이어 이르되, 보라, 우리 조상 아담이 이 일들을 가르쳤고 많은 자가 믿어 ㄱ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며, 또 많은 자가 믿지 아니하여 자기들의 죄 가운데 멸망하였으며, 고통 가운데에 ㄴ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불 같은 분노가 그들에게 쏟아질 것을 바라보고 있느니라 하였더라.

2 또 그때로부터 에녹이 예언하기 시작하여 백성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행할 때에 마후야라 하는 곳에 서서 주께 부르짖었더니, 하늘에서 한 소리가 나서 이르되—너는 돌이켜 시므온 산에 오르라 하더라.

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돌이켜 그 산에 올라갔고, 내가 그 산 위에 섰을 때 하늘들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또 내가 ㄱ영광으로 옷 입었

63ㄱ 앨 30:44; 교성 88:45~47.
64ㄱ 안내 성신.
ㄴ 안내 침례, 침례를 주다.
65ㄱ 안내 거듭난, 하나님에게서 난.
ㄴ 모사 27:25; 앨 5:12~15.
66ㄱ 교성 19:31. 안내 은사, 성신의.
ㄴ 니후 31:17~18; 3니 28:11.
67ㄱ 안내 멜기세덱 신권.
68ㄱ 요1 3:1~3; 교성 35:2.
ㄴ 요 1:12; 교성 34:3. 안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7 1ㄱ 안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ㄴ 앨 40:11~14.
3ㄱ 안내 변형.

더라.

4 그리고 내가 주를 보았는데 그가
내 앞에 서 계셨으며, 마치 사람이
ㄱ얼굴을 마주하여 서로 대화하듯 나
와 말씀하셨고, 그가 내게 이르시되,
ㄴ보라, 내가 많은 세대 동안의 세상
을 네게 보여 주리라 하시더라.

5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숨 골짜기에서, 보라, 천막에 거하는
큰 백성을 보았는데, 이는 숨 백성이
더라.

6 그리고 주께서 다시 내게 이르시
되, 보라 하시기로 내가 북쪽을 바라
보았는데 내가 본 즉, 천막에 거하는
가나안 백성이 있더라.

7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언
하라 하시기로 내가 예언하여 이르
되, 보라, 수많은 가나안 백성이 숨
백성을 대적하여 전투 대열을 갖추
고 나아갈 것이요, 그들을 도륙하리
니, 그들은 온전히 멸망당할 것이요,
가나안 백성은 그 땅에서 스스로 나
뉠 것이요, 땅은 척박하여 열매를 맺
지 아니할 것이요, 가나안 백성 외에
는 다른 아무 백성도 거기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8 보라, 이는 주께서 뜨거운 열로
그 땅을 저주하실 것이요, 그 척박함
이 영원히 계속될 것임이라. 이에
ㄱ검은 빛깔이 가나안의 모든 자녀에
게 임하매, 그들이 모든 백성 가운데
서 멸시를 당하더라.

9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하시기로 내가
보고, 내가 사론의 땅과 에녹의 땅과
옴너의 땅과 헤니의 땅과 셈의 땅과
하너의 땅과 하나니하의 땅과 거기
에 사는 모든 주민을 보았더라.

10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
성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ㄱ회
개하라 할지니, 회개하지 아니하면 두
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들을 쳐
서 그들이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11 또 그는 나에게 아버지와, ㄱ은
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들과, 아버
지와 아들을 증거하시는 ㄴ성신의 이
름으로 ㄷ침례를 베풀라는 명령을 주
시더라.

1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에녹
이 가나안 백성 외의 모든 백성에게
회개할 것을 계속하여 부르짖으니라.

13 그리고 에녹의 ㄱ신앙이 심히 크
므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
더니, 그들의 원수가 그들을 대적하
여 싸우러 오매, 그가 주의 말씀을 말
한즉, 그의 명령에 따라 땅이 진동하
고 ㄴ산들이 도망하며, ㄷ강물이 그 진
로에서 돌이키며, 사자의 부르짖음
이 광야에서 들리며, 모든 민족이 심
히 두려워하였나니, 그같이 에녹의
말은 ㄹ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에
게 준 언어의 힘은 그처럼 컸더라.

4ㄱ 창 32:30; 신 5:4; 모세 1:2, 11, 31.
ㄴ 모세 1:4.
8ㄱ 니후 26:33.
10ㄱ 모세 6:57.
안내 회개하다, 회개.
11ㄱ 안내 은혜.
ㄴ 안내 성신.
ㄷ 안내 침례, 침례를 주다.
13ㄱ 안내 신앙.
ㄴ 마 17:20.
ㄷ 모세 6:34.
ㄹ 안내 권능; 신권.

14 또한 바다의 깊음에서 한 땅이
올라왔고 하나님 백성의 원수들의
두려움이 심히 컸던지라, 그들이 도
망하여 멀리 섰다가 바다의 깊음에
서 올라온 땅 위로 갔더라.
15 그리고 그 땅의 ㄱ거인들도 또한
멀리 섰더니, 하나님을 거스려 싸우
던 모든 백성에게 저주가 임하매,
16 그때로부터 그들 가운데 전쟁
과 피 흘림이 있더라. 그러나 주가 와
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니, 그들이
의롭게 거하더라.
17 주의 ㄱ두려움이 모든 민족 위에
있었나니, 그의 백성에게 임한 주의
영광이 그처럼 컸더라. 그리고 주가
그 땅을 ㄴ축복하니, 그들이 산 위에
서 그리고 높은 곳에서 축복을 받고
번영하더라.
18 그리고 그들이 ㄱ한 마음 한 뜻
이 되어 의롭게 거하며,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으므로 주가 그의
백성을 ㄴ시온이라 불렀더라.
19 에녹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의
롭게 설교하기를 계속하더라. 그리
고 그의 시대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
가 거룩한 성, 곧 시온이라 일컬어지
는 한 성읍을 건설하였더라.
20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에녹
이 주와 말씀하였고 주께 아뢰되, 정
녕 ㄱ시온은 영원토록 안전히 거하리
이다 하였더라. 그러나 주가 에녹에
게 이르되, 시온은 내가 축복하였으
나, 나머지 백성은 내가 저주하였느
니라 하였더라.
21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
서 에녹에게 땅의 모든 주민을 보이
시매, 그가 본즉, 보라, 시온은 때가
지남에 하늘로 ㄱ들리워 가더라. 그리
고 주가 에녹에게 이르되, 나의 영원
한 거처를 보라 하였더라
22 그리고 에녹이 아담의 아들들
인 나머지 백성을 또한 보았는데, 가
인의 후손을 제외한 아담의 모든 후
손이 섞여 있더라. 이는 가인의 후손
이 ㄱ검었으므로 그들 가운데 있을 자
리가 없음이더라.
23 그리고 시온이 ㄱ하늘로 들리워
간 다음에 에녹이 ㄴ보니, 보라, 땅의
ㄷ모든 민족이 그의 앞에 있더라.
24 그리고 여러 세대가 이어서 지
나가더니, 에녹이 참으로 아버지와
인자의 품속에 높이 ㄱ들리웠고, 보
라, 사탄의 권세는 온 지면에 있더라.
25 또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
사들을 보았고, 또 그가 큰 소리를 들
었으니, 이르되, 화 있도다. 땅의 주
민에게 화, 화가 있도다 하더라.
26 또 그가 사탄을 보니, 그가 그의
손에 큰 ㄱ사슬을 가졌는데 그것이 온
지면을 ㄴ암흑으로 가렸고, 그가 쳐다

15ㄱ 창 6:4; 모세 8:18.
17ㄱ 출 23:27.
ㄴ 대상 28:7~8; 니전 17:35.
18ㄱ 행 4:32; 빌 2:1~4.
안내 단합.
ㄴ 안내 시온.
20ㄱ 모세 7:62~63.
안내 새 예루살렘.
21ㄱ 모세 7:69.
22ㄱ 니후 26:33.
23ㄱ 안내 하늘.
ㄴ 안내 시현.
ㄷ 교성 88:47; 모세 1:27~29.
24ㄱ 고후 12:1~4.
26ㄱ 엘 12:10~11.
ㄴ 사 60:1~2.

보고 웃으니, 그의 ㄷ사자들이 기뻐하더라.

27 또 에녹이 본즉, ㄱ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하여 ㄴ증거하더라. 그리고 성신이 많은 자에게 내려오매, 그들이 하늘의 권능에 의하여 시온으로 붙들려 올라가더라.

28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하늘의 하나님이 나머지 백성을 보시고 울었더라. 그리고 에녹이 그것에 대하여 증언하였으니, 이르되, 어찌하여 하늘들이 울며 산 위에 내리는 비 같이 눈물을 흘리는고?

29 또 에녹이 주께 아뢰되, 당신은 거룩하시며 모든 영원에서 모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온대 어찌 ㄱ우실 수 있나이까?

30 또 사람이 땅의 티끌 참으로 이 땅과 같은 수백만의 ㄱ땅을 셀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당신의 ㄴ창조의 수의 시작도 되지 못하리이다. 그리고 당신의 막은 여전히 펼쳐져 있고 아직도 당신은 그 곳에 계시오며, 당신의 품도 거기 있사옵고, 또한 당신은 공의로우시며, 당신은 영원토록 자비롭고, 친절하시나이다.

31 또 당신께서는 시온을 모든 영원에서 모든 영원까지 당신의 모든 창조물에서 당신의 품으로 데려 가셨사오며 오직 ㄱ평강과 ㄴ공의와 ㄷ진리만이 당신 보좌의 처소이며, 자비는 당신을 앞서 나아가며, 끝이 없거늘 어찌 당신께서 우실 수 있나이까?

32 주가 에녹에게 이르되, 이 네 형제들을 보라, 그들은 내 ㄱ손으로 지은 것이니, 내가 그들을 창조하던 날에 그들에게 그들의 ㄴ지식을 주었고, 에덴동산에서 내가 사람에게 그의 ㄷ선택의지를 주었느니라.

33 그리고 네 형제들에게 내가 말하고 계명도 또한 주기를, 서로 ㄱ사랑하라 하고, 너희의 아버지인 나를 택하라 하였으나, 보라, 그들은 애정이 없으며 그들 자신의 혈육을 미워하느니라.

34 이에 나의 분노의 ㄱ불이 그들을 향하여 불붙었나니, 나의 격렬한 노여움으로 내가 ㄴ홍수를 들여 보내어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라. 이는 나의 극렬한 진노가 그들을 향하여 불붙음이니라.

35 보라, 나는 하나님이라, ㄱ거룩한 사람이 나의 이름이요, 모사가 나의 이름이요, 무궁과 영원이 또한 나의 ㄴ이름이니라.

36 그런즉 나는 내 손을 펴서 내가 지은 모든 창조물을 안을 수 있고, 내

26 ㄷ 유 1:6; 교성 29:36~37.
27 ㄱ 안내 천사.
ㄴ 안내 간증.
29 ㄱ 사 63:7~10.
30 ㄱ 교성 76:24; 모세 1:33.
ㄴ 안내 창조하다, 창조.
31 ㄱ 안내 평화.
ㄴ 안내 공의.
ㄷ 안내 진리.
32 ㄱ 모세 1:4.
ㄴ 안내 지식.
ㄷ 안내 선택의지.
33 ㄱ 안내 사랑.
34 ㄱ 사 30:27; 나 1:6; 교성 35:14.
ㄴ 창 7:4, 10; 모세 8:17, 24. 안내 홍수, 노아 시대의.
35 ㄱ 모세 6:57.
ㄴ 모세 1:3.

ㄱ눈은 또한 그들을 꿰뚫을 수 있거니와, 내 손으로 지은 모든 것 가운데 네 형제들 가운데 있는 것 같은 큰 ㄴ사악함은 일찍이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37 그러나 보라, 그들의 죄는 그들의 조상들의 머리 위에 있으리라. 사탄이 그들의 아비가 될 것이요, 비참이 그들의 운명이 될 것이요, 온 하늘들이 그들 곧 내 손으로 지은 모든 것으로 인하여 울리라. 그런즉 이들이 고통을 겪을 것을 보면서 하늘들이 어찌 울지 아니하리요?

38 그러나 보라, 네 눈이 바라보는 이들은 홍수로 멸망하리라. 또 보라, 내가 그들을 가두어 두리니, 한 ㄱ옥을 내가 그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었느니라.

39 그리고 내가 택한 ㄱ자가 내 앞에서 탄원하였느니라. 그런즉 그가 그들의 죄로 인해 고통을 겪으리니, 내가 ㄴ택한 자가 내게로 돌아올 그 날에 그들이 회개하는 만큼 그러하며 그 날까지 그들은 ㄷ고통 중에 있으리라.

40 그런즉 이로 말미암아 하늘들뿐 아니라 나의 손으로 지은 모든 것들이 울리라.

41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주가 에녹에게 말하고, 사람의 자녀들의 모든 행실을 에녹에게 고하였더라.

그리하여 에녹이 알고 그들의 사악함과 그들의 비참함을 보고 울며 자기의 양팔을 펴니, 그의 ㄱ마음은 영원과도 같이 넓게 부풀었으며, 그의 애가 타는 듯하였으며, 모든 영원이 흔들리더라.

42 그리고 에녹은 또한 ㄱ노아와 그의 ㄴ가족을 보았으며, 노아의 모든 아들들의 자손이 현세적 구원으로 구원받는 것을 보았더라.

43 그리하여 에녹은 노아가 ㄱ방주를 짓는 것과 주가 그것을 보고 미소 짓는 것과 자신의 손에 그것을 쥐고 있는 것을 보았으나, 나머지 악인에게는 홍수가 임하여 그들을 삼켜 버리는 것을 보았더라.

44 그리고 에녹이 이를 보았을 때 그는 영혼에 괴로움을 느껴 자기 형제들로 인하여 울었고 하늘들에게 이르되, 나는 위로받기를 ㄱ거절하리라 하였으나, 주가 에녹에게 이르되, 네 마음을 들어 올리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보라 하였더라.

45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에녹이 보고, 노아부터 땅의 모든 권속을 보았으며, 그리하여 그가 주께 부르짖어 아뢰되, 어느 때에 주의 날이 임하리이까? 어느 때에 의인의 피가 흘린 바 되고, 그리하여 애통하는 자들 모두가 ㄱ성결하게 되어 영생을 얻게 되리이까?

36ㄱ 교성 38:2; 88:41; 모세 1:35~37.
ㄴ 창 6:5~6; 모세 8:22, 28~30.
38ㄱ 벧전 3:18~20. 안내 지옥.
39ㄱ 설명 구주.
ㄴ 모세 4:2; 아브 3:27. 안내 예수 그리스도.
ㄷ 안내 정죄.
41ㄱ 모사 28:3. 안내 긍휼.
42ㄱ 안내 노아, 성경의 족장.
ㄴ 모세 8:12.
43ㄱ 창 6:14~16; 이더 6:7.
44ㄱ 시 77:2; 이더 15:3.
45ㄱ 안내 성결하게 됨.

46 주가 이르되, 그 일은 ㄱ절정의
시기에, 사악함과 보복의 날에 있으
리라.
47 그리고 보라, 에녹이 인자가 참
으로, 육신으로 오는 날을 보았고 그
의 영혼이 기뻐하여 이르되, 의인은
들리웠고, ㄱ어린 양은 창세로부터 죽
임을 당하셨도다. 신앙을 통하여 나
는 아버지의 품에 있나니, 보라, ㄴ시
온은 나와 함께 있도다 하더라.
48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에녹
이 ㄱ땅을 바라보고 그 복중에서 나는
소리를 들은즉, 이르기를, 사람들의
어미된 내게 화, 화 있도다. 나의 자
녀들의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고통을 당하며, 나는 피곤하도다. 어
느 때에야 내가 ㄴ쉼을 얻고 내게서
나아간 ㄷ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리
요? 어느 때에야 나의 창조주께서 나
를 성결하게 하사 내가 쉼을 얻고 한
동안 의가 내 얼굴 위에 머물러 있으
리요?
49 이에 에녹이 땅이 슬퍼하는 소
리를 듣고는 울며 주께 부르짖어 아
뢰되, 오 주여, 땅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노아의 자녀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50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에녹
이 주께 부르짖기를 계속하여 아뢰
되, 오 주여 당신의 독생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니, 당
신께서 노아와 그의 자손에게 자비
를 베푸사, 땅이 결코 다시는 홍수로
뒤덮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51 이에 주가 들어주지 않을 수 없
어 에녹과 성약을 맺고 ㄱ홍수를 멈출
것과 노아의 자녀를 부를 것을 맹세
로 서약하였더라.
52 또 그는 땅이 존재하는 동안은
그의 ㄱ자손의 남은 자가, 모든 민족
가운데 항상 있을 것이라는 변경될
수 없는 선언을 하였더라.
53 그리고 주가 이르기를, 그 자손
을 통하여 메시야가 나올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말하기를—나는
ㄱ메시야, 시온의 ㄴ왕, 영원과도 같이
넓은 하늘의 ㄷ반석이니, 누구든지 문
으로 들어와서 나로 말미암아 ㄹ오르
는 자는 결코 떨어지지 아니함이니
라. 그런즉 내가 말한 그들은 복이 있
도다. 이는 그들이 영원한 기쁨의
ㅁ노래를 부르며 나아 올 것임이니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54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에녹
이 주께 부르짖어 아뢰되, 인자가 육
신으로 오실 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
리이까? 내가 당신께 비옵나니, 이 일
들을 내게 보이소서.
55 이에 주가 에녹에게 이르되, 보
라 하는지라, 그가 보고, ㄱ인자가 사

46 ㄱ 모세 5:57.
47 ㄱ 안내 하나님의 어린 양.
ㄴ 모세 7:21.
48 ㄱ 안내 지구—지구가 깨끗하게 됨.
ㄴ 모세 7:54, 58, 64.
ㄷ 안내 더러운, 더러움.
51 ㄱ 시 104:6~9.
52 ㄱ 모세 8:2.
53 ㄱ 안내 메시야.
ㄴ 마 2:2; 니후 10:14; 앨 5:50; 교성 128:22.
ㄷ 시 71:3; 78:35; 힐 5:12. 안내 반석.
ㄹ 니후 31:19~20.
ㅁ 안내 음악.
55 ㄱ 안내 인자.

람들이 하는대로 ㄴ십자가 위에 들리운 것을 보았더라.

56 또 그가 큰 소리를 들었는데, 하늘들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 애통하며 땅이 ㄱ신음하더니, 바위가 갈라지고 성도들이 ㄴ일어나 인자의 ㄷ오른편에서 영광의 면류관으로 ㄹ관을 쓰더라.

57 또 ㄱ옥에 있던 ㄴ영들이 모두 나아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고 나머지는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의 사슬에 묶여 있게 되더라.

58 이에 다시 에녹이 울며 주께 부르짖어 아뢰되, 어느 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이까?

59 에녹이 보니, 인자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는지라, 그가 주를 불러 아뢰되, 당신은 땅 위에 다시 오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당신은 하나님이시오며 나는 당신을 아오니, 당신께서 내게 맹세하시고 당신의 독생자의 이름으로 구할 것을 내게 명하셨나이다. 당신께서 나를 만드셨고, 당신의 보좌에 이르는 권한을 나에게 주셨사오니, 나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당신의 은혜를 통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당신께서 땅으로 다시 오지 아니하시겠는지 당신께 여쭙나이다.

60 이에 주가 에녹에게 이르되, 내가 살아있음같이 나는 노아의 자녀에 관하여 네게 맺은 맹세를 이루기 위하여 ㄱ마지막 날에, 사악함과 보복의 날에 오리라.

61 그리고 땅이 ㄱ안식을 누리는 그 날이 오려니와 그 날 이전에 하늘들이 어두워질 것이요, ㄴ흑암의 ㄷ휘장이 땅을 덮을 것이요, 하늘들이 진동할 것이요, 또한 땅도 그러하리니, 큰 환난이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있으리라. 그러나 나의 백성은 내가 ㄹ보전하리라.

62 또 ㄱ의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보낼 것이요, 그리고 ㄴ진리를 내가 ㄷ땅에서 내보내어 나의 독생자에 대하여 곧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의 ㄹ부활과, 그러하도다, 또한 만인의 부활에 대해서도 ㅁ증거하게 할 것이요, 내가 또 의와 진리가 마치 홍수와 같이 땅을 휩쓸게 하여 땅의 사방에서 나의 택한 자를 내가 예비할 곳, 거룩한 성으로 ㅂ집합시키리라. 그리하여 나의 백성이 자기 허리를 동이고 나의 오는 때를 바라고 기다리게 하려 하노니, 이는 그 곳에 나의 성막이 있을 것임이요, 그 곳은 시온, ㅅ새 예루살렘이라 일컬어지리라.

63 또 주가 에녹에게 이르되, 그때에 너와 너의 모든 ㄱ도성이 거기서

55ㄴ 3니 27:14.
안내 십자가에 달림.
56ㄱ 마 27:45, 50~51.
ㄴ 안내 부활.
ㄷ 마 25:34.
ㄹ 안내 면류관; 승영.
57ㄱ 교성 76:71~74; 88:99.
ㄴ 안내 영.
60ㄱ 안내 마지막 날, 후일.
61ㄱ 안내 지구—지구의 마지막 상태.
ㄴ 교성 38:11~12; 112:23.
ㄷ 안내 휘장.
ㄹ 니전 22:15~22; 니후 30:10.
62ㄱ 시 85:11.
안내 복음의 회복.
ㄴ 안내 몰몬경.
ㄷ 사 29:4.
ㄹ 안내 부활.
ㅁ 안내 간증.
ㅂ 안내 이스라엘—이스라엘의 집합.
ㅅ 안내 새 예루살렘.
63ㄱ 계 21:9~11; 교성 45:11~12; 모세 7:19~21.

그들을 만날 것이요,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품으로 받아들일 것이요, 그들은 우리를 볼 것이요, 우리는 그들의 목을 끌어안을 것이요, 그들은 우리 목을 끌어안을 것이요, 우리는 서로 입을 맞추리라.

64 또 거기에 나의 거처가 있을 것이요, 그곳은 시온이 되리니, 시온은 내가 지은 모든 창조물에서 나아올 것이요, ㄱ천 년 동안 땅은 ㄴ안식을 누리리라.

65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에녹은 천 년 동안 의롭게 땅에 거하기 위하여 마지막 날에 인자가 ㄱ오는 날을 보았더라.

66 그러나 그 날 이전에 그는 큰 환난이 악인들 가운데 있음을 보았고 또한 바다를 본 즉 바다가 요동하며, 사람들의 마음이 ㄱ낙담하며 악인에게 임할 전능하신 하나님의 ㄴ심판을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있더라.

67 그리고 주는 에녹에게 모든 것을, 참으로 세상의 끝날까지를 보여 주었고, 그는 의인의 날과 그들의 구속의 때를 보고 충만한 ㄱ기쁨을 받았더라.

68 그리고 에녹의 시대에 ㄱ시온의 모든 날은 삼백육십오 년이었더라.

69 그리고 에녹과 그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과 ㄱ동행하였고, 주는 시온 가운데 거하였더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시온이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이 시온을 자기 품 안으로 받아들였음이라. 이에 그때로부터 시온이 도망하였다 하는 말이 퍼졌더라.

## 제 8 장

*(1831년 2월)*
*므두셀라가 예언함—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복음을 전파함—큰 사악함이 퍼짐—회개하라는 외침이 무시당함—하나님께서 홍수로 인한 모든 육체의 멸망을 선포하심.*

그리고 에녹의 향년은 모두 사백삼십 년이더라.

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주가 에녹과 맺은 성약을 이루려고 에녹의 아들 ㄱ므두셀라는 데려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가 진정으로 에녹과 성약하기를, 노아가 그의 허리의 열매에서 나리라 하였음이더라.

3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므두셀라가 예언하기를, 나의 허리에서 (노아를 통하여) 땅의 모든 왕국이 생겨나리라 하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더라.

4 그리고 그 땅에 큰 기근이 들고, 주가 심한 저주로 땅을 저주하매, 그 땅의 많은 주민이 죽었더라.

5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므두셀라가 일백팔십칠 세를 살고 라멕을 낳았고,

6 므두셀라는 라멕을 낳은 후 칠백

64ㄱ 안내 복천년.
ㄴ 모세 7:48.
65ㄱ 유 1:14. 안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66ㄱ 사 13:6~7.
ㄴ 안내 심판, 마지막.
67ㄱ 안내 기쁨.
68ㄱ 창 5:23; 모세 8:1.
69ㄱ 창 5:24; 모세 6:34. 안내 걷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8 2ㄱ 안내 므두셀라.

팔십이 년을 살며 아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7 므두셀라는 구백육십구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8 그리고 라멕은 일백팔십이 세를 살고 아들을 낳았고
9 그가 그의 이름을 ㄱ노아라 하며 이르되, 주가 ㄴ저주하였던 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손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위로하리라 하였더라.
10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오백구십오 년을 살며 아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11 라멕은 칠백칠십칠 세까지 향수하고 죽었더라.
12 노아는 사백오십 세에 ㄱ야벳을 낳았고, 사십이 년 후에 야벳의 어미 되는 여인에게서 ㄴ셈을 낳았고, 오백 세에 ㄷ함을 낳았더라.
13 그리고 ㄱ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주의 말씀을 ㄴ들었고 주의를 기울였으니, 그들은 ㄷ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더라.
14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면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매, 사람의 ㄱ아들들이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택하는 대로 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더라.
15 이에 주가 노아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의 딸들이 자신을 ㄱ팔았도다. 보라, 이는 나의 분노가 사람의 아들들을 향하여 불붙었음이니, 이는 그들이 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아니함이라 하였더라.
16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노아는 예언하고 하나님의 일을 태초에 있던 대로 가르쳤더라.
17 그리고 주가 노아에게 이르되, 나의 영이 항상 사람과 함께 ㄱ애쓰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모든 ㄴ육체는 반드시 죽을 것임을 알 것임이라. 그러나 그의 날은 일백이십 년이 되리라. 만일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ㄷ홍수를 들여보내어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라 하셨더라.
18 그 당시 땅에 ㄱ거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노아를 찾아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주가 노아와 함께 있었고 주의 ㄴ권능이 그의 위에 있었더라.
19 그리고 주가 자신의 ㄱ반차에 따라 ㄴ노아를 ㄷ성임하고 사람의 자녀들에게 나아가 에녹에게 준 대로 자기의 복음을 ㄹ선포할 것을 그에게 명하였더라.
20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노아가 사람의 자녀들에게 ㄱ회개할 것을

9ㄱ 안내 노아, 성경의 족장.
ㄴ 모세 4:23.
12ㄱ 창 5:32. 안내 야벳.
ㄴ 안내 셈.
ㄷ 안내 함.
13ㄱ 교성 138:41. 안내 가브리엘.
ㄴ 안내 순종, 순종하는, 순종하다.
ㄷ 안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14ㄱ 모세 5:52.
15ㄱ 안내 결혼, 결혼하다—다른 종교간의 결혼.
17ㄱ 창 6:3; 니후 26:11; 이더 2:15; 교성 1:33.
ㄴ 니후 9:4. 안내 살.
ㄷ 창 7:4, 10; 모세 7:34.
18ㄱ 창 6:4; 민 13:33; 수 17:15.
ㄴ 안내 권능.
19ㄱ 안내 멜기세덱 신권.
ㄴ 아브 1:19.
ㄷ 교성 107:52. 안내 성임하다, 성임.
ㄹ 안내 선교 사업.
20ㄱ 안내 회개하다, 회개.

호소하였으나 그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21 그리고 또한 그들이 그의 말하는 것을 듣고 나서 그의 앞에 와서 이르되, 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딸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우리가 ㄱ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지 아니하냐? 그리고 우리의 아내들은 우리를 위하여 자식들을 낳아 주나니 그들은 용사라, 옛 사람들, 크게 유명한 사람들과 같으니라 하며 그들이 노아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22 이에 하나님이 보니, 사람들의 ㄱ사악함이 땅에서 심해졌고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 ㄴ마음의 생각의 상상 중에 교만하여졌으며 그 생각이 끊임없이 악할 뿐이더라.

23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노아가 백성에게 ㄱ전도하기를 계속하여 이르되, 듣고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라.

24 우리 조상들과 같이 ㄱ믿고 너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ㄴ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신을 받게 되리니, 모든 것이 너희에게 분명히 ㄷ나타나게 되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이를 행하지 아니하면 홍수가 너희에게 들이닥치리라 하더라.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아니하더라.

25 이에 주가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노아가 한탄하였고 그의 마음이 아팠으며 그가 마음에 비통함을 느꼈더라.

26 이에 주가 이르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ㄱ멸하리니,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을 창조한 것과 내가 그들을 만들었음을 노아가 한탄하였음이니라. 그리고 그가 내게 호소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생명을 찾았음이니라.

27 그리하여 노아는 주의 눈에 ㄱ은혜를 입었나니, 이는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요 그의 세대에 ㄴ완전한 자였음이더라. 또 그는 하나님과 ㄷ동행하였고 또한 그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도 그리하였더라.

28 땅이 하나님 앞에 ㄱ부패하였고 땅에 폭력이 가득하였더라.

29 그리고 하나님이 땅을 바라본즉, 보라,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그 길을 부패하게 하였음이더라.

30 이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에 폭력이 가득함이라. 그리고 보라, 내가 모든 육체를 땅에서 ㄱ멸하리라 하였더라.

21 ㄱ 마 24:38~39; 조마 1:41.
22 ㄱ 창 6:5; 모세 7:36~37.
ㄴ 모사 4:30; 앨 12:14. 안내 생각.
23 ㄱ 안내 전파하다.
24 ㄱ 안내 믿음, 믿다.
ㄴ 안내 침례, 침례를 주다—침례 요건.
ㄷ 니후 32:2~5.
26 ㄱ 안내 지구—지구가 깨끗하게 됨.
27 ㄱ 안내 은혜.
ㄴ 창 6:9.
ㄷ 안내 걷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28 ㄱ 창 6:11~13.
30 ㄱ 교성 56:3.

# 아브라함서에서 옮겨온 사본

1

## 설명

그림 1. 주의 천사.

그림 2. 제단 위에 묶인 아브라함.

그림 3. 엘케나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희생으로 바치려 함.

그림 4.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희생을 드리는 제단. 엘케나, 립나, 마막크라, 고라스 및 바로의 신들 앞에 세워져 있다.

그림 5. 엘케나의 우상 신.

그림 6. 립나의 우상 신.

그림 7. 마막크라의 우상 신.

그림 8. 고라스의 우상 신.

그림 9. 바로의 우상 신.

그림 10. 애굽에서의 아브라함.

그림 11. 애굽인이 이해한 대로 하늘의 기둥을 나타내려 한 것임.

그림 12. 라키양, 창공 곧 우리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을 의미함. 그러나 이 경우에 이 주제와 관련하여 애굽인들은 히브리어의 샤마임에 해당하는 샤마, 즉 높다 또는 하늘들을 나타내려 하였음.

# 아브라함서

조셉 스미스가 파피루스에서 번역한 것임.

*애굽의 지하 묘지에서 우리 손으로 들어오게 된 어떤 고대 기록의 번역물.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을 동안에 기록한 것으로 아브라함서라 하며 그가 파피루스에 자신의 손으로 쓴 것임(교회사 2:235~236, 348~351).*

## 제 1 장

*아브라함이 축복사의 반차의 축복을 구함—그가 갈대아에서 거짓 제사장들에게 박해를 받음—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심—애굽의 기원과 정부가 언급됨.*

**1 나 ㄱ아브라함은 내 조상의 거주지였던 ㄴ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ㄷ거주할 다른 곳을 얻음이 내게 필요한 줄 깨달았고,**

**2 나를 위한 더 큰 ㄱ행복과 평화와 ㄴ안식이 있음을 알고, 나는 조상의 축복을 구하고 그 축복을 베푸는 직분에 성임될 권리를 구하였느니라. 나는 내 자신이 ㄷ의의 추종자였으므로 또한 큰 ㄹ지식을 지니는 자가 되며, 의의 더 큰 추종자가 되고, 더 큰 지식을 지니며, 많은 민족의 조상과 평화의 왕자가 되기를 원하였으므로, 그리고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기를 원하였으므로, 나는 조상에게 속한 ㅁ권리를 지닌 정당한 상속인이요 ㅂ대제사장이 되었느니라.**

**3 그것은 조상으로부터 내게 ㄱ부여되었느니라. 그것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왔으니, 현세의 시작 때부터, 참으로 바로 태초로부터 또는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현재에까지 내려왔으니, 바로 ㄴ장자의 권리, 곧 첫 사람인 ㄷ아담, 곧 첫 아버지의 권리가 조상들을 통하여 내게 내려왔느니라.**

**4 나는 자손에 관하여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명에 따라 신권에 ㄱ임명되기를 구하였느니라.**

**5 나의 ㄱ조상들은 그들의 의에서 또 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룩한 계명에서 돌이켜 이방인의 신들을 ㄴ섬기며, 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온전히 거절하였느니라.**

**6 이는 그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기**

**1** 1ㄱ 안내 아브라함.
ㄴ 안내 우르.
ㄷ 행 7:2~4.
2ㄱ 안내 기쁨.
ㄴ 안내 안식.
ㄷ 안내 의로운, 의로움.
ㄹ 교성 42:61.
안내 지식.
ㅁ 안내 멜기세덱 신권.
ㅂ 안내 대제사.
3ㄱ 교성 84:14.
ㄴ 교성 68:17.
안내 장자.
ㄷ 모세 1:34.
안내 아담.
4ㄱ 안내 장자의 명분.
5ㄱ 창 12:1.
ㄴ 안내 우상 숭배.

로 정하여졌음이요, 엘케나의 ㄱ신과 립나의 신과 마막크라의 신과 고라스의 신과 애굽왕 바로의 신에게로 전적으로 돌이켰음이더라.

7 그러므로 그들은 이들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그들의 자녀를 바치는 이방인의 희생에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내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엘케나의 제사장의 손으로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였느니라. 엘케나의 제사장은 또한 바로의 제사장이기도 하더라.

8 이제 이때 애굽왕 바로의 제사장의 관습은 이들 이방 신들에게 바치는 제물로 갈대아 땅에 세워진 제단 위에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을 바치는 것이었더라.

9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제사장은 애굽인의 방식에 따라 바로의 신과 또한 샤그르엘의 신에게 제물을 바치더라. 이제 샤그르엘의 신은 태양이더라.

10 바로의 제사장은 올리셈 평원 어귀에 있는 보디발의 산이라 하는 산 곁에 세워진 제단 위에 심지어 어린아이를 감사 제물로 바치더라.

11 이제 이 제사장은 한 번에 세 처녀를 이 제단에 바치기도 하였으니, 이들은 ㄱ함의 허리에서 나온 직계 왕족의 한 사람인 오니타의 딸들이었더라. 이 처녀들은 그들의 유덕함으로 말미암아 바쳐졌나니, 그들이 나무나 돌로 된 신들에게 ㄴ엎드려 절하지 않으려 하였으므로 그들은 이 제단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 일은 애굽인의 방식에 따라 행하여졌더라.

1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 제사장들이 내게 폭력을 휘둘러 그들이 이 제단 위에서 그 처녀들을 죽인 것같이 나를 또한 죽이려 하였더라. 너희가 이 제단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나는 너희가 이 기록의 첫머리에 있는 그림을 참조하기 바라노라.

13 그것은 갈대아 사람들 가운데 있던 것 같은 침대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으며, 엘케나, 립나, 마막크라, 고라스의 신들과 또한 애굽왕 바로의 신을 닮은 신 앞에 세워져 있더라.

14 너희가 이 신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나는 시작 부분에 있는 그림 중에 그들의 모습을 보여 주었느니라. 이러한 모습의 도형을 갈대아인은 랄르에노스라 부르나니, 이는 상형문자를 의미하느니라.

15 그들이 나를 제물로 바치고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그들의 손을 내 위로 들어 올렸을 때 보라,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나의 목소리를 높였더니, 주께서 ㄱ귀 기울여 들으시고, 전능자의 시현으로 나를 채우셨고 그가 임재하시는 곳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즉시 내 결박을 ㄴ풀었더라.

16 그리고 그의 음성이 내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보라, 내 ㄱ이름은 여호와니라. 내가 네 음성을

6ㄱ 설명 아브라함서에서 옮겨온 사본 1에 그려져 있는 것과 같은 거짓 신들.
11ㄱ 안내 함.
ㄴ 단 3:13~18.
15ㄱ 모사 9:17~18.
ㄴ 아브 2:13.
16ㄱ 안내 여호와.

듣고 내려와 너를 건져내어 네 아버지의 집에서 그리고 네 모든 친척에게서 데리고 나가, 네가 알지 못하는 타국 ㄴ땅으로 들어가게 하려 하노라.

17 이는 그들이 내게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엘케나의 신과 립나의 신과 마막크라의 신과 고라스의 신과 애굽왕 바로의 신을 경배하였음이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징벌하고 나의 아들 아브라함 너를 대적하여 그 손을 들어 올려 네 생명을 빼앗으려한 자를 멸하려고 내려왔느니라.

18 보라, 나는 내 손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요, 너를 취하여 나의 이름 곧 네 아버지의 ㄱ신권을 네게 두리니, 내 권능이 너를 덮으리라.

19 노아에게 있었던 것같이 네게도 그리하리라. 그러나 네 성역을 통하여 내 ㄱ이름이 땅에서 영원히 알려지리니, 이는 내가 네 하나님임이니라.

20 보라, 보디발의 산은 갈대아 ㄱ우르 땅에 있었느니라. 그리고 주께서 엘케나와 그 땅의 신들의 제단을 허시고, 그것들을 온전히 멸하시고 그 제사장을 치시니, 그가 죽었더라. 이에 갈대아와 또한 바로의 궁정에 큰 애곡이 있었나니, 이 바로는 왕족의 혈통에 의한 왕을 의미하느니라.

21 이제 이 애굽의 왕은 ㄱ함의 허리에서 나온 후손으로, 출생으로는 ㄴ가나안인의 혈통을 이어 받은 자더라.

22 이 혈통에서 모든 애굽인이 나왔고 이같이 하여 가나안인의 혈통이 그 땅에 보전되었더라.

23 ㄱ애굽 땅은 처음에 한 여인이 발견하였으니, 그는 함의 딸이요 애굽투스의 딸이니, 애굽투스는 갈대아어로 애굽을 뜻하며 금지된 것을 의미하느니라.

24 이 여인이 그 땅을 발견하였을 때 그 땅은 물 아래 있었고 후에 그 여인이 자기 아들들을 그 땅에 정착시켰나니, 그리하여 그 땅에 저주를 보전한 저 종족이 함에게서 나왔더라.

25 이제 애굽의 첫 정부는 함의 딸 애굽투스의 맏아들 바로가 세웠으니, 이는 함의 정부의 방식을 따랐으니, 족장제였더라.

26 의로운 사람이었던 바로는 자기 왕국을 세우고 그의 온 생애 동안 자기 백성을 지혜롭고 공평하게 다스렸고 처음 여러 세대에, 첫 족장 통치 시대에, 곧 아담과 또한 그 조상 노아가 다스리던 때에 조상들이 확립한 그 반차를 모방하기를 열심히 구하였더라. 그의 조상 노아는 땅의 ㄱ축복과 지혜의 축복으로 그를 축복하였으나, 신권에 관하여는 그를 저주하였더라.

27 이제 바로는 ㄱ신권의 권리를 가질 수 없는 혈통에 속하였으나 그럼

16ㄴ 안내 약속의 땅.
18ㄱ 안내 신권.
19ㄱ 창 12:1~3.
20ㄱ 창 11:28; 아브 2:4.
21ㄱ 창 10:6; 시 78:51; 모세 8:12.
ㄴ 모세 7:6~8. 안내 가나안, 가나안 인.
23ㄱ 안내 애굽.
26ㄱ 안내 축복하다, 축복 받은, 축복.
27ㄱ 교성 선2. 안내 신권.

에도 불구하고 바로들은 함을 통하여 노아에게서 그것을 받은 것으로 주장하고자 하였으므로 나의 아버지는 그들의 우상 숭배에 이끌려 가셨더라.

28 그러나 나는 이후로는 나 자신으로부터 창조의 시작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연대기를 힘써 기술하리니, 이는 그 ㄱ기록이 내 수중에 들어왔고 이를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음이니라.

29 이제, 엘케나의 제사장이 치심을 입어 죽은 후에, 갈대아 땅에 관하여 내게 말씀해 주신 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리라 하신 그 일이 이루어졌더라.

30 따라서 기근이 갈대아 온 땅에 퍼졌고, 나의 부친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심한 괴로움을 당하셨으며, 이에 나를 거스려 결정하였던 악 곧 내 ㄱ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던 것을 회개하시더라.

31 그러나 신권의 권리에 관한 조상 곧 족장들의 기록은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 손 안에 보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창조의 시작과 또한 ㄱ행성과 별들에 관한 지식은 조상에게 알려진 대로 내가 오늘날까지 보관하여 왔고 또 내 후에 올 나의 후손의 유익을 위하여 이 기록 위에 힘써 어느 정도 기록하려 하노라.

## 제 2 장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감—여호와께서 하란에서 그에게 나타나심—모든 복음의 축복이 그의 자손에게 또 그의 자손을 통하여 모두에게 약속됨—그는 가나안으로 갔다가 애굽으로 감.*

이제 주 하나님이 우르 땅에 기근을 심하게 하셨으므로 내 형제 ㄱ하란이 죽었으나 나의 부친 ㄴ데라는 갈대아인의 우르 땅에 여전히 사셨느니라.

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나 아브라함은 ㄱ사래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내 형제 ㄴ나홀은 하란의 딸 밀가를 아내로 맞이하니라.

3 이제 주께서 내게 ㄱ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네 나라와 네 친척과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하시니라.

4 그러므로 나는 갈대아인의 ㄱ우르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나는 내 형제의 아들 롯과 그의 아내와 나의 아내 사래를 데리고 갔으며, 또한 나의 ㄴ부친도 우리가 하란이라 이름한 땅으로 나를 따라오셨더라.

5 그런데 기근이 심하지 않게 되었고 하란에 양 떼가 많으므로 나의 부

28ㄱ 모세 6:5.
안내 기억의 책.
30ㄱ 아브 1:7.
31ㄱ 아브 3:1~18.
2 1ㄱ 창 11:28.
ㄴ 창 11:24~26; 대상 1:26.
2ㄱ 창 11:29.
안내 사라.
ㄴ 창 11:27; 22:20~24.
3ㄱ 창 12:1; 행 7:1~3.
4ㄱ 느 9:7.
ㄴ 창 11:31~32.

친은 하란에 머물러 거기 거하셨으며, 나의 부친은 다시 ㄱ우상 숭배로 돌이키셨으니, 그러므로 그는 하란에 계속 머무셨더라.

6 그러나 나 아브라함과 내 형제의 아들 ㄱ롯은 주께 기도하였고, 이에 주께서 내게 ㄴ나타나사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롯을 데리고 가라. 이는 내가 너를 하란에서 데리고 나가 타국 ㄷ땅에서 내 ㄹ이름을 받들 성역자가 되게 하기로 뜻을 정하였음이니, 네 뒤를 이을 네 자손이 나의 음성에 귀을 기울이면 나는 그 땅을 그들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리라.

7 대저 나는 주 네 하나님이니라. 나는 하늘에 거하며 땅은 내 ㄱ발등상이라. 내가 내 손을 바다 위에 펴면 바다가 내 음성에 순종하느니라. 나는 바람과 불을 나의 ㄴ수레가 되게 하며 내가 산더러 이르기를—여기에서 떠나라—하면, 보라, 홀연히 일순간에 산들은 회오리바람에 취하여 감을 당하느니라.

8 내 이름은 ㄱ여호와니, 나는 시작부터 끝을 ㄴ아느니라. 그러므로, 내 손이 네 위에 있으리라.

9 또 내가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고 내가 네게 한량 없이 ㄱ복을 주어 네 이름을 모든 나라 가운데서 크게 할 것인즉, 너는 네 뒤를 이을 네 자손에게 복이 되리니,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이 성역과 ㄴ신권을 지니고 모든 나라에게 전하리라.

10 또 내가 네 이름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리니, 이 ㄱ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네 이름으로 불리울 것이요, 네 ㄴ자손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그들은 일어나 너를 그들의 ㄷ조상으로 찬양하리라.

11 또 나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ㄱ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이는 곧 네 신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그리고 네 ㄴ자손으로 말미암아 (이는 곧 네 신권이라,) 이는 이 ㄷ권리가 너와 네 뒤를 이을 자손 (말하자면, 실제 자손 곧 몸의 자손) 가운데 계속 이어지리라는 약속을 네게 줌이니,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음의 축복으로 복을 받을 것인즉, 구원의 축복 곧 영생의 축복이니라.

12 이제 주께서 내게 말씀하기를 마치시고, 그 얼굴이 내게서 물러간 후에 내가 내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5ㄱ 수 24:2.
6ㄱ 안내 롯.
ㄴ 창 17:1.
안내 예수 그리스도—그리스도의 필멸 이전의 존재.
ㄷ 창 13:14~15; 17:8; 출 33:1. 안내 약속의 땅.
ㄹ 창 12:2~3; 아브 1:19.
7ㄱ 니전 17:39; 교성 38:17.
ㄴ 사 66:15~16.
8ㄱ 안내 여호와.
ㄴ 안내 전지.
9ㄱ 니전 17:40; 니후 29:14; 3니 20:27; 몰 5:20. 안내 아브라함—아브라함의 후손.
ㄴ 교성 84:17~19; 모세 6:7. 안내 멜기세덱 신권.
10ㄱ 갈 3:7~9.
ㄴ 창 13:16; 갈 3:29; 니후 30:2.
ㄷ 안내 축복사, 축복사의.
11ㄱ 안내 아브라함의 성약.
ㄴ 사 61:9.
ㄷ 안내 장자의 명분; 이스라엘; 신권.

당신의 종이 당신을 간절히 ㄱ구하였더니, 이제 내가 당신을 찾았나이다.

13 당신께서 실로 당신의 천사를 보내사 엘케나의 신들에게서 나를 ㄱ건지셨사오니, 내가 당신의 음성을 듣는 것이 잘 행하는 일이 되겠나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종으로 일어나 평안히 떠나게 하소서 하였더라.

14 그리하여 나 아브라함은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떠났고, 롯도 함께 갔으니, 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ㄱ육십이 세였더라.

15 그리고 내가 갈대아 ㄱ우르에 있을 때 아내로 맞은 ㄴ사래와 내 형제의 아들 롯과 우리가 모은 우리의 모든 재산과 우리가 하란에서 ㄷ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ㄹ가나안 땅에 이르는 길로 나아갔고, 우리가 가는 도중에는 천막에 거하였더라.

16 그러므로 우리가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려고 엘손의 길로 여행하는 동안 영원은 우리의 덮개요, 우리의 ㄱ반석이요, 우리의 구원이더라.

17 이제 나 아브라함이 엘손 땅에서 ㄱ제단을 쌓고 주께 제물을 드리고 내 아버지의 집이 멸망하지 않도록 ㄴ기근이 그들에게서 돌이켜지기를 빌었더라.

18 그러고 나서 우리는 엘손을 떠나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지방으로 갔더라. 그 곳은 모레 평지에 위치해 있었고 우리는 이미 ㄱ가나안인의 땅 경계 안으로 들어왔더라. 이에 나는 거기 모레 평지에서 ㄴ희생을 드리고 경건하게 주의 이름을 불렀나니, 이는 우리가 이미 이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의 땅에 들어왔음이더라.

19 이에 주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사 내게 나타나시고 내게 이르시되, 네 자손에게 내가 이 ㄱ땅을 주리라 하시더라.

20 이에 나 아브라함은 내가 주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곳에서 일어나 그 곳을 떠나 ㄱ벧엘 동편에 있는 산으로 옮겨가서 그 곳에 나의 천막을 쳤으니, 서쪽은 벧엘이요 동쪽은 ㄴ하이더라. 그리고 그 곳에 내가 주께 또 다른 제단을 쌓고 다시 주의 이름을 ㄷ불렀더라.

21 그리고 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남쪽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며 여행하였고 그 땅에 기근이 계속되었더라. 이에 나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 거기에 머물기로 결론을 내렸나니, 이는 기근이 매우 심하였음이더라.

2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애굽에 들어가는 곳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

12ㄱ 교성 88:63.
13ㄱ 아브 1:15~17.
14ㄱ 창 12:4~5.
15ㄱ 안내 우르.
ㄴ 안내 사라.
ㄷ 안내 돌이킴, 돌이키다.
ㄹ 안내 가나안, 가나안 인.
16ㄱ 안내 반석.
17ㄱ 안내 제단.
ㄴ 아브 1:29.
18ㄱ 창 12:6.
ㄴ 안내 희생.
19ㄱ 창 13:12~15; 17:8; 민 34:2.
안내 약속의 땅.
20ㄱ 안내 벧엘.
ㄴ 창 13:3~4.
ㄷ 창 12:8.

라, 네 아내 ㄱ사래는 보기에 매우 아리따운 여인이라.

23 그러므로 이렇게 되리니, 애굽인들이 그를 볼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그는 저의 아내라 하며, 그들은 너를 죽일 것이나 그는 살려 두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삼가 이같이 행하도록 하라.

24 그로 애굽인에게 자기는 네 누이라 말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 영혼이 살리라 하시더라.

2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 아브라함이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나의 아내 사래에게 모두 말하되—그러므로 청컨대 그들에게 그대는 내 누이라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할 것이요, 내 영혼이 그대로 인하여 살리라 하였더라.

## 제 3 장

*아브라함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해와 달과 별들에 관하여 배움—주께서 그에게 영의 영원성을 계시하심—그는 전세, 예임, 창조, 구속주의 선택 및 사람의 둘째 지체를 배움.*

**그리고** 나 아브라함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주 나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ㄱ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있었느니라.

2 그리고 내가 ㄱ별들을 보니, 그것들이 매우 크며, 그 중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우며 그것 가까이에 큰 것들이 많이 있더라.

3 그리고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것들은 다스리는 것들이며 그 큰 것의 이름은 ㄱ콜롭이니, 이는 그것이 내게 가까이 있는 까닭이라. 이는 내가 주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이것을 두어 네가 서 있는 것과 같은 등급에 속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였느니라.

4 그리고 주께서 우림과 둠밈으로 내게 이르시되, 콜롭은 그 회전에 있어서 그 시간과 계절에 따르면 주의 방식을 따르나니, 주의 계산 방식에 따르면 주께는 한 회전이 ㄱ하루가 되느니라. 이는 네가 서 있는 곳에 정해진 시간에 따르면 일천 ㄴ년이 되느니라. 이것은 콜롭의 계산법에 따른 주의 시간의 계산법이니라.

5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낮을 주관하게 되어 있는 것보다 더 작은, 곧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체인 그 행성은, 시간 계산의 면에서는 네가 서 있는 곳보다 더 높거나 더 크도다. 이는 그것이 등급 내에서 느리게 운행함이니, 이것에 질서가 있음은 그것이 네가 서 있는 지구보다 높이 있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그 시간의 계산은 그 날과 달과 해의 수에 있어서는 그만큼 많지 아니하느니라.

6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자, 아브라함아, 이 ㄱ두 가지 사실이 존재

22ㄱ 창 12:11~13.
3 1ㄱ 출 28:30; 모사 8:13; 28:13~16; 조역 1:35. 안내 우림과 둠밈.
2ㄱ 아브 1:31.
3ㄱ 사본 2, 그림 1~5 참조. 안내 콜롭.
4ㄱ 아브 5:13.
ㄴ 시 90:4; 벧후 3:8.
6ㄱ 아브 3:16~19.

하나니, 보라, 네 눈이 그것을 보느니라. 계산의 시간과 정해진 시간 그러하도다. 네가 서 있는 지구의 정해진 시간과 낮을 주관하도록 두신 큰 광명체의 정해진 시간과 밤을 주관하도록 두신 작은 광명체의 정해진 시간을 아는 것이 네게 허락되었느니라.

7 이제 작은 광명체의 정해진 시간은 그 계산에 있어서는 네가 서 있는 지구의 시간의 계산보다 더 긴 시간이니라.

8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실이 존재하는 곳에는 이 둘 위에 다른 또 한 가지 사실이 있나니, 이는 곧 시간의 계산이 보다 더 긴 다른 행성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9 그리고 이같이 한 행성의 시간의 계산은 다른 것보다 상위에 있어 네가 콜롭 가까이에 이르기까지 그러하리니, 이 콜롭은 주의 시간의 계산을 따르느니라. 이 콜롭은 네가 서 있는 곳과 같은 ㄱ등급에 속하는 모든 행성을 주관하도록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 놓여 있느니라.

10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 이르기까지, 빛을 발하도록 놓아 두신 모든 별의 정해진 시간을 아는 것이 네게 허락되었느니라.

11 이같이 나 아브라함은 사람이 얼굴을 마주하여 서로 대화하듯 주와 ㄱ말씀하였고, 그는 그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에 대하여 내게 말씀하셨더라.

12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시며 (그리고 그의 손을 펴시고) 보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여 주리라 하시고, 그 손을 내 눈에 대시매, 내가 그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보았나니, 그것들이 많더라. 그리고 그것들이 내 눈 앞에서 불어나서 그 끝을 내가 볼 수 없었더라.

13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시네하니 곧 해이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코곱, 이는 별이니라. 그리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올레아, 이는 달이니라. 그리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코가우빔, 이는 별들 또는 하늘의 궁창에 있는 모든 큰 광명체들을 의미하느니라.

14 그리고 주께서 내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밤 시간이었나니, 이르시기를, 내가 너와 너를 이을 네 ㄱ자손을 이것들처럼 ㄴ번성하게 하리라. 또 만일 네가 모래의 ㄷ수를 셀 수 있을진대, 네 자손들의 수도 그러하리라 하시더라.

15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너희가 이 모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나는 너희가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들을 네게 보여 주노라.

16 만일 두 가지 것이 존재하고 하나가 다른 것보다 상위에 있다면 그들보다 더 큰 것들이 있을 것이라. 그러므로 ㄱ콜롭은 네가 본 모든 코가우빔 중에서 가장 크니, 이는 그것이 내

9ㄱ 교성 88:37~44.
11ㄱ 창 17:1; 민 12:5~8.
14ㄱ 창 13:16; 교성 132:30.
ㄴ 아브 2:9.
ㄷ 창 22:17; 호 1:10.
16ㄱ 아브 3:3.

게 가장 가까이 있음이니라.

17 이제 만일 두 가지 것이 있어 하나가 다른 것보다 상위에 있고 달이 지구보다 상위에 있으면, 그렇다면 한 행성 또는 한 별이 그보다 상위에 존재할 수 있으리니, 주 네 하나님은 ㄱ행하고자 그 마음에 품은 것을 행하지 않음이 없느니라.

18 그러할지라도 그가 더 큰 별을 만들었도다. 그와 같이 또한 만일 두 영이 있어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총명할진대, 이들 두 영은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총명함에도 불구하고 시작이 없나니, 그들은 이전에 존재하였고 끝이 없을 것이요, 이후에도 존재하리라. 이는 그들이 ㄱ그노라움 곧 영원함이니라.

19 그리고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두 사실이 존재하나니, 두 영이 있어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총명하면, 그들보다 더 총명한 또 다른 영이 있으리라. 나는 주 네 하나님이니, 나는 그들 모두보다 더 ㄱ총명하니라.

20 주 네 하나님은 자기 천사를 보내어 엘케나의 제사장들의 손에서 너를 ㄱ건져내었느니라.

21 나는 그들 모두의 가운데 거하나니, 그러므로 내가 이제 나의 손으로 만든 ㄱ일을 네게 선포하기 위하여 네게로 내려왔느니라. 이 일에 있어서 나의 ㄴ지혜는 그들 모두보다 뛰어나나니, 이는 내가 모든 지혜와 분별로써 위로는 하늘에서와 아래로는 땅에서 태초부터 네 눈이 보았던 모든 예지를 다스림이라. 나는 태초에 네가 본 모든 예지 가운데 내려왔느니라 하시더라.

22 이제 주께서 나 아브라함에게 세상이 있기 ㄱ전에 조직된 ㄴ예지들을 보여 주셨고, 이들 모두 가운데에는 ㄷ고귀하고 위대한 자가 많더라.

23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영들을 보신즉, 그들이 좋았더라. 그가 그들 가운데 서 계시더니, 그가 이르시되, 이들을 나는 나의 다스리는 자로 삼으리라 하시더라. 이는 그가 영인 그들 가운데 서 계셨음이라. 그가 보시매, 그들이 좋았더라. 이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너는 그들 중 하나니라. 너는 네가 태어나기 전에 ㄱ택함을 받았느니라.

24 그리고 하나님과 같으신 ㄱ이가 한 분 그들 가운데 서 계시더니, 그가 자기와 함께 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내려가리라. 이는 그 곳에 공간이 있음이니, ㄴ우리가 이 물질을 취하여 이들이 거할 ㄷ땅을 만들리라.

25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그들을

17ㄱ 욥 9:4~12.
18ㄱ 그노라움은 영원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음역임.
19ㄱ 사 55:8~9. 안내 전지.
20ㄱ 아브 1:15.
21ㄱ 교성 88:45~47; 모세 1:27~29.
ㄴ 안내 지혜.
22ㄱ 안내 천국 회의; 전세.
ㄴ 안내 예지, 예지들.
ㄷ 교성 138:55.
23ㄱ 사 49:1~5; 렘 1:5. 안내 택함 받은; 예임.
24ㄱ 안내 장자.
ㄴ 안내 창조하다, 창조.
ㄷ 안내 지구—사람을 위하여 창조됨.

# 설명

그림 1. 첫 번째 창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의 영광 또는 하나님의 처소에 가장 가까운 콜롭. 다스림에 있어서는 첫째요, 시간의 측정에 있어서는 마지막임. 이 측정은 해의 영광의 시간을 따른 것으로 해의 영광의 시간에서 하루는 한 규빗을 나타냄. 콜롭에서의 하루는 이 땅의 측정에 따르면 천 년에 해당함. 애굽인은 이를 야오에라 부름.

그림 2. 콜롭 다음에 있으며 애굽인은 올리블리슈라 불렀음. 이는 해의 영광 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두 번째로 큰 지배력이 있는 창조물로 또한 다른 행성에 관련하여 권능의 열쇠를 지니고 있음. 이는 아브라함이 주를 위하여 쌓은 제단에 희생을 바칠 때 하나님에게서 아브라함에게 계시된 것임.

그림 3. 권능과 권세로 옷을 입으시고 머리에는 영원한 빛의 면류관을 쓰고 자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그려진 것임. 또한 거룩한 신권의 큰 열쇠가 되는 말을 나타냄. 이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보이신 것과 같고 또한 셋, 노아, 멜기세덱, 아브라함 그리고 신권이 계시된 모든 자에게 보이신 것과 같음.

그림 4. 히브리어로 라키양에 해당하며 창공 곧 하늘들의 궁창을 의미함. 또한 숫자로서는 애굽어로 일천을 의미함. 그 회전에 있어서 또 시간의 측정에 있어서 콜롭과 동일한 올리블리슈의 시간의 측정에 해당함.

그림 5. 애굽어로 에니슈-고-온-도슈라 부름. 이는 또한 지배 행성 중의 하나이며, 애굽인은 이를 태양이라 하며, 개-에-반라슈를 매개로 하여 콜롭에서 그 빛을 빌려 옴. 개-에-반라슈는 큰 열쇠 다시 말하면 지배력인 바, 연례 회전에 있어서 플로에세 곧 달, 그리고 지구와 태양을 지배함같이 열 다섯개의 다른 붙박이 행성 곧 별들을 지배함. 이 행성은 클리-플로스-이스-에스 곧 하-코-가-빔, 콜롭의 회전으로부터 빛을 받는 22번과 23번 그림으로 표현되는 별들을 매개로 하여 그 힘을 받음.

그림 6. 이 지구의 사방을 나타냄.

그림 7. 신권의 큰 열쇠가 되는 말을 하늘들을 통하여 나타내시며,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냄. 또한 아브라함에게 비둘기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성신의 표적.

그림 8. 세상에 드러낼 수 없는 기록이 실려 있으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것임.

그림 9. 현재로서는 밝힐 수 없음.

그림 10. 역시 그러함.

그림 11. 역시 그러함. 만일 세상이 이들 수를 찾아낼 수 있으면 그렇게 되게 할지어다. 아멘.

그림 12, 13, 14, 15, 16, 17, 18, 19, 20 및 21은 주께서 친히 정하신 때에 주실 것임.

위의 번역은 현재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진 범위 안에서 제공된 것임.

ㄱ시험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다 ㄴ행하는지를 보리라.

26 그리고 자기의 ㄱ첫째 지체를 지키는 자들은 더하여질 것이요, 자기의 첫째 지체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은 자기의 첫째 지체를 지키는 자들과 함께 같은 왕국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그리고 자기의 ㄴ둘째 지체를 지키는 자들은 그들의 머리 위에 ㄷ영광이 영원무궁토록 더하여지리라.

27 그리고 ㄱ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시니, ㄴ인자 같으신 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고, ㄷ다른 하나도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첫째를 보내리라.

28 이에 ㄱ둘째가 성내어 자기의 첫째 지체를 지키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그 날에 ㄴ많은 자가 그를 따랐더라.

## 제 4 장

*하나님들께서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의 창조를 계획하심—창조의 엿새 동안의 계획이 설명됨.*

그러고 나서 주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내려가자 하시고, ㄱ태초에 그들이 내려가시니라. 그리고 그들 곧 하나님들께서 하늘들과 이 땅을 ㄴ조직하며 지으시더라.

2 그리고 땅은 형체가 이루어진 후에 공허하고 황량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땅 외에는 아무 것도 짓지 아니하신 까닭이라,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를 지배하였고 하나님들의 영은 수면을 조용히 ㄱ덮고 계시더라.

3 그리고 그들(하나님들)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더라.

4 그리고 그들(하나님들)이 빛을 보고 아셨으니, 이는 그것이 밝았음이라. 그들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또는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5 그리고 하나님들께서 빛을 낮이라 일컬으시고 어둠을 밤이라 일컬으시니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저녁부터 아침까지를 그들이 밤이라 일컬으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낮이라 일컬으시니, 이는 그들이 낮과 밤이라 일컬으시는 것의 첫 번째 곧 시작이었더라.

6 그리고 또한 하나님들께서 이르시되, 물 가운데 ㄱ창공이 있고, 그것이 물과 물을 나누게 할지어다 하시니라.

7 그리고 하나님들께서 창공을 명

25ㄱ 교성 98:12~14; 124:55. 안내 선택의지; 구속의 계획.
ㄴ 안내 순종, 순종하는, 순종하다.
26ㄱ 유 1:6.
ㄴ 안내 필멸의, 필멸.
ㄷ 딛 1:2. 안내 영광.
27ㄱ 안내 하나님, 신회—아버지 하나님.
ㄴ 안내 예수 그리스도; 인자.
ㄷ 모세 4:1~2.
28ㄱ 안내 악마.
ㄴ 안내 멸망의 자식들.
4 1ㄱ 창 1:1; 모세 2:1.
ㄴ 안내 창조하다, 창조.
2ㄱ 창 1:2; 모세 2:2.
6ㄱ 창 1:4~6; 모세 2:4.

하시매, 그것이 창공 아래의 물과 창공 위의 물을 나누었으니, 그들이 명하신 대로 그렇게 되니라.

8 그리고 하나님들께서 창공을 ㄱ하늘이라 일컬으시니라. 그리고 이같이 되었나니, 저녁부터 아침까지를 그들이 밤이라 일컬으시고, 또 이렇게 되었나니,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그들이 낮이라 일컬으시니, 이것이 그들이 밤과 낮이라 일컬으신 두 번째 ㄴ때이더라.

9 그리고 하나님들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하늘 아래의 ㄱ물은 ㄴ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땅은 올라와 마르라 하시니, 그들이 명하신 대로 그렇게 되니라.

10 그리고 하나님들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 선언하시고 물이 함께 모인 곳을 그들이 ㄱ큰 물이라 선언하시니, 하나님들께서 보신즉, 그것들이 순종하더라.

11 그리고 하나님들께서 이르시되, 땅을 준비시켜 ㄱ풀과, 씨 맺는 채소와, 그 씨가 그 자체로써 땅 위에 자신과 닮은 것을 내는 열매 맺는 과목을 그 종류대로 내게 하자 하시니, 그들이 명하신 대로 그렇게 되니라.

12 그리고 하나님들께서 땅을 조직하사 풀을 그 씨에서 내게 하시고, 그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를 그 씨에서 내게 하시고, 땅으로 하여금 그 씨가 그 자체로써 그 종류대로 같은 것을 낼 수 있을 따름인 열매 맺는 나무를 그 씨에서 내게 하시니, 하나님들께서 보신즉, 그것들이 순종하더라.

13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날들을 세시며, 저녁부터 아침까지를 그들이 밤이라 일컬으시고, 또 이렇게 되었나니,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그들이 낮이라 일컬으시니 이는 세 번째 때이더라.

14 또 하나님들께서 하늘의 창공에 ㄱ광명체들을 조직하시고 그것들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을 조직하사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시니라.

15 또 그것들을 조직하사 하늘의 창공에 광명체들이 있게 하시고 땅을 비추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6 또 하나님들께서 두 큰 광명체를 조직하시고 ㄱ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작은 광명체와 더불어 그들이 별들도 있게 하시니라.

17 그리고 하나님들께서 하늘의 창공에 그것들을 두사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18 그리고 하나님들께서 그 명하신 것들이 순종하기까지 그것들을 지켜보시니라.

19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저녁부터 아침까지가 밤이었고, 또 이렇게 되었나니,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8ㄱ 안내 하늘.
ㄴ 창 1:8.
9ㄱ 암 9:6; 모세 2:7.
ㄴ 창 1:9.
10ㄱ 창 1:10; 아브 4:22.
11ㄱ 창 1:11~12; 모세 2:11~12.
14ㄱ 교성 88:7~11.
16ㄱ 창 1:16.

낮이었으니, 이는 네 번째 때이더라.
20 그리고 하나님들께서 이르시되, 물을 준비시켜 생명을 가진 움직이는 생물을 풍성히 내게 하고, 새들도 그리하여 하늘의 열린 창공에서 땅 위를 날게 하자 하시고,
21 하나님들께서 물을 준비하사 그것으로 물이 그 종류대로 풍성히 내야 할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큰 ㄱ고래를 내게 하시고, 그리고 날개 가진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내게 하시니라. 하나님들께서 보신즉, 그것들이 순종하고자 하며 그들의 계획이 좋았더라.
22 그리고 하나님들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그것들에게 복을 주어 그것들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바다 곧 ㄱ큰 물에 물을 가득 차게 하고 새들은 땅에서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더라.
23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저녁부터 아침까지를 그들이 밤이라 일컬으시고 또 이렇게 되었나니,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그들이 낮이라 일컬으시니, 이는 다섯 번째 때이더라.
24 그리고 ㄱ하나님들께서 땅을 준비하사 생물을 그 종류대로, 육축과 기는 것들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게 하시니, 그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니라.
25 그리고 하나님들께서 땅을 조직하사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내게 하시니, 하나님들께서 보신즉 그것들이 순종하고자 하더라.
26 그리고 하나님들께서 서로 ㄱ의논하사 이르시되,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의 ㄴ형상대로 우리의 ㄷ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리라.
27 그리하여 ㄱ하나님들께서 내려가 자기들의 형상대로 사람을 조직하시되, 하나님들의 형상대로 그들이 그를 지으시고,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니라.
28 그리고 하나님들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들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그들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게 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리라.
29 또 하나님들께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온 지면에 나게 될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열매를 맺을 모든 나무를 그들에게 주리니, 참으로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그들에게 줄 것이요, 그것들이 그들의 ㄱ먹을거리가 되리라.
30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를 기는 모든 것에게, 보라,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한 그들에게 모든 푸른 채소를

21ㄱ 창 1:21; 모세 2:21.
22ㄱ 아브 4:10.
24ㄱ 안내 하나님, 신회.
26ㄱ 안내 권고.
ㄴ 모세 6:8~10.
ㄷ 안내 사람, 사람들.
27ㄱ 창 1:26~27; 아브 5:7.
29ㄱ 창 1:29~30.

# 아브라함서에서 옮겨온 사본

3

## 설명

그림 1. 왕의 호의로 바로의 보좌에 앉아 있는 아브라함. 하늘의 위대한 회장단의 상징으로서 신권을 나타내는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손에는 정의와 심판의 홀을 들고 있음.

그림 2. 바로 왕. 그의 이름은 그의 머리 위에 있는 문자에 나타나 있음.

그림 3. 사본 1의 그림 10에도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을 의미함.

그림 4. 그 손 위에 쓰인 대로 애굽왕 바로의 왕자.

그림 5. 왕의 시종장 중의 하나인 슐렘. 그의 손 위에 있는 문자가 나타내 주고 있음.

그림 6. 올리믈라. 왕자에게 속한 노예.

아브라함이 왕의 궁정에서 천문의 원리를 강론하고 있음.

먹을거리로 주리니, 이 모든 것들이 이같이 조직되리라.

31 그리고 하나님들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여 그것들을 조직하리니, 보라, 그것들이 매우 잘 순종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저녁부터 아침까지를 그들이 밤이라 일컬으시고 또 이렇게 되었나니,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그들이 낮이라 일컬으시니, 그들이 ㄱ여섯 번째 때를 세시더라.

## 제 5 장

*하나님들께서 만물의 창조의 계획을 마치심—그들이 자기들의 계획대로 창조를 이루심—아담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음.*

그리고 이같이 우리가 하늘들과 이 땅과 그 중의 만물을 완성하리라.

2 그리고 하나님들께서 서로 이르시되, ㄱ일곱 번째 때에 우리가 정한 우리의 일을 끝내리니, 우리가 정한 우리의 모든 일에서 일곱 번째 때에 쉬리라.

3 그리고 일곱 번째 때에 그들(하나님들)이 짓기로 정한 그들의 모든 일에서 ㄱ쉬기로 하셨으므로, 하나님들께서 일곱 번째 때에 끝마치시고 이를 ㄴ성결하게 하셨더라.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하늘들과 땅을 짓기로 서로 정한 때에 내린 결정이었더라.

4 그리고 하나님들께서 내려오사 이러한 내력으로 하늘들과 땅을 지으셨으니, 하나님들께서 땅과 하늘들을 지으시던 날에 이렇게 지어졌으매,

5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ㄱ전에, 또 들의 모든 채소가 자라기 전에 그것들에 관하여 그들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에 좇아 그리 하신 것이라. 이는 하나님들께서 그 일을 행하기로 정하였을 때 땅에 비를 내리게 하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짓지 아니하셨음이더라.

6 그러나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7 그리고 ㄱ하나님들께서 땅의 ㄴ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ㄷ영(이는 곧 그 사람의 영이라)을 취하사 그 사람 안에 넣으시고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ㄹ생령이 되니라.

8 그리고 하나님들께서 동쪽 ㄱ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들이 지으신 몸에 그의 영을 넣은 그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9 하나님들께서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를 자라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ㄱ생명의 나무와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31ㄱ 출 31:17.
**5** 2ㄱ 안내 안식일.
3ㄱ 출 20:8~11; 모사 13:16~19.
ㄴ 교성 77:12.
5ㄱ 안내 영적 창조.
7ㄱ 아브 4:26~31.
ㄴ 모세 4:25; 6:59.
ㄷ 창 2:7; 교성 93:33. 안내 전세; 영.
ㄹ 안내 영혼.
8ㄱ 안내 에덴.
9ㄱ 안내 생명나무.

나무도 자라게 하셨더라.
10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
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
원이 되었으며,
11 하나님들께서 그 사람을 데리
고 와서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가
꾸며 지키게 하시니라.
12 또 하나님들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각종 나무
의 열매는 네가 먹어도 좋으나,
13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때에
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나 아브라함이 보니, 그때는 주의 ㄱ시
간을 따른 것이요, 이는 ㄴ콜롭의 때를
따른 것이었으니, 이는 아직까지 하
나님들께서 아담에게 그의 계산법을
정하여 주지 아니하셨음이더라.
14 또 하나님들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자. 이
는 사람이 홀로 있음이 좋지 아니함
이니,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돕는 배
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15 그리고 하나님들께서 ㄱ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
들이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
로 대신 채우시고,
16 하나님들께서 남자에게서 취하
신 그 갈빗대로 ㄱ여자를 지으시고 그
를 그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17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었도다. 그를 남
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이제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18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
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ㄱ합하여 둘이 ㄴ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니라.
19 남자와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20 그리고 하나님들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공중의 새를 지
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
시려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
가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21 그리고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
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
을 주니라. 또 아담을 위하여 그를 돕
는 배필이 있더라.

13ㄱ 벧후 3:8.
ㄴ 아브 3:2~4.
안내 콜롭.
15ㄱ 안내 아담.
16ㄱ 안내 이브.
18ㄱ 교성 42:22; 49:15~16.
ㄴ 안내 결혼, 결혼하다.

## 18 *31년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계시된 성경 번역에서 발췌한 것: 마태 23:39 및 24장.*

***예수께서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심—또한 그는 인자의 재림과 악인의 멸망에 관하여 설교하심.***

**무릇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의 이름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ㄱ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하고 너희가 말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내가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인 줄 알지 못하리라. 그때에 그의 제자들이 그가 영화롭게 되사 ㄴ하나님의 우편에서 면류관을 쓰신 후에 땅에 다시 오시리라 함을 깨닫더라.**

**2 그리고 예수께서 나가사 성전에서 떠나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와서 아뢰되, 주여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성전 건물이 무너져 너희에게 황폐하여 버려지리라 하셨으매 그에 관하여 우리에게 보이소서.**

**3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고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이 성전 위에 ㄱ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4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ㄱ감람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그리고 예수께서 감람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아뢰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당신께서 성전과 유대인의 멸망에 관하여 말씀하신 이러한 일이 어느 때에 있겠사오며, 또 주의 ㄴ임하심과 세상 ㄷ끝 곧 세상의 종말인 ㄹ악인의 멸망에는 무슨 ㅁ징조가 있사오리이까?**

**5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6 이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나는 그리스도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임이니라.**

**7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ㄱ고난당하도록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ㄴ미움을 받으리라.**

**8 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 1ㄱ 마 26:64; 행 1:11.
ㄴ 안내 하나님, 신회.
3ㄱ 눅 19:44.
4ㄱ 안내 감람 산.
ㄴ 안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ㄷ 안내 세상—세상의 끝.
ㄹ 말 4:1; 교성 133:64~74. 안내 사악한, 사악.
ㅁ 눅 21:7~36; 교성 45:16~75. 안내 마지막 날, 후일; 표적, 시대의.
7ㄱ 벧전 4:12~14.
ㄴ 안내 박해하다, 박해.

9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자를 미혹하겠으며,

10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자의 ㄱ사랑이 식어지리라.

11 그러나 굳건히 견디며 지지 아니하는 자, 그 같은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2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ㄱ다니엘이 ㄴ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하여 말한 바 멸망의 ㄷ가증한 것을 보거든 그때 너희는 ㄹ거룩한 곳에 설지니,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13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ㄱ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4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도망하고, 자기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며,

15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16 그 날에는 ㄱ아이 밴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17 그러므로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 기도하라.

18 이는 그때 그 날에 큰 환난이 ㄱ유대인과 ㄴ예루살렘 주민에게 있겠음이라, 그들의 왕국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환난을 보내신 적이 없었고 후에도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보내지 아니하시리라.

19 그들에게 임한 모든 일은 다만 그들에게 임할 슬픔의 시작일 따름이니라.

20 그 날들이 감하여지지 아니하면, 그들 중 아무 육체도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로되,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성약에 따라 그 날들이 감하여지리라.

21 보라, 이 일들은 내가 유대인에 관하여 너희에게 이른 것이어니와, 또다시 예루살렘에 임할 그 날의 환난 후에 어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그를 믿지 말라.

22 이는 그 날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성약에 따라 택함 받은 자인 바로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게 할 것임이니라.

23 보라, ㄱ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노라. 또한 너희는 ㄴ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닌 까닭이니라.

24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25 그런즉 만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며,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10ㄱ 교성 45:27.
12ㄱ 안내 다니엘.
ㄴ 안내 예루살렘.
ㄷ 단 12:11.
ㄹ 교성 101:22~25.
13ㄱ 교성 133:13.
16ㄱ 눅 23:29~30.
18ㄱ 안내 유대인.
ㄴ 슥 12; 14:1~5.
23ㄱ 안내 택함 받은 자.
ㄴ 교성 45:26.

26 이는 아침 햇살이 ㄱ동편에서 나와 서편까지 비치며 온 땅을 덮음같이 인자의 임함도 또한 그러할 것임이니라.

27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한 비유를 보이노라. 보라, 어디든지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리니, 그와 같이 나의 택함 받은 자들이 땅의 사방에서 ㄱ집합하리라.

28 또 그들이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으리라.

29 보라, 내가 나의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말하노니, 나라가 나라를,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ㄱ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라.

30 그리고 또, 불법이 성하므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지지 아니하는 자, 그 같은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31 그리고 또,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나라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ㄱ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 곧 악인의 멸망이 오리라.

32 그리고 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33 그 날들의 환난 후에 즉시 ㄱ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4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일들을 보게 될 이 세대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35 그 날이 이르러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나의 ㄱ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36 그리고 내가 앞서 말한 것같이 그 날들의 ㄱ환난 후에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 후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ㄴ오는 것을 보리라.

37 누구든지 나의 ㄱ말을 간직하는 자는 미혹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는 인자가 올 것임이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의 ㄴ천사들을 그 앞에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심을 입은 자의 남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ㄷ모을 것임이니라.

38 이제 ㄱ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그 가지가 아직 연하고 나무가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39 이와 같이 나의 택함 받은 자들,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볼 때 그들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리라.

40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ㄱ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하나님

26ㄱ 겔 43:2.
27ㄱ 안내 이스라엘—이스라엘의 집합.
29ㄱ 교성 43:24~25.
31ㄱ 마 28:19~20.
33ㄱ 욜 2:10; 교성 29:14.
35ㄱ 교성 1:38.
36ㄱ 조마 1:18.
ㄴ 안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37ㄱ 안내 경전.
ㄴ 교성 29:11~15.
ㄷ 안내 이스라엘—이스라엘의 집합.
38ㄱ 교성 35:16.
40ㄱ 교성 39:20~21; 49:7.

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41 그러나 ㄱ노아의 때에 그러하였던 것같이 인자가 임할 때에도 또한 그러하리니,

42 이는 ㄱ홍수 전의 그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그러할 것임이라. 무릇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43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알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44 그때에 기록된 것이 이루어지리니, 곧 ㄱ마지막 날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매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ㄴ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5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으매,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리라.

46 내가 한 사람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 그러므로, ㄱ깨어 있으라.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7 그러나 이를 알지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을 뚫게 버려두지 아니하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으리라.

48 그러므로 너희도 또한 준비하고 있으라. 이는 너희가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옴이니라.

49 그러면 ㄱ충실하고 지혜있는 종이 되어 그의 주인에게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50 주인이 올 때에 그의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가 맡게 하리라.

51 그러나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이르기를, 나의 주인이 오심을 ㄱ늦추시리라 하여

52 그의 동료 종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기 시작하면

53 그가 예상하지 않은 날, 깨닫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54 그를 끊어내고 그의 분깃을 외식하는 자들과 함께 정하리니, 거기서 울며 ㄱ이를 갊이 있으리라.

55 그리고 그들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한 모세의 예언에 따라 이같이 악인의 ㄱ끝이 임하거니와, 세상의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러나 멀지 아니하였도다.

41ㄱ 창 6:5.
42ㄱ 안내 홍수, 노아 시대의.
44ㄱ 안내 마지막 날, 후일.
ㄴ 슥 13:8.
46ㄱ 안내 살펴보다, 파수꾼.
49ㄱ 안내 신뢰.
51ㄱ 교성 45:26.
54ㄱ 마 8:12.
55ㄱ 니후 30:10; 교성 1:9~10; 29:17. 안내 세상—세상의 끝.

# 조셉 스미스—역사

##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역사 발췌문

*교회사* 1권 1장에서 5장까지

*조셉 스미스가 자신의 선조와, 가족, 그리고 그들이 처음 살았던 곳들에 대해 말함—종교에 대한 이례적인 동요가 서부 뉴욕 주에 널리 퍼짐—그는 야고보가 지시한 대로 지혜를 구하기로 결심함—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나타나심. 그리고 조셉은 선지자로서의 성역에 부름 받음(1절~20절).*

**예** 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ㄱ교회의 ㄴ일어남과 발전에 관련하여 악의를 품은 교활한 사람들이 유포시킨 소문이 많으며, 이 모든 것은 그것을 지어낸 사람들이 이 교회의 교회로서의 명성과 세상에서의 발전을 저해하려 기도한 것이므로—나는 세간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 자신과 교회에 관련된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일어난 그대로 알리기 위해 이 역사를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2 이 역사에서 나는 이 교회에 관련된 여러 사건을 일어났던 그대로 또는 현재 있는 그대로 진실하고 올바르게 진술하겠거니와, 본 교회는 이제 ㄱ조직된 지 팔 년째(1838년)가 된다.

3 ㄱ나는 우리 주의 해로 일천팔백 오년 십이월 이십삼일에 버몬트 주 윈저 군 샤론 읍에서 태어났다. … 내 나이 아홉 살이던가 혹 그 무렵에 나의 부친 ㄴ조셉 스미스 일세는 버몬트 주를 떠나 뉴욕 주 온타리오 (현재의 웨인) 군 팔마이라로 이사하였다. 팔마이라로 온 지 약 사 년째 되던 해에 나의 부친은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같은 온타리오 군 내에 있는 맨체스터로 이사하였다—

4 그의 가족은 모두 열한 사람인데, 곧 나의 부친 ㄱ조셉 스미스와 나의 ㄴ모친 루시 스미스 (결혼하기 이전의 성은 맥으로, 솔로몬 맥의 딸이었다), 나의 형제들인 ㄷ앨빈 (1823년 11월 19일, 그의 나이 25세로 사망하였다), ㄹ하이럼, 나, ㅁ새뮤얼 해리슨, 윌리엄, 돈 칼로스와 나의 누이들인 소프로니아, 캐더린 그리고 루시이다.

5 우리가 맨체스터로 이사 온 지 이 년째 되던 해의 어느 때에, 우리가 살고 있던 곳에 종교 문제에 대한 이

**1** 1ㄱ 안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ㄴ 안내 복음의 회복.
2ㄱ 교성 20:1.
3ㄱ 안내 스미스, 조셉, 이세.
ㄴ 니후 3:15.
4ㄱ 안내 스미스, 조셉, 일세.
ㄴ 안내 스미스, 루시 맥.
ㄷ 교성 137:5~6.
ㄹ 안내 스미스, 하이럼.
ㅁ 안내 스미스, 사무엘 에이치.

례적인 동요가 일어났다. 그것은 감리교에서 시작되었으나, 곧 그 지방에 있는 모든 교파에 퍼지게 되었다. 실로 그 지방의 온 지역이 동요에 휘말린 것 같았는데, 큰 무리가 서로 다른 종파에 가담하였고, 이것은 백성들 사이에 적지 않은 소란과 분열을 일으켰다. 어떤 이들은 [ㄱ]"여기를 보라" 다른 이들은 "저기를 보라"고 외쳤다. 어떤 이들은 감리교를, 어떤 이들은 장로교를, 또 어떤 이들은 침례교를 위하여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6 이들 여러 교파로 개종한 개종자들이 개종할 때에 표현했던 큰 사랑에도 불구하고, 또 이 종교적 감정의 심상치 않은 장면을 일으키며 조장하는 데 적극적인 여러 교회의 목사들이, 그들이 즐겨 부르는 대로, 모든 사람을 개종시키기 위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교파에 가입하게 하라며 나타냈던 큰 열의에도 불구하고, 개종자들이 갈라지기 시작하여 누구는 이 종파, 누구는 저 종파에 속하자, 성직자나 개종자 모두의 좋아보였던 감정은 사실보다는 가식적인 것 같았다. 왜냐하면 이에 의해 대혼란과 악감정이 뒤따랐으며—성직자는 성직자와, 개종자는 개종자와 다투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들이 가졌던 서로에 대한 좋은 감정은, 설령 그들이 조금이라도 가졌었다 해도, [ㄱ]언쟁과 의견 충돌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기 때문이다.

7 그 당시 나는 열네 살이었다. 내 친가에는 장로교파가 전파되었는데, 그 중 네 사람, 곧 나의 모친 루시, 나의 형제들인 하이럼, 새뮤얼 해리슨, 그리고 누이 소프로니아가 그 교회에 가입하였다.

8 이 커다란 동요의 시기에 내 마음은 진지한 묵상에 잠기는 한편 심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러나 비록 나의 감정이 깊고 종종 강렬하기까지 하였고, 비록 사정이 허락할 때마다 자주 그들의 집회에 참석하였으나, 여전히 나 자신은 이 모든 종파에서 떨어져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 마음은 어느 정도 감리교파에 호의를 가지게 되었고, 그에 속하고자 하는 소망을 얼마간 느꼈으나, 다른 종파들 사이에 혼란과 다툼이 너무 컸으므로 어리고 세상사에 미숙한 나로서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어떤 확실한 결론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했다.

9 내 마음은 때때로 크게 흥분되었으며, 부르짖음과 소란은 매우 크고 그칠 새가 없었다. 장로교도는 침례교도와 감리교도에 대해 가장 단호하게 반대 의사를 나타내었고 그들의 잘못을 증명하기 위해, 또는 적어도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 온갖 논리와 궤변을 다 사용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침례교도와 감리교도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교리를 세우고 다른 모든 교리가 그릇됨을 증명하려고 노력함에 있어 똑같이 열

5ㄱ 마 24:23.

6ㄱ 안내 다툼.

성적이었다.

10 이러한 언쟁과 의견의 혼돈 속에서 나는 종종,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든 교파 중에 누가 ㄱ옳은가? 아니면 그들 모두가 다 그릇된 것인가? 만일 그들 중 어느 하나가 옳다면, 그것은 어느 것이며, 나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하고 자문해 보았다.

11 내가 이들 종교적 열성자들의 논쟁으로 야기된 극심한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루는 야고보서 일 장 오 절을 읽고 있었다. 그 곳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 있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12 경전의 어느 구절도, 이때 이 구절이 내 마음에 임한 것보다 더 힘차게 사람의 마음에 임한 적은 결단코 없었다. 그 구절은 마치 큰 힘을 지니고 내 마음의 느낌 속으로 속속들이 파고드는 것 같았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나는 거듭거듭 이 구절에 대해 깊이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나는 몰랐고, 또 내가 그때 가지고 있던 것 이상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 전에는 나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서로 다른 교파의 종교 교사들이 같은 성경 구절을 너무나 서로 다르게 ㄱ이해하여, ㄴ성경에 호소하여 의문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모든 신념이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이었다.

13 드디어 나는 암흑과 혼란 속에 머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야고보가 지시하는 대로, 즉 하나님께 구하든가 해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나는 마침내 ㄱ"하나님께 구하기로" 결심하였는데, 이는 만일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면 내가 해 보리라고 결론지었기 때문이었다.

14 그래서 이 결심 곧 하나님께 구하기로 한 나의 결심에 따라 나는 그렇게 해 보고자 숲으로 들어갔다. 때는 일천팔백이십년 이른 봄 아름답고 맑게 갠 날 아침이었다. 내가 그러한 시도를 한 것은 나의 평생에 처음이었는데, 이는 나의 모든 염려 중에서도 내가 아직 소리 내어 ㄱ기도하기를 시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15 내가 이전에 가고자 계획했던 곳으로 들어간 뒤에 주위를 살펴 나 혼자임을 확인한 후, 나는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나는 나를 완전히 압도하는 어떤 힘에 사로잡혔고, 그 힘이 놀라운 영향력을 내게 미쳐 내 혀를 묶어서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캄캄한 어둠이 내 주위에 모여들었

10ㄱ 안내 진리.
12ㄱ 고전 2:10~16.
ㄴ 안내 성경.
13ㄱ 안내 기도.
14ㄱ 안내 기도.

고, 한동안은 내가 갑작스런 멸망을 당할 운명에 놓인 것만 같았다.

16 그러나 나를 사로잡은 이 원수의 힘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도록 하나님을 ㄱ부르고자 내 온 힘을 다하면서도, 내가 막 절망 속으로 가라앉아 멸망에—상상 속의 멸망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에게서도 전에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놀라운 힘을 가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온 어떤 실제적인 존재의 힘에—금방이라도 내 자신을 포기할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이 큰 공포의 순간에, 나는 내 머리 바로 위에 ㄴ해보다도 더 밝은 ㄷ빛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기둥은 점차 내려와 이윽고 내게 임하였다.

17 그 빛기둥이 나타나자마자 나는 나를 결박했던 원수에게서 풀려났음을 깨달았다.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나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와 ㄱ영광을 지닌 ㄴ두 분이 내 위, 공중에 서 계신 것을 ㄷ보았다. 그 중 한 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이는 내 ㄹ사랑하는 ㅁ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하셨다.

18 내가 주께 ㄱ묻기 위해 갔던 목적은 모든 교파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를 알아 어디에 가입해야 할지를 알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내가 정신을 차려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자마자 나는 즉시 내 위에 빛 가운데 서 계시는 두 분께 모든 교파 중에 어느 것이 옳으며 (이때까지는 모두가 그르다는 생각을 내 마음에 품어 본 적이 없었다.)—내가 어디에 가입해야 할 것인가를 물었다.

19 내가 받은 대답은 그 중 어디에도 가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그들이 모두 ㄱ그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나에게 말씀하신 분은, 그들의 모든 신조는 그가 보시기에 가증하며 그 신자들은 모두 부패하였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ㄴ가까이 하나 그들의 ㄷ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며, 그들은 사람의 ㄹ계명을 교리로 가르치고, 경건의 ㅁ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도다"라고 하셨다.

20 그분은 다시 나에게 그 중 어디에도 가입하는 것을 금하셨으며, 다른 많은 것을 내게 말씀해 주셨으나 그것을 지금 기록할 수는 없다. 내가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 나는 내가 하늘을 쳐다보며 똑바로 누워 있음을 알았다. 그 빛이 떠났을 때 나는 기운이 없었으나 곧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집으로 갔다. 그리고 내가 벽난로에 기대어 있을 때, 모친은 무슨 일인

16ㄱ 모세 1:20.
ㄴ 계 1:16.
ㄷ 행 26:13.
17ㄱ 안내 영광.
ㄴ 행 7:55~56; 골 3:1.
안내 하나님, 신회.
ㄷ 안내 시현.
ㄹ 마 3:17; 17:5; 3니 11:7.
ㅁ 안내 예수 그리스도.
18ㄱ 교성 6:11; 46:7.
19ㄱ 시 14.
안내 배도—초대 기독교 교회의 배도.
ㄴ 사 29:13~14; 겔 33:30~31.
ㄷ 안내 배도—일반적인 배도.
ㄹ 딛 1:14; 교성 45:29.
ㅁ 딤후 3:5.

지 물으셨다. 나는 이에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게 잘 되었어요—전 정말 괜찮아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고 나서 나는 내 모친께 말씀드리기를 "장로교가 참되지 않다는 것을 내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ㄱ대적은 내가 그의 왕국을 방해하며 괴롭히는 자가 되기로 정해진 것을 내 생애의 아주 이른 시기에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왜 어둠의 세력들이 연합하여 나를 대적하였겠는가? 왜 어린아이나 다름없는 나에 대하여 ㄴ반대와 박해가 일어났겠는가?

*일부 목사와 다른 종교 신자들이 첫번째 시현의 이야기를 거부함—박해가 조셉 스미스에게 가해짐—그가 시현의 실재성에 대해 증언함(21절~26절).*

21 나에게 이 ㄱ시현이 있은 지 며칠 후, 나는 감리교 목사 한 사람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는데, 그는 앞서 언급한 종교적 동요 속에서 매우 활동적이었다. 나는 종교 문제에 관하여 그와 대화를 나누다가 기회가 되어 그에게 나에게 있었던 시현을 이야기하였다. 나는 그의 행동에 매우 놀랐는데, 그는 내 이야기를 가볍게 취급할 뿐만 아니라 매우 경멸하였으며, 그것은 모두 악마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오늘날 ㄴ시현이나 ㄷ계시 같은 것은 없으며, 그러한 일은 모두 사도들과 함께 이미 그쳤고, 결코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22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한 이야기가 종교 신자들 사이에서 내게 대한 큰 편견을 야기하였고 심한 ㄱ핍박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으며, 핍박은 계속 커져갔다. 비록 내가 겨우 나이가 십사오 세에 불과한 ㄴ이름 없는 소년이었고, 생활 상태로 보더라도 세상에서 보잘것 없는 소년이었으나, 그럼에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큰 관심을 가지고, 나에 대한 민심을 선동하여 심한 핍박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교파에 공통적이었으니, 모두가 연합하여 나를 핍박하였던 것이다.

23 이것은 당시 나로 하여금 진지한 숙고를 하게 만들었으며, 이후로도 종종 그리하였다. 참으로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만 십사 세를 갓 넘긴 무명의 소년이자, 또한 하루하루 일하여 부족한 생계비를 벌어야 하는 처지의 소년이 그토록 중요한 인물로 여겨져 당시의 제일 유명한 교파들의 큰 어른들의 주의를 끌며 그들 내부에 극심한 핍박과 비방의 태도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 그러나 이상하든 아니든 그것은 사실이었으며 그것은 종종 나에게 큰 슬픔의 원인

20ㄱ 안내 악마.
ㄴ 니후 2:11; 교성 58:2~4. 안내 역경.

21ㄱ 안내 첫번째 시현.
ㄴ 안내 시현.
ㄷ 안내 계시.

22ㄱ 약 5:10~11. 안내 박해하다, 박해.
ㄴ 삼상 16:7; 앨 37:35.

이 되었다.

24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현을 보았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 이래로 나는 내가 ㄱ바울과 매우 비슷하게 느꼈다고 생각해 왔으니, 그가 아그립바 왕 앞에서 자신을 ㄴ변호하며 그가 빛을 보고 음성을 들었을 때 그에게 있었던 시현에 대하여 이야기했어도, 그를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며, 일부는 그가 거짓말한다고 하였고, 다른 이들은 그가 미쳤다고 말하였다. 또 그는 조롱당하고 욕설을 들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의 시현의 실재성을 파괴하지는 못하였다. 그는 시현을 보았고 자기가 보았음을 알았으며, 하늘 아래 어떠한 핍박도 그것을 변경시킬 수 없었다. 비록 사람들이 그를 핍박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이 빛을 보았으며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의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알고 있었을 것이며, 온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로 하여금 다르게 생각하게 하거나 믿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25 나의 경우도 그러하였다. 나는 실제로 빛을 보았고 그 빛 가운데서 두 ㄱ분을 보았으며, 그분들은 실제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비록 내가 시현을 보았다고 말함으로써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하여 그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욕하고 나에 대하여 모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때,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진실을 말하는데 왜 나를 핍박하는 것일까? 나는 실제로 시현을 보았는데 내가 누구관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 왜 세상은 내가 실제로 본 것을 나로 하여금 부인하게 하려 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나는 시현을 보았기 때문이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었기에, 나는 그 사실을 ㄴ부인할 수 없었으며 감히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거스려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과 정죄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26 이제 나는 세상의 교파 문제에 관한 한 내 마음에 만족을 얻었으니—그 어느 곳에도 가입할 의무가 내게는 없으며 다만 추후의 지시가 주어질 때까지 이대로 계속해 나가면 되었다. 나는 야고보의 ㄱ증언 즉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면 얻을 것이요 꾸짖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참됨을 알았다.

*모로나이가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남—조셉의 이름이 모든 나라 가운데 좋게도 나쁘게도 알려지게 될 것임—모로나이가 몰몬경에 관하여 또 다가올 주의 심판에 관하여 이야기*

24ㄱ 안내 바울.
ㄴ 행 26:1~32.
25ㄱ 조역 1:17.
ㄴ 안내 용기, 용기있는; 고결.
26ㄱ 약 1:5~7.

*하며 경전 구절을 많이 인용함—금판이 감추어져 있는 곳을 알려 줌—모로나이가 계속하여 선지자를 가르침(27절~54절).*

27 내가 시현을 보았다고 계속 확언하였으므로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을 막론하고 온갖 부류의 사람들에게서 끊임없이 심한 핍박을 받으면서 나는 일천팔백이십삼년 구월 이십일일까지 나의 평범한 생업에 계속 종사해 오고 있었다.

28 내가 시현을 본 때로부터 일천팔백이십삼년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의 기간 동안—나는 당시의 어느 교파에도 가입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었고 매우 어린 나이였는데다 나의 친구가 되어 주고 친절히 나를 대해 주며, 만일 내가 미혹되었다고 생각되면 나를 돌이키기 위해 적절하고도 애정에 찬 방법으로 애써야 마땅할 사람들에게서 핍박을 받았으므로—나는 온갖 [ㄱ]유혹에 노출되었으며, 온갖 부류의 무리와 어울리면서 자주 많은 어리석은 잘못에 빠졌고, 젊음의 약점과 인간 본성의 결점을 드러냈으며, 말하기 송구스럽지만, 이것은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거슬리는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게 하였다. 이러한 고백을 한다고 해서 내가 어떠한 큰 죄나 사악한 죄를 범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러한 죄를 범할 기질은 결코 내 본성에 있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경망한 언행의 잘못을 범하였고 때로 명랑한 무리들과 어울리는 등, 하나님에게서 내가 받은 것과 같은 [ㄴ]부르심을 받은 자가 마땅히 유지하여야 할 성격과는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나의 타고난 쾌활한 성격을 아는 어떤 사람에게도 그다지 이상하게 생각되지는 않을 것이다.

29 이러한 일의 결과로 나는 종종 나의 약점과 불완전함으로 인해 정죄받는 느낌을 가졌다. 그리하여 앞서 말한 구월 이십일일 저녁에 자려고 침실에 들어간 후 나는 나의 모든 허물과 어리석음을 사해 주실 것과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처지와 입장을 알 수 있도록 나에게 나타내 주실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힘을 다해 [ㄱ]기도하며 간구하였다. 왜냐하면 내가 이전에 얻은 것 같이 신성한 나타내심을 얻을 수 있다는 전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30 내가 이같이 하나님을 부르며 간구하고 있을 때, 나는 한 줄기 빛이 내 방에 깃들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 빛이 점점 퍼져 마침내 내 방은 한낮보다도 더 밝아지더니 홀연히 [ㄱ]누가 내 침대 곁에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때 그의 발이 마룻바닥에 닿지 않았으므로 나는 그가 공중에서 있음을 알았다.

31 그는 좀 늘어진 지극히 [ㄱ]흰 성의를 걸치고 있었으며 그 흰색이야

28 [ㄱ] 안내 유혹하다, 유혹.
[ㄴ] 안내 부르다, 하나님에게서 부름 받은, 부름.
29 [ㄱ] 안내 기도.
30 [ㄱ] 안내 천사; 모로나이, 몰몬의 아들.
31 [ㄱ] 행 10:30; 니전 8:5; 3니 11:8.

말로 내가 이 세상에서 보지도 못한 것이었고, 세상에 그토록 희고 찬란한 것이 있다고는 믿기조차 어려운 것이었다. 그의 손은 드러나 있었고 손목 조금 위에까지 팔도 드러나 있었으며 발도 벗은 채였고 발목 조금 위까지 다리도 드러나 있었다. 또한 머리와 목도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드러나 있었고 그가 입은 성의가 열려 있어 앞가슴이 들여다보였으며 그리하여 나는 그가 그 외에 다른 옷을 입지 않았음을 알았다.

32 그의 성의만이 그토록 흰 것이 아니라 그의 온 몸이 형용할 수조차 없이 [ㄱ]희었으며 그의 얼굴은 [ㄴ]번갯불처럼 빛났고 방이 그토록 밝은데도 그의 주변은 더욱 밝았다. 처음에 나는 그를 보고 [ㄷ]두려워하였으나 곧 두려움은 내게서 물러갔다.

33 그는 나의 [ㄱ]이름을 부르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내게 보내진 천사 모로나이임을 밝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실 일이 있다는 것을 전하였으며, 나의 이름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 좋게도 전하여지고 나쁘게도 전하여지며 모든 백성의 입에 좋게도 오르내리며 나쁘게도 오르내리리라고 말하였다.

34 그는 이 대륙의 옛 주민에 관한 기사와 그들이 어디서 왔는가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는, [ㄱ]금판에 씌어진, [ㄴ]책이 묻혀 있다고 전하면서, 그 책에는 구주께서 친히 고대 주민들에게 전하신 바 영원한 복음의 [ㄷ]충만함이 또한 실려 있다고 하였다.

35 또한 은테에 물린 돌 두개가 있는데—[ㄱ]가슴판에 연결된 이 돌들은 [ㄴ]우림과 둠밈이라 불리는 것을 이루며—판과 함께 묻혀 있고, 이 돌들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고대 곧 예전에는 [ㄷ]"선견자"가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책을 번역할 목적으로 이를 마련해 두셨다고 하였다.

36 이러한 것들을 내게 말한 다음 그는 [ㄱ]구약전서의 예언들을 인용하기 시작하였다. 우리의 성경에 나오는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는 먼저 [ㄴ]말라기서 삼 장의 일부를 인용하였고 또한 같은 예언서의 마지막 장인 사 장을 인용하였다. 그는 그 일 절을 우리의 책에 나오는 대로 인용하는 대신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37 *보라, 용광로같이 [ㄱ]타는 [ㄴ]날이 이르리니, 모든 교만한 자와 참으로 모든 악하게 행하는 자는 다 [ㄷ]지푸라기같이 타리라. 이는 오는 자들이 그들을 사르리니, 만군의 주가 이르노*

32 [ㄱ] 3니 19:25. 안내 영광.
[ㄴ] 출 34:29~35; 힐 5:36; 교성 110:3.
[ㄷ] 출 3:6; 이더 3:6~8, 19.
33 [ㄱ] 출 33:12, 17; 사 45:3~4.
34 [ㄱ] 안내 금판.
[ㄴ] 안내 몰몬경.
[ㄷ] 안내 복음의 회복.
35 [ㄱ] 레 8:8. 안내 놋쇠판.
[ㄴ] 출 28:30. 안내 우림과 둠밈.
[ㄷ] 안내 선견자.
36 [ㄱ] 안내 구약.
[ㄴ] 안내 말라기.
37 [ㄱ] 3니 25:1~6; 교성 64:23~24. 안내 지구—지구가 깨끗하게 됨; 세상—세상의 끝.
[ㄴ] 안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ㄷ] 나 1:8~10; 니전 22:15, 23; 니후 26:4~6; 교성 29:9.

*라, 그 뿌리와 가지도 남기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38 그리고 또, 그는 그 오 절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보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선지자 ㄱ엘리야의 손으로 너희에게 ㄴ신권을 드러내리라.*

39 그는 또한 그 다음 구절을 다르게 인용하였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들에게 한 ㄱ약속들을 자녀들의 마음에 심을 것이요, 자녀들의 마음은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ㄴ돌이키리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오실 때에 온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리라.*

40 이에 덧붙여 그는 이사야 십일 장을 인용하며 이르기를, 이것은 바야흐로 성취되려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사도행전 삼 장 이십이, 이십삼 절을 우리의 신약전서에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인용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그 ㄱ선지자는 그리스도시라 하였고 그러나 "그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ㄴ끊어버림을 당할" 그 날이 아직은 오지 아니하였으나 곧 이르리라고 하였다.

41 그는 또한 ㄱ요엘서 이 장 이십팔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인용하고 또한 이르기를, 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곧 이루어질 것이라 하였다. 덧붙여 그는 말하기를 ㄴ이방인의 충만함이 곧 임하리라고 하였다. 그가 다른 많은 경전 구절을 인용하고 많은 설명을 해 주었으나 그것을 여기에 언급할 수는 없다.

42 또 그는 말하기를, 자신이 말한 그 판을 내가 가지게 되면—이는 그 판을 얻게 될 때가 아직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다—나는 아무에게도 그것을 보여서는 안 되며, 우림과 둠밈이 달린 가슴판도 그러하되, 다만 그것들을 보여 주도록 내가 명령 받은 사람들에게만 보여야 하고, 만일 그 외의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 준다면 나는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가 판에 관하여 나와 대화하는 사이 내 ㄱ마음 가운데는 시현이 열려 나는 판이 묻힌 곳을 선명하고 뚜렷하게 볼 수 있었으며, 그리하여 내가 그 곳을 찾아갔을 때 나는 바로 그 곳임을 알았다.

43 이러한 교통 후에 내가 보매, 방안에 있던 빛이 내게 말씀하시던 분의 주위로 즉시 모이기 시작하더니 계속하여 그렇게 되다가, 이윽고 그의 바로 주위만 밝을 뿐 방안은 또다시 어두워졌다. 그러다가 홀연히 전과 같이 하늘 바로 위로 통로가 열리는 듯하더니 그는 올라가 드디어는 보이지 아니하였고, 방안은 다시 하늘의 빛이 깃들기 이전처럼 되었다.

44 나는 누운 채로 그 특이한 광경을 마음에 두고 특별한 임무를 지닌 사자가 내게 전해 준 바를 크게 기이하게 생각하며 있었는데, 그러면서

38ㄱ 교성 27:9; 110:13~16. 안내 엘리야.
ㄴ 안내 열쇠, 신권의; 신권.
39ㄱ 갈 3:8, 19.
ㄴ 안내 계보; 구원, 죽은 자를 위한.
40ㄱ 신 18:15~19.
ㄴ 3니 20:23; 21:20.
41ㄱ 행 2:16~21.
ㄴ 롬 11:11~25; 교성 88:84. 안내 이방인.
42ㄱ 안내 생각.

ㄱ명상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나는 내 방에 다시 빛이 들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전과 같이 순식간에 바로 그 하늘의 사자가 다시 내 침대 곁에 있었다.

45 그는 이야기를 시작하여 처음 방문 때 전하였던 말을 한 마디도 틀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시 전하였고, 그런 후에, 기근과 검과 역병으로 인한 큰 황폐로 큰 심판이 땅 위에 임하며 이 두려운 심판이 이 세대에 이 땅에 임하리라는 것을 내게 알려 주었다. 이 말을 마친 뒤 그는 다시 그 전처럼 하늘로 올라갔다.

46 이때에 이르러서는 내가 받은 인상들이 내 마음에 깊게 새겨져 잠은 내 눈에서 달아나 버렸고 나는 보고 들은 일에 놀라워하며 압도되어 누워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사자를 다시 내 침대 곁에서 보고, 그가 그전과 똑같은 말을 내게 반복하여 되풀이하는 것을 들었을 때, 나는 더욱 놀라고 말았다. 그는 덧붙여 내게 주의를 주며 말하기를 (내 친가의 궁핍한 형편 때문에) 재물을 얻을 목적으로 그 판을 취하도록 ㄱ사탄이 나를 ㄴ유혹하려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나에게 이를 금하면서 내가 그 판을 얻음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목적 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도 있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는 것 외에 다른 어떠한 ㄷ동기에도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47 이 세 번째 방문 후에 그는 그전처럼 다시 하늘로 올라갔고 나는 다시 내가 방금 겪은 기이한 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하늘의 사자가 세 번째로 내게서 떠나 올라간 거의 직후에 닭이 울었고, 나는 동이 트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우리의 대화가 밤새도록 계속되었음을 알았다.

48 잠시 후에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평상시대로 해야 할 일을 하러 갔다. 그러나 다른 때처럼 일을 하려 하였을 때 나는 기력이 너무나 소진되어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나와 함께 일하던 부친이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는 줄 알고 나더러 집에 가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집으로 가려는 생각으로 출발하였으나 우리가 있던 밭의 울타리를 지나려 하였을 때, 완전히 기진하여 땅에 쓰러졌으며, 나는 한동안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했다.

49 내가 생각해 낼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내 이름을 부르며 나에게 말을 거는 음성이었다. 내가 쳐다보니, 바로 그 사자가 그전처럼 빛에 둘러싸여 내 머리 위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이어서 그는 또다시 지난밤에 내게 전하였던 말을 모두 나에게 다시 말하고, 내 ㄱ부친에게 가서 내가 받은 시현과 계명에 대해 말씀드리라

44ㄱ 안내 깊이 생각하다.
46ㄱ 안내 악마.
ㄴ 안내 유혹하다, 유혹.
ㄷ 교성 121:37.
49ㄱ 안내 스미스, 조셉, 일세.

고 내게 명했다.

50 나는 순종하여 밭에 계시는 부친에게 돌아가 그에게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다. 부친은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하시며 내게 사자가 명한 대로 가서 행하라고 하셨다. 나는 밭을 떠나 사자가 판이 묻혀 있다고 했던 장소로 갔고, 그에 관해 내가 보았던 시현이 뚜렷했던지라 나는 그 곳에 도착하자마자 그 자리를 알 수 있었다.

51 뉴욕 주 온타리오 군 맨체스터 마을 인근에, 그 근방에서는 제일 높은 큼직한 ㄱ산이 하나 있다. 정상에서 멀지 않은 이 산 서편, 큼지막한 돌 밑에 판이 있었는데 돌 상자 속에 놓여 있었다. 이 돌은 위쪽 중앙 부분이 두껍고 둥글며 가장자리로 갈수록 얇게 되어 있어서 그 중앙 부분은 땅 위로 드러나 보였지만 가장자리는 모두 흙으로 덮혀 있었다.

52 나는 흙을 치운 다음, 지렛대를 구해다가 돌 가장자리 밑에 고정시키고 약간의 힘을 주어 들어 올렸다. 안을 들여다보니, 정말 거기에는 사자가 말한 대로 ㄱ판과 ㄴ우림과 둠밈, 그리고 ㄷ가슴판이 보였다. 이것들이 담겨 있는 상자는 일종의 시멘트로 돌들을 함께 쌓아 만든 것이었다. 상자 밑바닥에는 돌 두 개가 상자를 가로질러 놓여져 있고, 이 돌 위에 판과 또 다른 것들이 놓여 있었다.

53 나는 그것들을 꺼내려 하였으나 사자가 금하였으며 그것들을 꺼낼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고, 그때로부터 사 년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다시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는 내가 그때부터 정확히 일 년 후에 그 곳에 와야 하며, 거기에서 그가 나를 만날 것이며, 판을 얻을 때가 오기까지 내가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내게 말했다.

54 따라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매한 해가 다 되면, 매번 그 곳에서 같은 사자를 만났으며, 우리가 가진 모든 대화에서 주께서 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이며, 어떻게 또 어떠한 방식으로 마지막 날에 그의 ㄱ왕국이 인도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해 그로부터 가르침과 지식을 얻었다.

*조셉 스미스가 에머 헤일과 결혼함—그는 모로나이에게서 금판을 받아 문자 일부를 번역함—마틴 해리스가 안톤 교수에게 문자와 번역문을 보임. 그가 "나는 봉해진 책은 읽을 수 없다"고 말함(55~65절).*

55 내 부친의 생활 형편이 매우 어려웠기에, 우리는 일당을 받고 일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달리 할 수 있는 대로 기회를 찾아 우리 손으로 직접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우리는 때로는 집에 있었고, 때로는 집을 떠나 있었는데, 계속해서 일함으로써 편안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56 1823년 내 부친의 가족은 내 맏

51ㄱ 안내 쿠모라 산.
52ㄱ 몰 6:6.
안내 금판.
ㄴ 안내 우림과 둠밈.
ㄷ 안내 가슴판.
54ㄱ 안내 하나님의 왕국 또는 천국.

형 ㄱ앨빈의 사망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 1825년 10월 나는 뉴욕 주 세낭고 군에 사는 조시아 스톨이라 하는 노신사에게 고용되었다. 그는 펜실베이니아 주 사스케하나 군 하모니에서 스페인 사람들이 개발한 은광에 대해 들은 바가 있어서, 내가 그에게 고용되기 전에, 할 수 있으면 광맥을 발견해 보려고 발굴 작업을 해 오던 중이었다. 내가 가서 그와 함께 지내게 된 이후에 그는 그의 다른 일꾼들과 함께 나를 데리고 가서 은광 발굴 작업을 했고, 이 곳에서 나는 한달 가까이 일을 계속했으나, 우리의 노력은 성공하지 못하였으며 마침내 나는 그 노신사를 설득하여 발굴을 중단하게 하였다. 내가 돈 발굴가였다는 이야기가 세상에 널리 퍼진 것은 이 때문이었다.

57 내가 이같이 고용되어 있는 동안 그 지방의 아이잭 헤일씨 댁에 하숙을 하게 되었는데 내가 처음 내 아내 (헤일씨의 딸) ㄱ에머 헤일을 본 것은 그 곳에서였다. 1827년 1월 18일 우리는 결혼하였는데, 내가 아직 스톨씨에게 고용되어 있을 때였다.

58 내가 시현을 보았다고 계속 주장함으로 인하여 ㄱ핍박은 여전히 나를 따라다녔고, 내 아내의 친정 가족은 우리가 결혼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심하게 반대했다. 그러므로 나는 부득이 내 아내를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야 했고, 우리가 가서 결혼한 곳은 뉴욕 주 세낭고 군 사우스베인브릿지에 있는 타빌 치안판사의 집이었다. 결혼하자마자 나는 스톨씨에게서 나와 내 부친에게로 가서 그 계절은 부친과 함께 농사를 지었다.

59 드디어 판과 우림과 둠밈과 가슴판을 얻을 때가 이르렀다. 일천팔백이십칠년 구월 이십이일, 또 한 해가 다 되어 늘 하던 대로 그것들이 묻혀 있는 곳으로 가자, 바로 그 하늘의 사자가 다음과 같은 명령과 함께 그것들을 내게 내주었다. 즉 내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만일 내가 소홀히 하거나 나 자신이 조금이라도 ㄱ태만하여 그것들을 잃는다면 나는 끊어버림을 당할 것이나, 그 사자가 이를 달라 할 때까지 내가 온 힘을 다하여 ㄴ보전하려고 애쓴다면 그것들은 보호될 것이라고 하였다.

60 나는 그것들을 안전하게 지키도록 그처럼 엄한 당부를 받은 이유와 내가 내 손에 요구되는 일을 끝내면 그가 이를 가지러 오겠다고 한 이유를 곧 알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이를 내게서 빼앗아가려고 온갖 격렬한 수단이 다 사용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목적을 위하여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술책이 다 동원되었다. 핍박은 이전보다 더 혹독하고 격심해졌으며 수많은 무리가 할 수만 있으면 그것들을 내게서 빼앗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리고 있었다. 그

56ㄱ 교성 137:5~8.
57ㄱ 안내 스미스, 에머 헤일.
58ㄱ 안내 박해하다, 박해.
59ㄱ 조역 1:42.
ㄴ 안내 경전—경전의 보존.

러나 내가 이를 사용하여 내게 요구된 일을 끝낼 때까지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들은 내 손에 안전히 보관되었다. 약속된 대로 사자가 이를 가지러 왔을 때 나는 그것들을 그에게 넘겨주었고, 일천팔백삼십팔년 오월 이일인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가 이를 간직하고 있다.

61 그러나 동요는 여전히 계속되었고 천 개의 혀를 가진 소문은 항상 부친의 가족에 대해서, 또 나 자신에 대해서 거짓을 유포시키고 있었다. 만일 내가 그 천분의 일만을 말한다 해도 족히 여러 권의 책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핍박이 심해져서 견딜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는 맨체스터를 떠나 내 아내와 함께 펜실베이니아 주 사스케하나 군으로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출발하려고 준비하는 동안—몹시 가난하고 우리에게 닥친 핍박이 너무도 심했기 때문에 형편이 달라질 가망은 없었는데—이러한 고난 중에 ㄱ마틴 해리스라고 하는 신사와 친하게 되었고 그는 우리에게 와서 오십 불을 주면서 우리의 여행에 보태 쓰라고 했다. 해리스씨는 뉴욕 주 웨인 군 팔마이라 군구에 사는 덕망 있는 농부였다.

62 이 시의적절한 도움으로 나는 펜실베이니아 주의 나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고, 그 곳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판의 문자를 필사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그것을 상당량 필사하였고 ㄱ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그 일부를 번역하였는데 이것은 내가 처가에 도착한 십이월부터 다음해 이월 사이의 일이었다.

63 이 이월 중 어느 날 앞서 언급한 마틴 해리스씨가 우리가 있는 곳에 와서 내가 판에서 필사한 문자를 가지고 뉴욕 시로 갔다. 그와 그 문자에 관련하여 일어난 일에 대하여는, 그가 돌아와 내게 말해 준 그대로 그 상황에 대한 그 자신의 이야기를 인용하는 바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64 "나는 뉴욕 시에 가서 찰스 안톤 교수에게 번역된 문자와 그 번역문을 보였는데, 그는 문학에 조예가 깊기로 유명한 분이었다. 안톤 교수는 번역은 정확하며 이전에 본 그 어떤 애굽어 번역보다 더 정확하다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아직 번역되지 않은 문자들을 그에게 보여 주자 그는 그것이 애굽어, 갈데아어, 앗시리아어, 그리고 아라비아어라고 하며 말하기를, 그것은 틀림없는 문자들이라고 하였다. 그는 팔마이라 사람들에게 그것이 틀림이 없는 문자들이라는 것과 또한 그러한 문자에 대한 번역 역시 번역된 그대로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나에게 주었다. 내가 그 증명서를 받아 호주머니에 넣고 그 집을 막 나서려는데 안톤씨가 나를 다시 불러 세우고 그 젊은이는 그가 발견했다는 곳에 금판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내었는가를 내게 물었다. 나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그것을 계시해

61ㄱ 교성 5:1.

안내 해리스, 마틴.

62ㄱ 안내 우림과 둠밈.

주었다고 대답했다.

65 "그러자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 증명서를 봅시다' 라고 해서 내가 그것을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그에게 주자, 그는 그것을 받아 찢으면서 ㄱ천사의 성역과 같은 그러한 일은 이제 없으며, 만일 자기에게 그 판을 가져온다면 자기가 그것을 번역해 주겠다고 말했다. 내가 그에게 판의 일부가 ㄴ봉해져 있으며 내가 그것을 가져오는 일은 금지되어 있다고 하자 그는 '나는 봉해진 책은 읽을 수 없다' 고 대답했다. 나는 그를 떠나 미첼 박사에게 갔는데 그는 문자와 번역에 관하여 안톤 교수가 말한 것을 인정하였다.

• • • •

*올리버 카우드리가 서기로서 몰몬경 번역에 봉사함—조셉과 올리버가 침례 요한에게서 아론신권을 받음—그들은 침례 받고 성임되어 메언의 영을 받음(66~75절).*

66 1829년 4월 5일 ㄱ올리버 카우드리가 나의 집에 왔다. 그때까지 나는 결코 그를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내게 말하길, 자기는 내 부친이 사시는 곳 근처의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고, 내 부친 또한 자녀를 그 학교에 보내는 사람이었기에, 한동안 부친의 집에 하숙했었는데, 그 곳에 있는 동안 가족들이 내가 판을 얻은 경위를 이야기해 주었으므로 내게 물어보러 왔다고 말했다.

67 카우드리씨가 도착한 지 이틀 후에 (4월 7일) 나는 몰몬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으며 그는 나를 위하여 필기하기 시작했다.

• • • •

68 우리는 여전히 번역 일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달(1829년 5월) 어느 날 우리는 판을 번역하다가 그 가운데 언급되어 있음을 알게 된 ㄱ죄 사함을 위한 ㄴ침례에 관하여 기도하여 주께 물어 보려고 숲 속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주를 부르고 있을 때 하늘에서 온 ㄷ사자가 빛 ㄹ구름 가운데 내려와서 그의 ㅁ손을 우리 위에 얹고 우리를 ㅂ성임하여 이르기를,

69 *나의 동료 종들인 너희에게 메시야의 이름으로 나는 ㄱ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그리고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의 열쇠들을 지니고 있나니, 이것은 ㄴ레위의 아들들이 또다시 의롭게 주께 제물을 바칠 때까지 결코 다시는 땅에서 거두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다.*

70 그는 이 아론 신권에는 성신의 ㄱ은사를 위한 안수례의 권능은 없으

65ㄱ 안내 천사.
ㄴ 사 29:11~12; 니후 27:10; 이더 4:4~7.
66ㄱ 안내 카우드리, 올리버.
68ㄱ 안내 죄 사함.
ㄴ 안내 침례, 침례를 주다.
ㄷ 안내 침례 요한.
ㄹ 민 11:25; 이더 2:4~5, 14; 교성 34:7.
ㅁ 신개 1:5. 안내 손, 안수.
ㅂ 안내 권세; 성임하다, 성임.
69ㄱ 안내 아론 신권.
ㄴ 신 10:8; 교성 13; 124:39. 안내 레위—레위 지파.
70ㄱ 안내 은사, 성신의.

나 이는 이후에 우리에게 부여되리라고 말하고 우리에게 가서 침례를 받으라고 명하면서, 내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 후에 그가 나에게 침례를 베풀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지시하였다.

71 따라서 우리는 가서 침례를 받았다. 내가 먼저 그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 후에 그가 나에게 침례를 베풀었다—이렇게 한 후 나는 그의 머리에 내 손을 얹고 그를 아론 신권에 성임하였으며, 그런 후에 그가 내게 그의 손을 얹고 나를 같은 신권에 성임하였다.—이는 우리가 그렇게 명받은 때문이었다.*

72 이때에 우리를 찾아와 우리에게 이 신권을 부여한 사자는 자신의 이름이 요한이며, 신약전서에서 [ㄱ]침례 요한이라 불리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였으며, 자신은 [ㄴ]멜기세덱 신권의 [ㄷ]열쇠를 지닌 [ㄹ]베드로, [ㅁ]야고보, [ㅂ]요한의 지시 아래 행동한다고 말하였고, 그 신권은 때가 되면 우리에게 부여될 것이며, 나는 교회의 첫 [ㅅ]장로라 일컬어지고, 그(올리버 카우드리)는 둘째 장로라 일컬어 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우리가 이 사자의 손으로 성임되고 침례를 받은 것은 1829년 오월의 열다섯째 날이었다.

73 우리가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자 바로 우리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에게서 오는 크고 영광스러운 축복을 경험하였다. 내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침례를 베풀자마자 [ㄱ]성신

* 올리버 카우드리는 이 여러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결코 잊혀지지 않을 날들이었다—하늘의 영감으로 말하여지는 음성을 들으며 앉아 있는 동안 이 가슴은 한량없는 감사를 느꼈다! 하루하루 나는 계속하여 방해받지 않고 '몰몬경'이라 불리는 역사 기록을, 니파이인이 '해석기'라 말하곤 했던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그가 번역하는 대로 그의 입으로부터 받아 적었다.

"단지 몇 마디 말로써 몰몬과 그의 충실한 아들 모로나이가 기술한, 한때 하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던 백성의 흥미로운 기사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지금의 나의 의도를 바꾸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를 후일로 미루고, 서문에서 말하였듯이, 이 교회의 일어남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몇 가지 사건으로 곧바로 넘어가기로 하겠다. 이것은 완고한 자들의 찌푸린 얼굴과 위선자들의 비방 가운데서도 앞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속으로 받아들인 수천의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이 될 수 있으리라.

"건실한 정신을 지닌 사람이라면, 특히 부패가 사람들 사이에 채택되고 있는 모든 형식과 체제 위에 의구심을 만연시켰을 때에는, 어느 누구라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 나갈 정확한 방법에 대하여 구주의 입으로부터 니파이인에게 주어진 지시를 번역하고 기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선한 양심에 순응하기 위하여 물의 무덤에 장사됨으로써 기꺼이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특권을 갈망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72ㄱ 안내 침례 요한.
ㄴ 안내 멜기세덱 신권.
ㄷ 안내 열쇠, 신권의.
ㄹ 교성 27:12~13.
안내 베드로.
ㅁ 안내 야고보, 세베데의 아들.
ㅂ 안내 요한, 세베데의 아들.
ㅅ 안내 장로.
73ㄱ 안내 성신.

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는 일어서서 머지않아 일어나게 될 많은 일들을 ㄴ예언하였다. 그리고 또, 내가 그에게서 침례를 받자마자 나 또한 예언의 영을 지니게 되었고, 일어나, 이 교회의 일어남과 또 교회에 관련된 다른 많은 일들 그리고 이 세대의 사람의 자녀들에 대해 예언하였다. 우리는 성신으로 충만하였으며, 우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

74 이제 우리의 생각이 깨우침을 받아, 우리는 경전을 분명히 ㄱ이해하기 시작하였고 전에는 결코 얻을 수 없었고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경전의 더욱 신비로운 구절들의 ㄴ참 뜻과 의도가 우리에게 밝혀지기 시작하였다. 한편으로 주위에 이미 드러나 있던 핍박의 기색으로 인하여 우리는 신권을 받고 침례받은 경위를 불가불 비밀에 부쳐 두지 않으면 안 되었다.

75 우리는 시시로 폭력을 당할 위협을 받아왔는데, 이 역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에게 폭력을 가하려던 의도는 (신성한 섭리하에) 내 처가 식구들의 영향력에 의해서만 저지되었으니, 그들은 내게 매우 우호적이 되었으며, 폭도들에게 반대하였고, 기꺼이 내가 방해받지 않고 번역 일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그리하여 가능한 한 모든 불법적인 행동에서 보호해 줄 것을 우리에게 제의하고 약속해 주었다.

"구주께서 이 대륙 위에서 야곱의 후손의 남은 자들에게 성역을 베푸신 기사를 기록하고 난 후에는, 선지자가 그렇게 되리라 말한 대로,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백성들의 생각을 가렸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더 깊이 생각해 보건대, 종교에 관한 커다란 분쟁과 소란의 와중에서 아무도 복음의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마찬가지로 쉽게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예수에 대한 간증이 다름 아닌 예언의 영이며, 예수께서 지상에 백성을 가졌던 이 세상의 모든 시대에 걸쳐, 그의 종교가 직접적인 계시에 의해 기초가 놓여지고 설립되고 유지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과연 계시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식을 집행할 권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들이 묻혀지고 그들의 간계가 위험에 빠지게 된 사람들에 의해 주의 깊게 은폐되었다 하더라도, 한 번 사람들의 얼굴에 비춰지도록 허용된다면, 그것들은 이미 우리에게 더 이상 묻혀진 것이 아니었으며, 우리는 다만 '일어나 침례 받으라' 는 계명이 주어지기만을 기다릴 따름이었다.

"이것은 오래 바라지 않아 실현되었다. 자비가 풍성하시고 겸손한 자의 충실한 기도에 언제나 기꺼이 응답해 주시는 주께서, 우리가 사람들의 거처에서 멀리 떨어져 간절히 그에게 부르짖었을 때,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고자 낮게 임하셨던 것이다. 돌연 마치 영원 가운데서 온 것같이 구속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평강을 말씀하셨으며, 한편으로 휘장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영광을 입고 내려와 간절히 바라던 말씀과 회개의 복음의 열쇠를 전해 주었다. 얼마나 기뻤던가! 얼마나 기이하였던가! 얼마나 놀라웠던가! 세

73ㄴ 안내 예언, 예언하다. | 74ㄱ 안내 이해. | ㄴ 요 16:13.

상이 고통을 당하며 혼란에 빠져 있을 동안–수백만의 사람들이 앞 못 보는 자처럼 벽을 더듬고 있을 때, 그리고 모든 사람이 범부와도 같이 불확실한 것에 의존하고 있을 때, 우리의 눈은 보았고, 우리의 귀는 들었으니, 마치 눈부신 햇빛 속에서처럼, 아니, 그 이상의–자연의 대지 위에 그 찬란함을 쏟아내리던 오월 햇살의 광채보다도 더 밝은 속에서였다! 그때, 부드러웠으나 중심까지 꿰뚫는 그의 음성과, '나는 너희의 동역자니라' 하는 그의 말은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였다. 우리는 귀 기울였고 우리는 바라보았으며 우리는 찬탄하였다! 그것은 영광에서 온 천사의 음성이었고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서 온 말씀이었다! 주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불붙게 하는 동안, 우리는 들으면서 기뻐하였고 우리는 전능자의 시현에 감싸여 있었다! 어디에 의심할 여지가 있던가? 아무데도 없었다. 불확실성은 달아났고 의심은 가라앉아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였으며, 한편으로 꾸민 이야기와 속임수는 영원히 달아났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여, 생각해 보라. 잠시 더 생각해 보라. '나의 동료 종들인 너희에게 메시야의 이름으로 나는 이 신권과 이 권세를 부여하노라. 이는 레위의 아들들이 또 다시 의롭게 주께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땅에 머물러 있으리라!' 고 그가 말하며, 그의 손으로부터 우리가 성신권을 받았을 때, 어떠한 기쁨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찼으며 또 어떠한 놀라움으로 우리가 무릎을 꿇었는지를! (그러한 축복을 받는데 그 누가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이 마음의 느낌이나 이때에 우리를 둘러쌌던 장엄한 아름다움이나 영광을 여러분에게 그려내려고 시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세상이나 사람들이 세월을 통해 얻은 능변으로도 이 거룩한 존재처럼 흥미롭고 숭고한 방식으로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할 수 없음을 내가 말할 때에 여러분은 나의 말을 믿으리라. 그렇다.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기쁨을 주거나 그 평화를 누리게 하거나 성령의 능력으로써 전달된 하나하나의 문장에 내포되어 있는 지혜를 이해할 능력은 결코 가지고 있지 않다! 사람이 자기 동료들을 속이고, 속임수가 속임수를 뒤따르며, 악한 자의 자녀들이 어리석은 자와 배우지 못한 자를 꾀어내는 힘을 가져서 드디어는 오직 지어낸 이야기만을 많은 사람에게 공급하며 거짓의 열매가 경솔한 자를 그 흐름에 싣고 무덤으로 운반해 가기에 이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의 손가락으로 한 번의 만져 주심은, 그렇다, 천상의 세계에서 오는 한 줄기의 영광 또는 영원의 품에서 구주의 입에서 나오는 한 마디 말씀은 이 모든 것을 쳐서 무의미한 것이 되게 하며 이를 마음에서 영원히 지워 없앤다. 우리가 천사의 면전에 있었다는 확신, 우리가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는 확실성,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써 말하게 하시는 대로 순결한 분에게서 흘러나왔던 훼손되지 않은 진리는 내게 있어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다. 나는 내가 머물도록 허락되는 동안 경탄과 감사함으로 구주의 선하심의 이 나타나심을 항상 바라볼 것이며, 완전함이 거하고 죄가 결코 올 수 없는 그 처소에서, 결코 그침이 없는 그날에 찬미하게 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 *메신저 앤드 애드보케이트 (Messenger and Advocate)* 제1권(1834년10월), 14~16 쪽.

# 신앙개조

##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교회사* 제4권 535~541쪽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 ㄱ하나님과 그의 ㄴ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ㄷ성신을 ㄹ믿는다.

2 우리는 사람이 아담의 ㄱ범법으로 인하여가 아니라 그들 ㄴ자신의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음을 믿는다.

3 우리는 그리스도의 ㄱ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ㄴ복음의 법과 ㄷ의식에 ㄹ순종함으로써 ㅁ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4 우리는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ㄱ의식은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ㄴ신앙, 둘째 ㄷ회개, 셋째 ㄹ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ㅁ침례, 넷째 ㅂ성신의 은사를 위한 ㅅ안수례임을 믿는다.

5 우리는 사람이 복음을 ㄱ전파하고 그 ㄴ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ㄷ예언에 의하여 또 ㄹ권세 있는 자에 의한 ㅁ안수로써 하나님으로부터 ㅂ부름 받아야 함을 믿는다.

6 우리는 초대 교회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ㄱ조직 즉 ㄴ사도, ㄷ선지자, ㄹ감독, 교사, ㅁ축복사 등을 믿는다.

7 우리는 ㄱ방언, ㄴ예언, ㄷ계시, ㄹ시현, ㅁ병 고침, ㅂ방언의 통역 등의 ㅅ은사를 믿는다.

8 우리는 ㄱ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 한, ㄴ성경이 하나님의 ㄷ말씀임을 믿으며, 또한 ㄹ몰몬경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9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1ㄱ 안내 하나님, 신회—아버지 하나님.
ㄴ 안내 하나님, 신회—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ㄷ 안내 하나님, 신회—성신 하나님; 성신.
ㄹ 안내 믿음, 믿다.
2ㄱ 안내 아담과 이브의 타락.
ㄴ 신 24:16; 겔 18:19~20. 안내 책임을 지다. 책임질 수 있는, 책임질 수 있음; 선택의지.
3ㄱ 안내 속죄하다, 속죄.
ㄴ 안내 율법.
ㄷ 안내 복음.
ㄹ 안내 순종, 순종하는, 순종하다.
ㅁ 모사 27:24~26; 모세 5:9. 안내 구원.
4ㄱ 안내 의식.
ㄴ 안내 신앙.
ㄷ 안내 회개하다, 회개.
ㄹ 안내 죄 사함.
ㅁ 안내 침례, 침례를 주다.
ㅂ 안내 은사, 성신의.
ㅅ 안내 손, 안수.
5ㄱ 안내 전파하다.
ㄴ 앨 13:8~16.
ㄷ 안내 예언, 예언하다.
ㄹ 안내 권세; 신권.
ㅁ 안내 손, 안수.
ㅂ 안내 부르다, 하나님에게서 부름 받은, 부름.
6ㄱ 안내 교회, 참된 교회의 표적—교회 조직.
ㄴ 안내 사도.
ㄷ 안내 선지자.
ㄹ 안내 감독.
ㅁ 안내 복음 전하는 자; 축복사, 축복사의.
7ㄱ 안내 방언의 은사.
ㄴ 안내 예언, 예언하다.
ㄷ 안내 계시.
ㄹ 안내 시현.
ㅁ 안내 병 고치다, 병 고침.
ㅂ 고전 12:10; 몰 9:7~8.
ㅅ 안내 은사, 영의.
8ㄱ 니전 13:20~40; 14:20~26.
ㄴ 안내 성경.
ㄷ 안내 하나님의 말씀.
ㄹ 안내 몰몬경.

ㄱ계시하신 모든 것과, 현재 계시하시는 모든 것을 믿으며, 앞으로도 그분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많은 위대하고도 중대한 것들을 ㄴ계시하실 것을 믿는다.

10 우리는 이스라엘이 문자 그대로 ㄱ집합하고 그 ㄴ열 지파가 회복될 것과, ㄷ시온(새 예루살렘)이 미 대륙에 세워질 것과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상에서 ㄹ다스리실 것과 땅이 ㅁ새로워지고 ㅂ낙원의 ㅅ영광을 받게 될 것을 믿는다.

11 우리는 우리 자신의 ㄱ양심의 ㄴ지시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ㄷ특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또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어떻게, 어디에서, 혹은 무엇이라도 ㄹ예배할 수 있는 똑같은 특권을 허용한다.

12 우리는 왕, 대통령, 통치자, 장관에게 복종할 것과, ㄱ법률을 순종하고 존중하며 지지할 것을 믿는다.

13 우리는 ㄱ정직, 진실, ㄴ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인에게의 ㄷ선행을 믿는다. 진실로 우리는 바울의 ㄹ훈계를 따른다 할 수 있으니—우리는 모든 것을 믿으며, 우리는 모든 것을 ㅁ바라며,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견디어 왔으니, 모든 것을 ㅂ견딜 수 있기를 바란다. 무엇이든지 ㅅ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 듣기 좋거나 혹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않는다.

조셉 스미스.

9ㄱ 안내 계시.
ㄴ 암 3:7; 교성 121:26~33. 안내 경전—나올 것이라고 예언된 경전들.
10ㄱ 사 49:20~22; 60:4; 니전 19:16~17. 안내 이스라엘—이스라엘의 집합.
ㄴ 안내 이스라엘—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열 지파.
ㄷ 이더 13:2~11; 교성 45:66~67; 84:2~5; 모세 7:18. 안내 새 예루살렘; 시온.
ㄹ 안내 복천년.
ㅁ 안내 지구—지구가 깨끗하게 됨.
ㅂ 설명 에덴동산과 같은 상태. 사 11:6~9; 35:1~10; 51:1~3; 65:17~25; 겔 36:35. 안내 낙원.
ㅅ 안내 영광.
11ㄱ 안내 양심.
ㄴ 안내 선택의지.
ㄷ 교성 134:1~11.
ㄹ 안내 예배.
12ㄱ 교성 58:21~23. 안내 율법.
13ㄱ 안내 정직한, 정직; 고결.
ㄴ 안내 순결.
ㄷ 안내 섬김.
ㄹ 빌 4:8.
ㅁ 안내 소망.
ㅂ 안내 견디다.
ㅅ 안내 단정; 덕.